
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11월 19일 수요일 (주간) 제 448 호

천성산

도롱뇽 소송지지 서명 확산

지율 스님 단식 40일 넘겨
"살려야 한다, 10만 동참을"

전국으로 번지는 생명운동의 메아리



어머니…

10일 단식중인 지율 스님을 속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차마 말문을 열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며 스님의 손을 잡는 어머니를 스님 역시 바로 볼 수 없었다. 말이 없어도 서로의 '안타까움'을 알기에…. 사진= 천미희 기자

단식 42일째(11월 14일 현재)를 맞은 지율스님을 살려야 한다는 각계의 여론이 확산되면서 도롱뇽 소송인단 가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3일 천성산 홈페이지(www.cheonsung.com)는 1천6백여 명이던 소송인단이 4천여 명으로 늘어나는 등 도롱뇽 소송인단 가입을 원하는 네티즌들의 접속이 폭주하면서 서버가 다운됐다. 14일에는 서면과 온라인상으로만 4만여명을 넘어서 도롱뇽 소송인단 가입은 생명과 환경 문제에 새로운 불씨를 지피는 일로 평가받고 있다.

조계종과 불교사회단체, 일반시민단체들이 '11월 16일까지 10만 명 도롱뇽 소송인단에 동참해 생명이 위태로운 지율스님을 살리자'는 호소문을 내며 지율 스님 살리기에 돌입한 것은 12일. 단식 40일을 넘기면서 지율스님의 생명이 위태로워졌기 때문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명의로 전국 2천여 사찰에 발송하고 "지율스님과 천성산을 살리기 위해 소송인단 모집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토회도 서울, 부산 등 지역 법당을 중심으로 500여명의 인력을 투입 소송인단 모집에 진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녹색연합, 조계종 중앙신도회,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의 단체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총동원한 소송인단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을 비롯한 학생들의 동참이 눈에 띄게 두드러져 환경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묵언 단식정진 중인 지율 스님은 글을 통해 "천성산을 지키고 뭇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마음을 모아준 소송인단은 천성산 생명들의 희망"이라며 "모든 분들의 뜻을 져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천성산을 지키는 일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7면

한편 11월 28일 도롱뇽 소송 첫 공판을 앞둔 가운데 고속철도공단은 11월 중순경 천성산 구간에 대한 공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북한산

공론조사 연내 실시 안된다

환경단체 강력 반발
포스터 등 홍보전 돌입

북한산국립공원의 가치와 관통노선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북한산 대국민 홍보전이 본격화됐다.

북한산 · 수락산 · 불암산 관통노선저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와 자연환경 보전과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최근 홍보용 포스터(사진)를 제작, 11월 10일 지하철 1~8호선 전 구간(분당선 제외)에 부착했다. 연석회의와 공대위는 사찰용 포스터 1천5백부, 차량용 스티커 5만부, 홍보용 책자 1만부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불교계 환경단체들의 이같은 홍보전은 조계종이 제시한 3단계 해법에 대해 정부측이 사실상 수용거부 입장을 밝힘으로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11월 13일 조계종으로 회신한 공문을 통해 "비교노선 검토 자료가 있는데도 또다른 설계검토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비교노선 설계도면 마련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수리변동분석 등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조계종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또한 "조계종의 참여하에 공론조사 주관기관 선정 등 공론조사 준비를 진행함으로써 연내에 공론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종단 입장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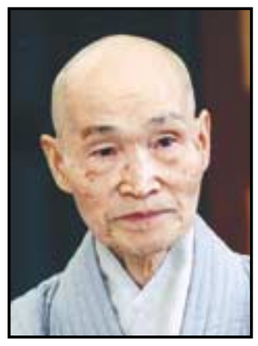
이와 관련 정부 한 관계자는 "조계종이 참여하지 않으면 공론조사 실시가 어렵다"고 밝혀 조계종을 배제하고 강행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시했다.

이 관계자는 "노선재검토위 보고서는 공론조사 토론회 자료집으로 활용할 것이며, 보고서 재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해 재 발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한국불교 큰스승 청화 스님 원적

12일 성륜사서, 16일 원로회의장 엄수



한국불교의 큰 스승인 조계종 원로의원 청화(淸華)스님(성륜사 조실)이 11월12일 오후 10시 30분 성륜사 조선당(祖禪堂)에서 원적(圓寂)에 들었다. 세납 80세, 법랍 56세.

1923년 전남 무안에서 나신 청화스님은 1947년 백양사 운문암에서 금타화상을 은사로 출가한후 '장좌불와(長坐不臥)'와 '일일일식(一日一食)' 수행으로 일관해온 대표적 선승(禪僧)이다.

스님은 출가이후 40여 년 동안 사성암 벽송사 백장암 상견성암 상원암 남미륵암 칠장사 등 제방의 선방에서 정진했다. 스님은 1985년 구산선문의 하나인 곡성 동리산 태안사에서 삼년결사를 시작으로 동리산문을 재건하고 대중교화에 나섰다.

미국 캘리포니아 캐멀과 팜스프링스에서 삼보사와 금상선원을 창건하고 해외포교에도 직접 나섰다.

청화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16일 성륜사에서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거행됐다.

이준엽 기자

성지 녹야원에 첫 한국불상 봉안

한 · 인 수교 30년 기념, 12월 30일 봉불법회
불자들 많은 동참 바랍니다…명단 영구복장

올해는 불교의 발생 성지인 인도와 수교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한-인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후 최초로 설법하신 성지 녹야원에 한국전통 양식으로 조성된 불상을 모시는 불사를 독자 여러분을 비롯한 전국 사부대중과 함께 추진합니다.

또한 인도 불교지도자와 한국 참가단이 동참한 가운데 거룩한 성도절에 불상봉안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 성지순례도 갖습니다.

부처님 나라 인도와 수교30주년을 기리는 이번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부처님 성지 녹야원 한국부처님 봉안불사

- 동참금: 1구좌 1만원
- 모든 동참자의 명단은 부처님 복장에 영구히 봉안됩니다.
- 접수: 국민은행 006-01-0783-279 예금주/현대불교신문

▶봉안법회 참가 및 성지순례 행사 프로그램

- 점안법회
  - -일시: 2003년 12월30일(성도절)
  - -장소: 마하보디사르트센터(Maha Bodhi Samath Center)
  - -법주: 혜총스님(감로사 주지)
- 성지순례
  - -인솔법사: 리선행법사(성지순례 전문가)
  - -일정: 2003년 12월28일~1월7일(10박11일)
  - -코스: 인도(사르나트(녹야원), 보드가야, 쿠시나가르, 라즈기르, 스라바스티, 바라나시, 아그라, 뉴델리) 네팔(룸비니)
  - -동참금: 199만원
  - -특전: 지역마다 최고급 호텔, 요리사 동행 식사제공, 서울 부산에서 동시 출발

▶동참문의: (02)737-8881 **▶주최: 현대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02)737-0090 부산:(051)632-0064 대구:(053)768-8008 광주 호남:(062)373-8813 전북:(063)255-2274 대전:(042)489-9390 충북:(043)258-3282 강 릉 :(033)643-5599 영주:(054)634-3429 경남 동부:(055)353-1196 경남 서부:(055)547-3469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삼소회 명상기도 모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생존의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세상이길 원합니다.' <삼소회 기원문 중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에도 벅찰 만큼 각박한 세상에 세계평화와 종교화합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삼소회(三笑會). 세 번 웃는다는 뜻의 삼소회는 불교, 천주교 원불교 세 종교 여성성직자 12명으로 이뤄진 작은 명상기도 모임이다.

1988년 종교화합을 목적으로 결성된 삼소회가 명상기도 모임으로 거듭난 것은 2000년의 일이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성자들의 가르침에 가장 충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들은 명상기도를 택한 것이다.

각자 다른 종교에 소속돼 있는 여성성직자들이 매월 한번씩 같은 자리에서 명상기도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이들이 11월11일 세계평화와 종교화합을 기원하며 백일기도에 들어갔다.

서울 법련사에서 백일기도 입재식을 봉행한 이들은 각자의 생활공간에서 같은 기원문으로 새벽 5시30분~6시30분 공동기도 시간을 갖는다.

입재식에서 이들은 최근 전쟁으로 황폐화된 이라크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또 그 실천을 위해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 귀의 사연을 담은 <출가>(도서출판 솝리)라는 책을 펴내고 수익금 전액을 이라크 어린이 돕기 성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종교가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를 갈라놓는 벽이 되고 무서운 무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들의 서원은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진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사은님의 은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있다.

이동혁(취재1부 기자)

圓 元老議員 無住堂 淸華大宗師 元老會議 葬 寂

大韓佛敎曹溪宗 元老議員 無住堂 淸華大宗師께서 世緣이 다하시어 불기 2547년 11월 12일(음 10월 19일) 저녁 전남 곡성 성륜사에서 원적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永訣日時: 불기 2547(2003)년 11월 16일(음 10월 23일) 오전 10시
■永訣式場: 곡성 성륜사
■茶毘場: 곡성 성륜사 다비장

訃 告

증 명: 법전 서응 월하
장의위원장: 도원
장의부위원장: 종산 원명
장의위원: 석주 관응 도견 법룡 도천 지종 성수 활안 덕명 숭산 원담 녹원 보성 이두 정천 천운 동훈 지관 진제 지혜 초우 혜정 호산 천운
지도위원: 법장
지도부위원장: 지하 무비 도영
지도위원: 지유 고산 월주 정대 능가 송담 정무 월운 정일 법정 도문 밀운 월서 법홍 철웅 부주 고봉 정원 송월 운범 종하 설정 홍교 오현 성파 통광 현성 혜성 도법 명진 지선 정관 무진장 암도 일면 정련 성타 종범 학능 능혜 명선 인환 종진 성우 지안 혜총 혜인 원융 적명 무여 명정 무문 고우 정광 현기 금아 인각 지환 정태 정찬 영진 성주 법산 법안 진철 정락 마근 현해 지명 진각 법정 자광 지성 법타 종상 세민 원정 성오 현문 혜승 평상 명공 명섭 현봉 몽산 용주 범여 철안 원혜 혜자 지만 지현 동광 효림 성직 성월 정휴 도후 정념 도완 원담 진구 장곡 탄우 인행 선광 법등 법보 혜승 법광 장적 무이 장주 종광 향적 현응 선각 정인 이암 원정 상운 지준 도문 설송 법조 원행 일화 현공 의연 진만 일분 무자 보경 보선 월우 중원 광조 법경 성국 혜림 초격 지욱 정문 원택 지홍 학담 종훈 청화 지홍 정호 도각 정안 영담 종삼 영배 토진 장윤 법안 자승 도공 수현 본각 도문 운달 홍륜 혜원 계호 경륜 정성 혜원 혜해 묘전 태구 지명 상덕 성원 광우 진관 묘엄 명성 태경 상륜 현묵 법용 불필 혜근 자광 자행 현오 자민 묘순 경희 법성 육문 영운 혜등 일초 지형 일련 일법 해주 쾌성 일진 정안 뇌묵 (무순)
종무원·교육원·포교원 종무원 일동 초심·재심 호계위원 일동 법규위원 일동 소청심사위원 일동 중앙선관리위원 일동 종립학교관리위원 일동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 교재편찬위원회 위원 일동 역경위원회 위원 일동 군불교위원회 위원 일동 경승 일동 전국 향우회 일동 전국비구니회 일동 고은 백창기 선진규 서돈각 홍기삼 조윤재 김기재 하순봉 김규철 전국 포교사 일동 전국 각 종립학교 교직원 일동 군법사 일동 중앙신도회·전국신도회 임원 일동 교수불자연합회 회원 일동 대한불교청년회 임원 일동 불교신문·불교방송·불교TV 등 교계언론기관 임직원 일동 각 시행단체장 (무순)

집행위원장: 도일
총무원장 도감: 원타
교무부장 법감: 법현
포교부장 병법: 지안 무상
교육부장 전의: 법현 토진 정각 영관 의현 선법 봉관
역경부장 지빈: 지원 대만 경진 정재 서훈 진성 본연 선방대중
재무부장: 무: 명원 성담 연담
홍보부장: 보: 성전 대석 효명 정오 도륜
서기: 혜용
별호: 법: 효진 대현 혜명
다비장 호좌: 주원 접수: 대정 혜진 보윤
다비장: 현법 용인 지상 대주 시자: 정륜 동선
주차통제: 영선 상전 정수 지현 후원: 영우 경안 보윤
문도대표: 월성 용타 지선 금성 다각: 보영
상좌: 월성 금성 혜산 용타 법봉 성본 도웅 원명 도일 지호 도강 지원 왕인 장우 무상 정만 용주 대영 대만 경전 본공 용인 대석 정재 주경 성전 장안 태호 대주 보은 대천 명전 광전 용화 동선 금인 명원 수안 홍원 서훈 혜용 지상 광인 상경 대현 상전 서진 본연 우선 진성 정본 법전 광윤 중원 원정 송운 정륜 선정 정륜 능조 지현 지각 영후 영선 (무순)
손상좌: 두진 토안 수진 토진 광진 명진 도천 용진 성진 삼진 효진 일진 응진 화진 국진 정진 묵진 해진 원진 운진 인진 상진 심진 우진 경진 월진 광조 지경 무구 토일 무언 법륜 성안 성윤 대륜 글륜 법인 법현 성후 영관 백우 법휴 형공 현수 현보 정수 홍경 천안 화정 자홍 형지 법조 대정 기철 법공 주원 영우 경안 정공 철인 도공 원공 보윤 보정 보융 승진 만진 무이 무착 혜공 진공 성안 (무순)

■문의처: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성륜사 ☎ 061-363-0081

元老議員 無住堂 淸華大宗師 元老會議 葬儀委員會

사 설

천태종 대북사업 환영하며

천태종이 11월 4일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대북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아 대북사업을 하는 종단은 조계종과 진각종 뿐이었다는 점에서 천태종은 쾌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종교단체의 대북사업은 기업체와 입장을 달리한다고 본다. 기업체가 이윤을 추구한다면 종교단체는 민족의 화합이나 민족문화의 동질성회복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종교단체도 이익을 전제로 한 대북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불교계의 대북사업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기쁜 일임에 분명하다. 더 많은 단체들이 대북사업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다. 각 종단마다 특징적인 대북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중복되거나 단순히 퍼주고 자랑하기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불교계는 황무지나 마찬가지이다. 남한 불교계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체계적인 승려양성, 효율성 있는 포교 대책, 불교문화의 동질성 회복, 남아 있는 불교문화재의 실태조사와 복구, 불교적 신앙의 활성화 등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각 종단의 특성을 살리되 체계적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에 가칭 대북사업위원회 같은 기구를 두어 조정하고 연구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 본다. 피와 살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통사찰의 가치 바로 알아야

전통사찰은 우리 민족이 보유한 여러 문화유산 가운데에서 가장 복합적인 가치를 가진 것으로 꼽힌다. 짧게는 반세기에서 길게는 천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전통사찰은 유형과 무형의 유산과 정신사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사찰은 불교계 해당 종단의 사유 재산이면서 공익성을 담보하고 있다. 재산권의 행사에 적지 않은 규제가 가해지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불교계의 정서는 바로 민족 문화유산에 대한 평등한 공유가 우선이라는 대승적 입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통사찰의 보수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역시 공동 유산에 대한 공동관리라는 논리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해 못할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의 국고보조금정비위원회가 전통사찰의 주요 시설물 보수 정비 사업비 지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처사일 것 같지만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전통사찰의 보수 정비는 어떤 경우이든 그에 따른 전문적인 사업 검토가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런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역에 따라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비 지원이 '특혜'로 비춰져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종교성향에 따른 문제도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 국고보조금정비위원회의 이번 검토는 개악의 소지가 더 많다는 점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쳐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교육불사 지원에 비중

조계종 내년예산

일반회계 165억…2.1% 증액, 종단 정체성 확립도

조계종의 내년도 예산이 일반회계 165억5천3백만 원, 특별회계 179억2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1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 제161회 정기중앙종회에서 2004년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예산(일반회계)을 올해보다 2.1% 증액 편성했다.

이번에 확정된 일반회계 예산은 예년과 달리 종단 정체성 확립 및 교육 불사 지원에 비중을 둔 것이 특징이다. 확정된 예산에 따르면 종단 수행체계 정립을 위한 사업에 1억4천여만 원이 편성됐고, 도의국사, 보조국사, 보우국사 등 조계종 종조와 중흥조의 다례제에도 3천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 동국대에 총무원장 장학금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백상원(기숙사) 지원금도 각 2억 원 이상 증액 또는 신규 반영됐다.

한편, 중앙종회는 이날 종회에서 정부의 범어사에 대한 문화재 국고보조금 환수조치 및 선암사에 대한 주택공사의 토지 강제수용 과정에서 빚어진 재정 문제 등과 관련해 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와 함께 사설사암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설 사암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또 이날 종회에서는 영담 스님이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종삼 스님을 만장일치로 새 위원으로 선출했다.

앞서 10일 열린 종회에서는 지혜 · 초우 · 진제 · 혜정 · 고산 · 밀운 스님 등 6명의 스님에 대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됐으며, 인환 · 설정 · 현해 스님의 법계위원 위촉건도 이의 없이 통과됐다.

봉은사 조사 특별위원회, 종헌 · 종법개정특별위원회, 종정감사 특별위원회는 이번 정기종회에서 각 위원회별로 그간의 활동을 보고하고 특위를 해산했다.

봉은사조사특위는 활동보고에서 "특위의 감사활동에 협조하지 않은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을 호법부에 징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설사암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종삼스님을 새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

동국학원 법인사무처장

14일, 성국스님 승진발령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정대 스님은 11월 14일, 장윤 스님의 사퇴로 공석 중이던 법인사무처장에 부처장 성국 스님을 승진, 발령했다. 성국 스님은 다음 달께 있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식 임명된다. 권형진 기자

제1회 청소년 燈공모전

12월12~18일 신청받아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회장 원택)가 '제1회 청소년 등(燈)공모전-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등 만들기'를 개최한다.

전국의 중 · 고등학생이면 모두 참가 가능하며 12월 12~18일 파라미타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 작품은 22일부터 2004년 1월 1일까지 조계사에서 열리는 등 전시회에 전시될 예정이다. (02)723-6165 김은경 기자

"군종장교 여성에게 개방돼야"

이종인박사, 8개 군종제도 개선방안 제시

한국국방연구원 인력개발연구센터 이종인 박사는 10월 31일 '장병 종교활동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군종장교가 여성에게 개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국방부 의뢰로 올 2월부터 실시됐으며 종교계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말경 국방부에 최종보고될 예정이다.

문건은 △군종 비전 정립 △군종의 본질적 기능 회복 △군 종교의 다원주의 확립 △신앙 전력화 정향(定向) △군종장교 여성개방 △소수종단 군종장교 허용 기준 설정 △군종장교 신분전환 대안 △이단 · 사이비 · 외도 선별기준 설정 등 총 8개 항목의 군종제도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군종장교 여성개방에 대해 이 박사는 군종 고유기능과 역할을 유지하면서 우수자원 확보가 가능하고 정부의 여성인력 활용 확대정책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군종 갈등해소와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박사는 또 군종장교 여성개방 비율에 대해 사관학교 여생도 비율에 맞춰 최소 10%대(매년 5~6명 선)로 실시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종장교 소수종단 허용기준에 대해 이 박사는 종단현실 등을 감안 1만5천명 선이 적당하며 군종장교 신분전환과 관련, 현역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동혁 기자

재가불자상 수상자 추천

재가연대 28일까지 접수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올해의 재가불자상' 수상자를 추천받는다.

추천은 교계 주요단체 등의 추천, 홈페이지(www.buddha21.org)를 통한 인터넷 추천, 교계신문 기자단의 추천 등을 주요 통로로 하고, 선정은 '2003년도 올해'의 다양한 이슈들, 사회적 실천성, 재가불자들의 의식과 신행에 미칠 의미 있는 영향, 재가불자로서 주체성과 개척자적 성격 등을 중요하게 감안한다.

11월 28일까지 공개 추천을 받아 12월 13일 '총회 및 송년의 밤'에서 시상한다. 02)745-7799 남동우 기자

행자교육원 새 입교연령지침 마련

만 41세 前日까지 허용키로

조계종이 행자교육원 입교자격 중 나이에 관한 행정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교육원(원장 무비)은 11월 13일 '행자교육원 수학자격 중 연령 관련 행정지침 변경의 건'을 전국 교구본사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변경의 골자는 출가연령 상한선인 '만 40세'의 적용을, 행자교육원 입교일을 기준으로 '만 41세가 되기 전 날'까지로 한다는 내용. 기존 적용은 '만 40세 되는 당일의 연령의 해당하는 자'까지였다. 즉 입교일을 기준으로 만 40세가 되는 생일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에 따라 입교 여부를 따졌던 것을 만 41세가 되기 전날까지는 입교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내년 9월 1일 개원 예정인 27기 행자교육원을 예로 들면, 기존에는 1964년 9월 1일 이후만 입교할 수 있었으나 새로 바뀐 지침에 따라 1963년 9월 2일 이후 출생한 사람이면 입교가 가능하다.

교육원은 "올해 처음 실시한 권역별 행자교육과 함께 승가 교육체계 정비 차원에서 만 40세의 해석을 사회적 통념과 법률 적용에 맞춰 변경했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일류동국 도약위한 포럼

20일 덕암세미나실서

동국대는 건학 100주년 D-900일을 맞아 11월 20일 오후 2시 덕암세미나실에서 '일류동국 도약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지금 동국대학교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일류동국 도약을 가로막는 요소는 무엇인가'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고침 448호 2면에서 '세계불교청년포럼'은 2004년에 열리므로 제목과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31면 '게시판 엿보기' 중 '행인사수련동문회'를 '해인사수련동문회'로 바로잡습니다.

'현대' 만평 심 민 섭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Ⅲ-1030] 기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 입재 : 2003년 11월 2일
◎ 회향 : 2006년 8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50년을 하루한끼 · 묵언 · 장좌불와

12일 원적, 청화 스님 수행 면모

열반게

此世他世間(차세타세간) 이 세상 저 세상
去來不相關(거래불상관) 오고감을 상관치 않으나
蒙恩大千界(몽은대천계) 은혜 입은 것이 대천계만큼 큰데
報恩恨細澗(보은한세간) 은혜를 갚는 것은 작은 시내 같음을
한스러워 할 뿐이네



수행자 본분 엄수가 원칙… 佛法 가장 쉬워

손수 빨래, 한겨울에도 찬물 목욕후 정진

"부처님 법이 제일 쉽지요."

우리시대의 대표적 선승으로 불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청화스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수행자의 본래자리요, 가장 쉬운 공부"라고 늘 강조하던 청화스님이 세속의 육신을 벗었다.

출가 후 50년간 늘 검소함과 부지런함으로 한 치의 게으름도 용납하지 않고 오로지 수행에만 매진해 온 스님은 자신을 낮추고 계율을 철저히 지킨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스님은 평소 "걸림이 없네 하면서 짓는 파계는 무애행(無碍行)이 아니며, 계행을 지키고도 걸림이 없는 것이 바로 무애행"이라고 강조했다.

은사인 금타스님의 가르침을 좇아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 눕지 않고 50년간 묵언과 장좌불와(長坐不臥)를 해오면서도 "생활이 돼서 그런지 오히려 장좌불와가 편하다"고 말할 만큼 수행과 계율에 철저했다.

스님은 출가 후 단 한차례도 주지 소임을 맡지 않고 지리산 상무주암, 백장암, 상원암 등 20여 곳이 넘는 암자와 토굴을 옮겨 다니며 수행에만 몰두했다. 끼니를 직접 만들어 먹고 의복 빨래도 손수 하면서 한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을 해가며 정진을 거듭했다.

그러면서도 스님은 자신의 수행이 부족해 중생을 교화하지 못했다며 언제나 하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스님을 지켜본 불자들은 한결같이 겸손하고 자비로운 모습에 저절로 고개를 숙이곤 했다.

찾아온 신도들에게 자신이 깔고 앉아있던 방석을 내주는가 하면, 얼마 전까지도 직접 마루바닥을 걸레질하기도 했다. 평생을 지니며 수행도반으로 삼아 온 염주를 장학기금마련 자선 바자회에 내놓은 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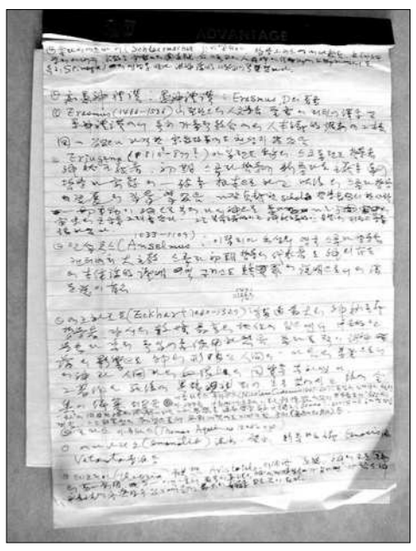
스님은 한 가지 수행법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근기에 맞는 수행법으로 수행할 것을 늘 강조했다. 특히 생활 속에서 쉽게 행할 수 있는 '염불선'을 주창하며 복잡한 수행법만을 고집하는 수행풍토를 경계했다.

몇 해 전 '일일일식(一日一食)으로 인해 기력이 없다'는 전문의들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수행력으로 이겨내며 태안사에서부터 진행한 월 1회 정기법회를 주관했다. 최근까지 전국각지에서 스님을 찾는 법회에 직접 나서며 대중교화에도 앞장섰다. 또 1995년부터 3년간 미국 캘리포니아 캐멀과 팜스프링스에 삼보사와 금강선원을 세우는 등 해외포교에도 힘써왔다.

청화스님은 정 · 재계 인사 등 사회 지도층의 정신적 귀의처이기도 했다. 주식회사 부영 등 상당수 기업체들이 스님에게 자문을 구했었고, 전두환씨 등 정치인들이 스님의 가르침에 귀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스님은 보름 전쯤 상좌들과 법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금생에는 세연이 다했다"며 입적을 예견했다고 한다. 13일 공개된 스님의 유품은 평소의 검소함을 그대로 보여주듯 주장자와 가사, 안경, 벼루, 노트 등 10여 점이 전부였다. 특히, 노트에는 서양 철학자들의 이름과 중심사상이 빼곡히 정리돼 있어 보는 이들을 숙연케 했다.

이준엽 · 한명우 기자



◇청화 스님의 지난 3월 모습. 아래는 서양 철학자들의 이름과 사상을 정리한 노트.

사찰문화재 보수예산 지자체 이양 움직임

조계종, "현실무시" 예의 주시

"국고지원 안돼 문화재 보존 불능"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정비위원회가 전통사찰 주요시설물의 보수정비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조계종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방분권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벌였으나 '이양 불가' 견해가 우세함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조계종은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안도할 수 없다며, 이양의 불합리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조계종이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 전통사찰과 문화재 보존 예산이 지방에 이양될 경우 사실상 '보존 불가능'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비는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편성돼 왔으며 이 예산(국고)이 지방자치단체로 분배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사찰 자부담이 합쳐져 전통사찰과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이 예산이 지방에 이양될 경우 국고지원은 없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 지자체 예산과 사찰 자부담만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결국 불교계는 지자체의 입만 쳐다보는 상황이 오게 되고,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전통사찰 보존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조계종이 '이양'을 우려하는 이유는 또 있다. 전통사찰의 보수정비는 문화재 업무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업무수준은 상식선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통사찰 보수 사업을 문화정책이 아닌 '특정 종교와 종파에 대한 특혜'로 왜곡할 우려도 크다. 또 지자체의 관심도에 따른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대한 지역별 불균형도 초래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경우에 따라 특정 지역의 전통사찰은 '방치'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문화재 보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도 불교계의 이 같은 입장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문광부의 한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화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자체 이양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불교TV, 사옥문제로 난항 거듭

현사옥 건물주 90억 상당 매물로 내놔

자금 확보 어려운데다 노사 의견 달라

불교TV가 사옥 이전 등의 문제와 관련, 또다시 어려움에 봉착했다.

지난 11월 11일 열린 제 47회 불교TV 이사회에서는 사옥이전과 대표이사 선임 등의 안건이 논의 됐지만, 합일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불교TV의 서울 봉천동 사옥은 현재 건물주(김용희)에 의해 90억원 상당의 매물로 나온 상태. 이에 건물주가 바뀌게 되면 불교TV도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 지난 10월 열렸던 제 45회 이사회에서 서교동 구 다솜방송 건물 매입을 위한 기채를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11일 이사회에서는 불교TV의 부채로 인해 사실상 건물 구입을 위한 자금 확보가 어렵고, 외부감사인 손기원 씨의 이사회 참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옥 매입이 잠정 보류됐다.

이와 관련, 회사 측과 노조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회사 측은 "매월 1천만 원 이상의 관리비와 수천만원대의 임대료를 고려한다면 이번 기회에 불교TV의 사옥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현재 사옥매입 문제는 경영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옥이전 시 발생되는 경제적 이익도 불분명한 만큼 충분히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문경영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이사 추천의 건 또한 정관상 이사회에서 '이사후보자의 주식 증자 결의'가 이뤄져야 함에 따라, 다음 이사회로 연기됐다. 새로운 이사 후보로 추천된 인물은 태성바인택 대표이사인 김재복 씨(50)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영자협의회 인쇄분과위원장,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한바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 후 열릴 예정이었던 '사단법인 불교TV 무상사 발기인 대회'는 참석자 부족으로 종료됐다. 또 지난 5월에 개원했던 불교TV 문화원은 재정난에 따라 10월 31일자로 문을 닫고, 폐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 불교TV 운영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재단법인 한국불교 법륜종

봉 축

제 7대 총무원장 덕산당 창법 종사 취임대법회

계수합장하옵고
무한광명이 걸림없이 법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불과 빛이 둘이 아니요
파도와 물이 둘이 아니며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고 하였듯이,
가고 옴도 본래 없지만
본종 제 7대 총무원장 덕산당 창법 종사 취임 법회를 교계 원로 대덕스님을 모신 가운데 사부대중이 뜻을 모아 봉행하고져 하오니 공사다망 하신 중 바쁘시더라도 부디 법연의 자리에 동참하시어 법좌를 빛내주시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 일 시 : 불기 2547년 11월 25일 화요일 (음력 11월 2일) 오전 11시
● 장 소 : 지장암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화곡리 44-7 ☎ 041)734-5377 ~ 8

● 증 명 : 금암대종사, 정각대종사, 혜우대종사, 혜안대종사, 벽송대종사
● 고 문 : 법선, 탄공, 혜명, 영암, 백운, 송정, 혜능, 월산
● 자문위원 : 혜봉, 허주, 승도, 법천, 명진, 회광, 근원, 월운, 도승, 성학, 창교, 도명, 도원, 성타, 원봉, 승덕
● 봉행위원장 : 고산
● 집행위원장 : 보명
● 집행위원 : 도명, 지엄, 해송, 도혜, 우호, 현오, 자명, 금륜, 선문, 삼혜, 지광, 지현, 법일, 도일
● 봉행위원 : 일정, 영공, 법성, 혜청, 성진, 성련, 법정, 혜천, 보덕, 해덕, 선덕, 월산, 도담, 일광, 보광, 도진, 담연, 지담, 광진, 도원, 의정, 월파, 향덕, 홍구, 혜능, 무등, 지각, 무진, 혜명, 수덕, 법장, 심진, 영봉, 청호, 벽담, 성문, 도인, 홍인, 보선, 자오, 성오, 무학, 자오, 지오, 혜일, 성진, 지감, 혜문, 혜천, 보해, 명안, 혜진, 법흥, 봉안, 무애, 도광, 혜각, 법상, 능허, 월운, 법지, 법해, 원일, 원정, 법달, 선혜, 법성, 혜성, 지월, 도은, 심연, 수현, 성초, 법안, 정오, 서광, 해월, 정현, 혜진, 법정, 덕명, 경엄, 현장, 월명, 월아, 해송, 영석, 법광, 혜인, 덕운, 상원, 진종, 탄공, 명관, 벽파, 만종, 정덕, 자성, 선종, 법정, 지효, 혜수, 대연, 혜송, 오현, 혜인, 성우, 금허, 도명, 정하, 만성, 혜청, 천인, 도은, 혜명, 연오, 도신, 무애, 보명, 도행, 린각, 고원, 진원, 진허, 삼월, 명오, 법현, 보성, 광명, 자은, 지우, 법성, 정원, 지윤, 형관, 용운, 진오, 성원, 지원, 명오, 선견, 법원, 선광, 광운, 지원, 선태, 도림, 의선, 만종, 지광, 묘성, 정원, 보인, 지현, 수령, 정일, 수만, 수정, 현진, 지명, 혜산, 성후, 진성, 자성, 대원, 도성, 도일, 해일, 각원, 진흥, 유각, 명각, 도공, 지명, 법정, 심각, 승일, 각일, 회일, 도은, 도명, 일원, 진원, 혜덕, 상정, 진여, 도원, 지광, 진원, 도경, 혜명, 관음행, 대덕화, 법성, 법현, 혜련, 자비행, 미타원, 보화, 보현행, 진각화, 연화심, 양연옥, 대지화, 무량화, 세안심, 월진, 묘화, 석암, 문수행, 대광, 불법화, 심봉화, 묘법, 여현, 연화, 보광월, 대덕화, 보광심, 관음행, 대덕화, 지현 (무순)

불기 2547년 11월 18일

재단법인 한국불교 법륜종 제 7대 총무원장 취임 봉행위원회
봉행위원장 고산 합장



생명나눔실천본부 워크숍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법장 스님은 11월 29~30일 포천 산정호수 명성연수원에서 '자원봉사자 중간 관리자를 위한 워크숍'을 연다.

일주문



북한동포돕기 후원금 기탁

금강경독송회 대표 김재웅 법사는 최근 북한동포돕기 후원금 500백만원을 사단법인 좋은벗들에 기탁했다.



고3 수험생 대상 수련회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 원택 스님은 11월 18~20일 낙산유스호텔에서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수련회를 개최한다.



인제인성대상 수상자로 선정

남원 실상사 주지 도법 스님은 11월 13일 인제대학교 인제인성대상운영위원회가 시상하는 제5회 인제인성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IT활용 정보검색 경진대회

경남 밀양 홍제중학교 배종우 교장은 11월 15~16일 재학생 및 인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IT활용 정보검색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 · 중앙위원회 개최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은 12월 3일 조계사 불교대학 제1강의실에서 제3차 정기총회 겸 중앙위원회를 개최한다.



전국어린이 지도자 연수회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 정여 스님은 11월 15~16일 경주 동양유스호텔에서 제36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했다.



창립21주년 기념법회 봉행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동산불교대학 법당에서 창립 2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청담 스님 32주기 추모법회

서울 삼각산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11월 15일 도선사 대법당에서 청담 스님 32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장에

서울대학교 박세일 교수는 11월 1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한국불교어문학회장에

동국대 김승호 국어교육학과 교수는 최근 동국대 다향관에서 열린 한국불교어문학회 제13차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불교학 연구' 임기내 등재학술지로

불교학 연구회 3대 회장 이중표 교수



"'불교학연구'가 임기내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로 정식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월 8일 불교학연구회 2003년 추계학술발표대회가 끝난 후 열린 임시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선출된 이중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사진)는 신임 회장으로서의 포부를 이 같이 밝혔다.

연구진 육성 · 학술지 연 4회 발간 추진

이 교수는 특히 "'불교학연구'가 학진의 등재후보학술지에 선정되면서 연구회 회원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고무됐다"며 "지금의 열기가 식지 않고, 지속적인 연구결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회장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그간 해주 스님이 닦아 놓은 기반 위에서 불교학 연구진을 육성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현재와 같이 매달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연 2회 발간하는 학술지를 4회 발간할 예정"이라며 향후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부회장에 정신문화연구원 이종철, 동국대 김복순 교수를 감사에 충남대 이평래, 동국대 김무봉 교수를 선출했다. 이들의 임기는 2004년 4월부터 2006년 4월까지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불교음악 레벨업 계기 됐으면…"

교성곡 '상월원각대조사' 작곡 이상규 교수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일대기를 음악으로 옮기면서 불교음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품을 썼습니다."

지난 11월 8일 KBS 공개홀에서 열린 제8회 천태예술제에서 처음 공연된 교성곡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를 작곡한 이상규 한양대 국악과 교수(60 · 사진)는 위상이 낮고 보급이 잘 되지 않은 불교음악의 현주소를 걱정했다. 아울러 불교음악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의 책임을 묻기보다 종단을 초월해 불자 모두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시간 분량의 교성곡 '상월원각 대조사'는 총 15장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상월원각 대조사의 탄생에서부터 열반까지의 일대기와 사상, 업적을 총망라했다. 대본과 작사는 박제천, 송정란 시인의 도움을 받았다.

이 교수는 "이번 작품의 특징은 각 장의 도입부에 나레이션을 삽입함으로써 관객들의 이해와 감흥을 도왔다"며 "이 같은 시도가 1700여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이끌어 내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일대기를 음악으로 대하는 느낌은 이야기로 대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감상을 불러 일으킨다"며 "공연을 지휘하면서 환희심을 느껴 하염없이 눈물이 흘렸다"고 고백했다.

60년대부터 작곡을 해 온 이 교수는 90년부터 천태종과 인연을 맺어 왔다. 격년제로 열리는 합창제와 예술제를 지휘해 왔고, 2001년에는 '대각국사 의천' 교성곡을 직접 지휘한 경험을 갖고 있다. 또 삼보불교음악협회 부이사장으로 오랜 불교음악 보급활동을 펼쳐오기도 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위안부 할머니 아픔' 미국에 알릴 것"

나눔의 집 방문 재미교포 2세 권보미 씨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과 한을 미국인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11월 8일 미국인 동료 교사 25명과 함께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원장 원행)을 방문한 재미교포 2세 권보미 씨(21 · 사진 · 대전 갈마중 원어민교사)는 "인권을 부르짖는 미국인들조차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씨가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미국 브라운대학교 한인학생회 활동을 통해 나눔의 집 이옥선 할머니와 인연을 맺으면서부터다. "어릴 때 어머니에게 위안부 할머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서 당시 이야기를 들으니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나눔의 집 방문도 권 씨가 동료 교사들에게 나눔의 집 소개함으로써 이뤄졌다. 권 씨는 나눔의 집 방문 느낌을 이렇게 털어놨다. "충격 그 자체였죠. 할머니들의 증언에 동료 교사들 모두 놀라움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대학에서 여성학과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권 씨는 한국 여성들의 사고방식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도 토로했다.

권 씨는 또 "교과과정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다루고 있지 않아 많은 미국 학생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미국도 교과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뤄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동혁 기자 tonylee7@buddhapia.com

"詩 통해 더 쉽게 전법하는데 앞장"

불교시로 등단한 양봉모 광주불교방송 보도부장



"부처님 찬탄하는 노래로 상을 받고 문단에 등단하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최근 월간 '한국시' 11호에 시 3편을 출품해 당선의 영예를 안은 양봉모(41 · 사진) 광주불교방송 보도부장은 "불교시인으로서 시를 통해 부처님 말씀을 좀더 쉽게 전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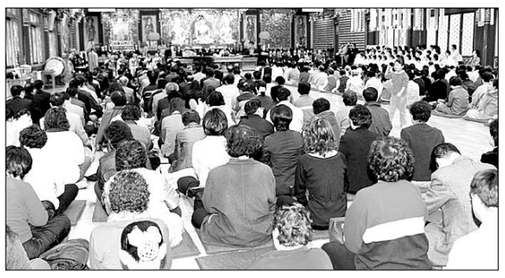
이번에 당선된 양 부장의 시는 광주 원효사를 찾는 '절로가는 길'과 '무각사' '운주사 와불님' 등 호남지역 사찰을 소재로 불교 이미지를 시어로 나타내 심사위원들로부터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불심을 엮어내는 시적 태도가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학창시절부터 시를 써온 양 부장은 바쁜 직장생활에도 사찰참배를 통해 신심을 쌓으면서 생활 속에 잔잔한 이야기를 시로 써 93년 결혼 때 아내를 위한 '작은 꽃잎 하나에 사랑이 벙글고'를 출간한바 있다.

양 부장은 관음사 학생회를 거쳐 광주불교방송 개국과 함께 줄곧 지역불교와 언론을 선도하고 있다. 이준엽 기자

천태종 분당 대광사(주지 운덕)는 창건 2주년을 맞아 11월 9일 국태민안 국민화합 대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수도권 신도시 분당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처로서의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광사 창건 2주년 기념대법회



불교언론인회 추계연수회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공종원)는 지난 11월 8~9일 양일간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추계연수회를 가졌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선암사 주지 지허 스님, 전 · 현직 불자 언론인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회는 선암사 참배, 간담회, 자생차밭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금번 범어사 주지 선출의 역사적 정당성과 종헌종법상 합법적임을 천명한다.

• 본 범어사는 일제시대 동산노사께서 당대의 거승이며 범어사 중창주인 오성월 대선사로부터 범어사 법통과 승풍유지의 부촉을 받은 이래

• 범어사 조실과 계단의 전계화상으로 수많은 선방학인을 차별없이 재접하고 신도들을 교화하며 은법제자들을 양성하면서 자연스럽게 범어사 문도가 형성되었다.

• 동산노사의 수행력과 대중에 대한 감화력으로 1954년 종단 정화불사 당시에 전국 비구승단의 어른으로 모셔져서 정화불사를 이끌어 마무리 하시고 이후 종정으로 추대되시었다.

• 종단 정화불사 전과정을 통하여 동산노사의 제자와 법손들은 노사의 가르침에 따라 정화불사에 음양으로 진력하였고 따라서 승려로서의 수행본분과 사명감을 더욱 깊이 깨우쳐 승풍진작에 매진하게 되었다.

• 1965년 3월 동산노사께서 입적이래 지금까지 근 40년간 범어사 주지는 노사의 1세 제자들이 주로 담임하였다.

• 수십년 전부터 노사의 2세, 3세 법손들 중에 주지 자격을 갖춘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누구도 주지 경쟁을 하지 아니하였고 현재는 노사의 4세 법손중에도 주지자격이 있으나 주지경쟁에 나서지 아니하고 있다.
이는 본사에 대한 애정이나 불사원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동산노사께서 세우신 바 화합승가의 질서유지가 그 어떠한 불사보다도 우선하다고 믿고 화합승가의 질서를 깨뜨리지 아니하고 유지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 2003년 10월 8일 문중회의에서 동산노사의 1세 제자 스님들이 용단을 내려 문중안에서 세대교체를 이루기로 하고 그러나 범어사 승가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동산노사 장자문도(성운지효)의 대표인 홍선스님을 차기 범어사 주지로 정하였고 이에 문도 대중의 뜻이 모아져서 10월 26일 단일 후보로 홍선스님이 등록하게 되었다.

• 그리고 2003년 11월 3일 산중총회에 동산노사의 1세 제자스님들을 비롯, 재적과 반수가 참석하여 원만하게 홍선스님을 차기 범어사 주지로 선출하였다.

• 이와같이 금번 범어사 주지 선출은 범어사 문도의 총의와, 범어사 승가의 전통과, 범어사 산중의 총의에 의하여, 그리고 종헌종법의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선출된 것이다.

• 본 범어사는 이와같이 금번 범어사 주지 선출의 역사적 정당성과 종헌종법상의 합법성을 천명하며 이에 반하는 여하한 왜곡과 억설, 그리고 사사로운 주장에 흔들림없이 범어사 주지 선출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관철할 것임을 사부대중께 밝히는 바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종무소

“형아! 오늘 철새보고 선운사도 간다”

장애아들 세상나들이 하는 날

영산강변 철새 비상모습에 눈망울 고정

“비도오고 바빴지만 우주여행 다녀온 기분”

“형아. 형아~” “우리 오늘 철새보로 간다. 선생님이 그랬어. 영화두 보고 선운사도 가고 그런다고….” 12일 아침, 아이들의 들뜬 목소리가 성세재활학교를 가득 채웠다.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대전지부(소장 종실)와 대전 · 충남장애인재활협회가 장애아들의 사회적응력과 재활의지를 높여주기 위해 마련한 ‘장애인 세상 나들이’. 아이들의 재잘거림에 대전대학교와 한빛고등학교에서 나온 4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환한 미소로 화답하기에 바빴다.

“우리 친구들은 몸이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도록 도와주세요.”

80여명의 참가자들은 종실스님의 당부의 가슴에 세기며 첫 행선지를 향해 출발했다. 3시간여 만에 도착한 영산강 하구.

“철새가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연구실 백운기 박사의 외침에 아이들은 힘껏 소리지르며 언덕 위로 올라왔다. 자신들의 등치만한 휠체어를 힘들게 이끌고.

“와~ 새가 일렬로 쭉 앉아있다.” 처음 보는 광경이 신기하기만 한 김민봉(성세재활학교 1학년) 학생은 옆에 앉아있는 강동휘(성세재활학교 1학년)학생을 쿡쿡 찌른다. “정말이네. 나 이거 텔레비전에서는 봤는데 실제로는 처음 본다. 나도 날고 싶어.” 점점 거세지는 비바람에 철새의 비상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아이들은 한참동안 손에서 망원경을 놓지 못했다. ‘언젠가는 날겠지.’하는 간절한 소망이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겨울철새 탐사뿐 아니라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견학, 영화관람, 고창 선운사 탐방 등 1박 2일간의 빠듯한 일정을 모두 마친 아이들은 전보다 한결 밝아진 모습으로 희망을 얘기하고 있었다.

“우주여행을 다녀온 기분이에요.(웃음) 어제 본 배 있잖아요. 저 그 배를 모는 선장이 되고 싶어.” 정여울(성세재활학교 1학년)

“저는 멋진 영화배우가 될래요.” 이수경(성세재활학교 3학년)

머리 속 상상의 세계가 아닌 직접 눈으로 보고 접한 세상. 아이들은 그 모습을 꿈으로 미래로 되새기며 나들이를 마무리했다.



◇영산강 하구에서 겨울 철새를 바라보고 있는 장애아들. 비바람이 몰아치는 악천우 속에서도 아이들은 ‘희망’을 얘기하며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몸이 불편하고 말투가 어눌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장애아들을 과소평가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고의 세계가 넓고 깊은데도 말이죠.” 김미진(대전대 02학번)

“계속 돕고 싶어요. 휠체어를 들고 아이들을 안고, 제 몸은 지금 이 순간만 힘들지만 이 아이들은 평생 이보다 더 힘들어할 테니까요.” 이웅희(한빛고 3학년)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날아올라 자유의 숨을 내쉬고픈 아이들. ‘장애인’이라는 새장 안에 갇혀 발 한발자국 내딛기조차 힘들었던 아이들의 작은 외침이 봉사자들의 가슴뿐 아니라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우리 함께 살아요.”

목포=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자비의 헌혈증서 모으기

생명나눔본부, 동국대서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는 11월 12일 동국대학교에서 ‘자비의 헌혈증 모으기’ 행사를 열었다. 동국대 100주년 D-900 기념 행사와 함께 열린 이날 행사에는 동국대 교수, 교직원, 재학생 등 2백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모아진 헌혈증은 백혈병과 소아암으로 투병 중인 어린 생명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02)734-8050 이동혁 기자

붓다클럽 창립다짐대회

시도별로 조직, 활동확대

불교를 생활화하기 위한 재가불자들의 모임 붓다클럽(총재 안동일)이 11월 13일 동산불교회관에서 창립다짐대회를 갖고 임원을 선출했다.

이날 붓다클럽은 △매일 부처님 전에 108배 △매일 천번 이상 염불(참선) △매일 이웃에게 포교 △매월 정기적인 사회봉사활동 △매월 일정액 보시 등 ‘5대 실천덕목’을 공표하고 개인별 수행기록집을 지급했다.

붓다클럽은 향후 시도별 지역조직을 구성해 활동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붓다클럽이 창립다짐대회에서 불교생활화를 위한 ‘5대 실천덕목’을 공표하고 실질적 활동에 들어갔다.



◇화성 신흥사에서 열린 제2차 불교환경 워크숍 모습.

‘불교환경의제 21’ 수립 추진

한국불교정통성의 재발견 사업

이병인 교수 주장

“불교환경의제21을 수립해 환경을 보존한다는 것은 한국불교가 가지고 있는 정통성과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 시대에 드러내는 것이다.”

이병인 교수(국립밀양대 환경공학과)는 11월 14~15 화성 신흥사에서 열린 2차 불교환경 워크숍에서 ‘불교환경의제21 수립의 필요성과 중요성’ 주제 발표에서 이 같이 밝히며 “불교환경의제21의 수립은 내부적으로는 이 시대의 복합유산은 불교의 자산을 지켜가는 길이며, 또한 1700여년간 유지해 온 불교계의 친환경적 가르침과 생활양식의 전통계승 및 확장(현대적 포교로서의 시대적 구현)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 동안 추진되어온 불교환경의제21의 문제점과 과제를 평가하며 본말사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과 포교와 교육사업의 연대 및 문화와 사회복지사업의 연계를 통한 실행력과 자생력 육성 등을 주장했다. 남동우 기자

청담복지관 자비관 준공

노인보호센터등 갖춰

청담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혜성)이 11월 13일 ‘자비관’ 신축 준공식을 갖고 지역사회 복지사업 증진에 나섰다. 준공식은 청담 스님과 혜명복지원 설립자 김기용 보살의 흥상 제막식이 함께 거행됐다.

관장 혜성 스님은 “부처님 자비의 마음으로 1995년 문을 연 청담복지관이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 온 것이 8년째”라며 “앞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발전된 모습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관인 정진관 옆에 총 450여 평 규모로 건축된 자비관은 노인주간보호센터, 치매노인단기보호센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동혁 기자

원각사 10층석탑·팔각정 경관저해

탑골공원 주변 오피스텔 행정소송

원각사, 종로구청에

서울 원각사(주지 보리)측이 종로구청을 상대로 10월 27일 탑골공원 주변 오피스텔 건축공사와 관련해 건축허가변경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리 스님은 소장에서 “종로구청이 현재 공사 중인 오피스텔의 설계변경을 2002년 12월 허가해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를 위반한 높이로 공사가 진행됐다”며 “그 결과 국보2호 원각사지10층 석탑과 팔각정의 동쪽 경관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2년 7월 15일 정해진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14조의 2 별표 1에 따르면 문화재 주변 건물의 높이는 ‘보호구역의 경계에서 문화재 높이+앙각(올려본각) 27도 높이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탑골공원의 공식문화재 높이 12m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건물높이는 약 16m를 넘어설 수 없으나, 현재 오피스텔의 높이는 20m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가 보호구역의 경계가 아닌 사적의 경계(약 7m의 거리 차이가 남)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서울시 문화재 관계자는 “2002년 7월 조례 제정이전에 건축허가가 난 건물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도 그 이전 법에 따른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오유진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 택시
1588-5532

목탁소리

참을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권형진 (취재1부 기자)

조계종 정기 중앙종회가 열린 조계사 문화교육관 앞에 11월 11일 시위대(?)가 등장했다. ‘조계종립’ 동국대 사회학과 학생이라고 밝힌 학생들이 ‘K교수 성추행 사건’의 해결 촉구를 위해 나선 것이다.

K교수는 2000년 여자 제자를 성추행했고, 학교는 해임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상급기관인 교육부의 ‘1개월 정직’ 명령에 따라 K교수는 복직했다. 학생들은 수업 거부로 맞섰고, K교수의 수업을 듣지 않기 위해 졸업을 늦추는 사회학과 학생이 나올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현재 그는 다른 과 학생 6명(4명 이상이면 수업 가능)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의 분노는 K교수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피해학생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고 그 학생을 돕던 동료 교수마저 고소한 ‘뻔뻔함’에 모아지는 듯하다. 그리고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교수를 해임할 수 없는 현 교육제도에 대한 격분이다.

학교도 이 과정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당장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 역시 마땅치 않아 보인다. 그래도 개운치 않은 뒷맛은 여전하다. 종교계 재단인 서강대가 비슷한 사건을 겪은 이후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시스템을 하나씩 마련해 가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다른 사람의 존엄에 상처를 입힐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건강도지키는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물에도 최고!
합격필통을 증정합니다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 힘으로 건강을
금강염주를 방이나 거실에 걸어놓으면 금강의 강한 기와 93%의 생육광선, 음이온등이 발산되어 현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OA사무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단하며 도심의 좋지 않은 공기 환경속에서 건강이 약해지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건강을 도와드립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며 피로회복, 신경안정, 스트레스해소, 혈액순환 등에 효과 있는 세계유일의 금강염주입니다. 밝은 지혜와 금강의 강한 氣가 발산하는 금강염주는 기도 정진시 일념무아 하면 부처님 가피로 고시준비나 어려운 일이 있으신분은 뜻을 이룰수 있는 신비의 금강염주입니다.
2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며 세계 유일의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점안식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연분을 찾고 계신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투병중인 분
❖구직을 원하시는 분
❖고시준비 하시는 분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 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 됩니다
철심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니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님께 주문 판매 합니다.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12단주와 108염주 1set 가격 195,000원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 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

핫~이슈! 세계최초 24시간 대화하는 영어선생
영어로 말하는 로봇
뉴 ~ 지니컴
스님, 불자님 영어회화 이제 걱정 끝!
스님, 불자님께서 영어를 배우고자 해도 지리적, 환경적, 시간적, 여건등으로 영어를 배우기란 참으로 어렵다. 또한 학원에서는 직접 말해볼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외국인들은 우리 불교문화를 보고 배우려고 몰려오고 있으며 국제 공용어인 영어는 사찰내 스님은 물론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필수어다. 위더스에서는 영어로 말하는 로봇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음성 인식 기술을 응용한 말하는 영어로봇의 인기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영어는 영어로 대화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빠르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사찰에서 할 수 있는 학습법이라고는 거의 듣기위주 혹은 듣고 그대로 따라하기 위주의 CD, 테이프 등 모든 것을 동원 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만다. 가장 중요한 “말하기”를 하지 못하면서 반쪽 공부에 만족해야 했는데 영어로봇 뉴지니컴의 보급으로 1:1쌍방향 대화 학습이 가능해졌다. 영어 학습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청취력” 훈련이다. 청취력을 위해서 라도 가장 중요한 영어학습 법으로 로봇 뉴지니컴이 영어로 한마디 하면 스님께서 영어로 대답해야 하고 스님께서

한번 말하는 영어가 백번 듣는 영어보다 낫다 !
로봇이 사찰에서 스님과 대화하는
뉴 지니컴
발음이 틀리고 화법이 틀리면 뉴지니컴은 말을 안 하든가 수정해준다. 영어에 기초가 전혀 없어도 뉴지니컴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칩만 바꾸면 누구라도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귀부터 트이지 않고는 어떤 단어나 문장을 들어도 자기만의 데이터로 전환시키지 못한다. 영어로 대화하는 로봇 이름이 뉴지니컴으로 뉴지니컴은 스님께서 1:1로 재미있게 영어로 대화 할 수 있는 미국 친구와 같다. 영어로 말하는 뉴지니컴은 전면에 LCD창을 통해 에니메이션 동영상 영어 한글자막을 자세히 보여줘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도우며 언어 감각과 함께 문자 감각까지 동시에 키울 수 있다. 사찰에 하나만 있으면 모든 스님께서 재미있게 영어를 마스터 할 수 있다. 이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의 출시로 누구나 3개월이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 할 것이다. 신청하면 전국 어디든 받으실 수 있으며 카드분할도 할 수 있다.
몸체 전면에 설치된 LCD창을 통해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 / 한글 자막을 자세히 보여주어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돕는다.
LCD형 영어로봇 ‘지니컴’
학습 문의 전화 (02)3210~3178,9

"주말 불심을 잡아라!"

주5일제 겨냥 진각·총지종 연구위 구성

진각종 지방교구청 강화…산내연수원 개방

총지종 괴산수련원 활용 주말가족법회 검토

'우리도 주말 가족수련회를 열어 볼까?'

도심에 있는 사찰(심인당)들이 대부분인 진각종과 총지종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주5일제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주5일 근무제가 불교계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들 종단은 자성일(자기의 성품을 닦아 밝히는 날이라는 뜻으로 한 주의 첫 날인 일요일을 지칭한다) 법회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고민도 그만큼 심각하다. 이에 따라 진각종과 총지종은 주5일 근무제가 가져올 생활패턴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교화방안 연구에 고심하고 있는 것.

진각종의 경우 기존의 자성일 법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요일 법회와 토요일 오후법회를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거친 바 있다. 그러나 실효성 면에서 떨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 진각종은 통리원 포교부와 비로자나청소년협회, 전국청년회 등 포교 관련 책임자와 실무자들로 연구위원회를 최근 구성했다.

연구위는 내부적으로 포교시스템을 새롭게 갖추기 위한 연구는 물론, 교화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계층별 산하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등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포교프로그램 연구활동을 펼친다. 지방교구청 · 심인당 활동 강화, 주말프로그램 운용, 산내연수원 시설 개방 등 실현가능성이 있는 모든 방안을 놓고 연구와 검토작업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총지종은 기존의 교화발전연구위원회에 주5일 근무제에 따른 포교종책 개발 업무를 위임하고 법장원과 공동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도록 했다. 스승 10명과 종무원 2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교화발전연구위는 10월 22~24일 추기강공 기간 중 첫 모임을 열고 향후 활동과 포교방안을 논의한 결과, 자성일 외에 평일에 법회를 한번더 여는 방안과 괴산수련원을 활용한 주말 가족법회 개최 등의 일부 의견도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종단내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진각종과 총지종의 이같은 움직임에는 토~일요일 연휴를 즐기려는 문화가 보편화될 경우 종교생활이 등한시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또한 새로운 포교종책과 방안이 일선의 심인당이나 사원까지 적용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인식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진각종 포교부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로 인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종교생활의 패턴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종단 차원에서 착실하게 대비함으로써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화프로그램 연구와 종책 개발에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태고 비구니회 임시총회

12월3일 회장단 선출

태고종 전국비구니회는 12월 3일 오후 2시 서울 봉원사에서 차기 회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총회는 회장 운정스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회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비구니회 활성화 방안 등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운정스님은 "현재 종단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조직으로서의 산하단체의 활성화를 통한 개혁불사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비구니회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이번 총회는 비구니회를 이끌어갈 회장단을 선출하는 자리가 될 뿐 아니라 비구니회의 활성화 방안과 향후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회의인 만큼 더없이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화종, 19일 중앙종회

총화종 중앙종회(의장 화담)은 11월 19일 오전 11시 남양주 수진사 총무원 회의실에서 제53차 정기중앙종회를 개최한다. 이번 종회에서는 2003년 사업 및 결산 보고, 200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종단 의식법전 보급의 건, 종단발전을 위한 종책 선정 등의 안건이 다뤄진다. (031)592-8891~2

천태종 대북사업 협력자로

통일부 승인, 사회문화분야 교류 숨워져

천태종이 통일부로부터 개성 영통사 복원 불사 및 관련 부대 행사를 위한 대북교류 협력사업자로 승인받았다. 통일부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천태종을 협력사업 및 협력사업자로 동시에 승인, 11월 4일 증(승인번호 2003-14호)을 교부했다.

이에 따라 천태종은 북한과 영통사 복원은 물론 관련 부대행사에 관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향후 영통사 인근지역의 불교유적 발굴과 문화재 복원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가 용이해졌다.

천태종 관계자는 "앞으로 북한과의 사회문화 분야 교류 협력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46만장에 달하는 영통사 복원을 위한 '통일기와'가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향후 추가적인 교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진각종 보살십선계 수계관정

진각종은 11월 10일과 11일 서울 탑주심인당과 대구 희락심인당에서 삼매야계단 보살십선계 수계관정불사를 봉행했다. 입문한 지 1년이 경과된 진언행자(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불사는 지광 대종사를 전계아사리로, 일정 대종사를 갈마아사리로, 성초 종사를 교수아사리로 진행됐다. 이날 불사에 참가한 진언행자들은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라' 등 10가지 계를 받았다.



前 관음종 종정 혜웅스님 3주기 추모

관음종 제5세 종정 혜웅스님의 열반 3주기 추모다례가 11월 7일 주석처였던 천안 보열사에서 열렸다. 추모다례는 종정 죽산스님의 법어, 총무원장 홍파스님의 추모사, 천안사암연합회 회장 대원스님의 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혜웅큰스님의 유업을 받들어 후학들은 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해 원력을 모아 나가자"고 추모했다.

감동의 신행체험수기 공모

●주제: 일상속의 신행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당선작 발표: 2004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문의 전화: (02)722-4162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접수 마감: 12월 13일

200자 원고지 30매…12월 13일 마감

●시상내역

■ 대상(유마상)
■ 우수상(본사 사장상)
■ 특별상
△종단협의회장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관음종 총무원장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응모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연락처를 필히 기재해 주십시오)

현대불교신문사



◇11월8일 열린 창작교성곡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 공연모습.

제8회 천태예술제 성황

교성곡 '상월원각대조사' 초연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의 생애와 사상, 업적을 조명한 제8회 천태예술제가 11월 8일 KBS 공개홀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은 천태종 전통범패보존연구회의 불교의식을 시작으로 제1장 '천태종의 창건과 유래', 제2장 상월원각 대조사의 신이한 탄생 등 15장으로 진행됐다. 430여명의 천태종 연합합창단과 중창단 엘엠비 싱어스(L.M.B. Singers)의 웅장하고 화려한 화음과 KBS 국악관현악단의 반주는 1700여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교성곡 '상월원각 대조사'는 한양대 이상규 국악과 교수가 작곡한 곡으로 이날 처음으로 선보였다. 관련기사 4면

게 시 판

행사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11월 17~12월 22일 매주 월요일 오전 10~오후 2시 복지관에서 간병책임자 역할 습득을 위한 간병교육을 실시한다. 노인의 특성이해, 의사소통기술, 간병기술, 간병자의 심성수련 등 교육. 선착순 30명 마감. 수강료 3만원. (02)571-2988

▲진각복지재단은 11월 22~23일 강원도 횡성 현대 성우 유스호스텔에서 2003 진각복지재단 산하 시설 직원연수를 실시한다. (02)942-0144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11월 28일 오후 1~3시 복지관에서 무료 청력검사 및 보청기 수리를 실시한다. (02)804-4058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11월 28일 오전 10~11시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실버장수기공 기체조 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는 기경락연구소 김창수 소장의 강의로 진행된다. (02)385-1351

모집 ▲연꽃마을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는 경로식당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활동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11~오후 1시30분 주1회 택일이 가능하다. 봉사영역은 배식보조 및 설거지, 청소. 신청방법은 전화 또는 내방상담. (02)365-3677

▲부산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 정보화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업일시는 매주 월~금요일 오전 12~오후 6시. 준비서류는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수첩이며 장애인 가족은 주민등록등본. 수업료 무료. (051)264-9033

구인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직장체험연수생을 채용한다. 연수생은 교육복지, 지역복지, 주간보호, 단기보호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모집인원은 5명. 지원자격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이다. 마감은 충원시까지. (02)466-6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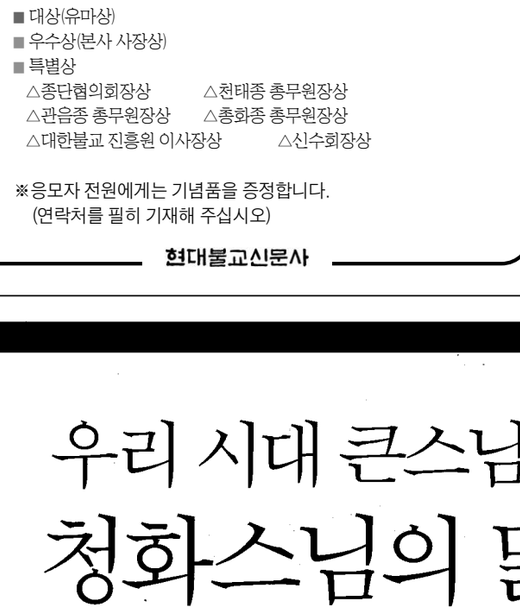
▲인천 영산정사는 피아노 교사를 채용한다. 피아노 연주와 합창단 지휘 능력이 있을 것을 요하며 모집인원은 1명. 마감은 채용시까지. (032)873-1059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와 회계담당직원을 채용한다. 지원자격은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관 경력자,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소지자 및 졸업예정자이며 회계직원은 경력자. 준비서류는 입사지원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졸업(예정)증명서, 자격증 사본,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각1부. 마감 11월 22일. (051)628-6737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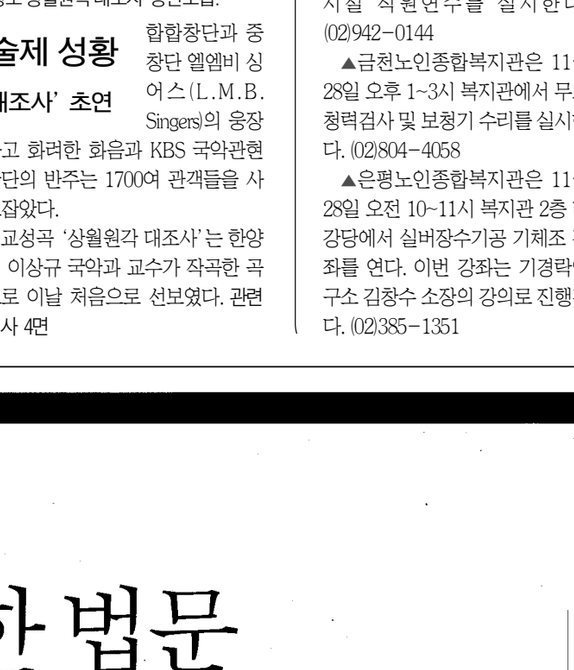
전화 588-0833 팩스 588-0835 www.sigongsa.com 시공사

우리 시대 큰스님,
청화스님의 맑고 깨끗한 법문



40년간 하루도 바닥에 등을 대고 눕지 않는
장좌불와(長坐不臥)의 수행,
하루 한 끼만의 식사,
그리고 철저한 계행(戒行)의 삶……
불교계의 큰어른 청화 스님이 전하는
행복한 마음 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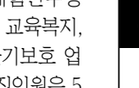
참선을 잘 하면 내가 없고 네가 없고 미운 사람, 좋은 사람도 없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날이 좋은 날이고 때때로 좋은 때입니다.
우리 마음은 나다, 너다, 좋다, 궂다, 시비를 다 떠나서 천지우주의 순수 에너지,
순수 정기인 부처님만 생각하는 것이 참선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화두를 드는 것이고, 염불도 그 자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늘 좋은 날 모두 좋은 사람" 중에서(4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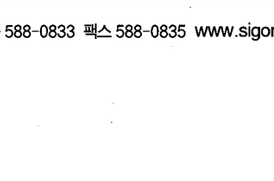
● 청화스님 말씀 | 신국판 | 269쪽(컬러 화보 포함) | 값 9,000원

청담스님의 딸, 성철스님의 제자인 묘엄스님 이야기

회색 고무신



낡은 걸망·하나, 기워 입은 옷 한 벌,
그리고 고무신 한 켤레가 가진 것의 전부였던 시절.
묘엄스님이 추억하는 이야기 속에는
맑은 가난을 즐기던 청빈한 수행자들의 삶이 가득합니다.



● 묘엄스님 구술, 윤청광 엮음 | 신국판 | 356쪽 | 값 9,000원

"성신여대 연극 정말 대단하지 않았어?" 유정현(서울여자간호대 03학번) 학생이 상기된 표정으로 묻는다.

"맞어. 불교의 사섭법을 어쩌면 그렇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표현했을까? 그렇지만 너희 팀의 수화공연도 멋있었어." 강영욱(한양대 03학번) 학생이 웃으며 맞장구를 친다.

힘찬 대불련 "함께 만들어 가요"

서울지부 문화제 15개 대학서 100여명 참가

제1회 대불련 서울지부 문화제가 열린 11월 8일 상명대학교 소강당. 천진한 동자의 모습을 담은 포스터 사이사이로 싱그러운 웃음소리가 새어나온다. 그 웃음소리의 주인공들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서울지부 소속 서울대 서강대 홍익대 중앙대 덕성여대 건국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15개 대학 100여명의 학생들.

"이번 문화제는 그 동안 지회 안에 머물러 있던 대불련 활동을 지부차원으로 연계·확장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입니다." 대불련 한승희 수석지도위원은 이같이 말하며 학생들의 문화공연을 돕기 위해 바쁘게 뛰어다녔다.

"와~" "어머어머~"

감탄이 연발해 나온다. 화려한 무대조명도 그럴싸한 의상도 갖춰지지는 못했지만 상관없다. 쑥스러워하는 친구들의 표정이 정겹고 실수해 당황하는 몸짓이 재미있기만 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승원(00학번) 학생의 창술과 중앙대 주정영(00학번) 학생의 검도시범은 여대생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고, 성신여대 학생들의 연극공연과 서울여자간호대 학생들의 수화공연은 모든 학생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다.

"자. 나눠드린 쪽지에 가장 잘한 팀을 적어주세요."

사회자인 강지혜 서울지부장의 말에 강당 안이 술렁인다.

"우리팀을 뽑을까?" "상품이 뭐래?"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모를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연이어 진행된 시상식. 우승인 자비상은 예상대로 불교의 사섭법을 흥미진진하게 엮어낸 성신여대팀에게 돌아갔다. 이밖에 서울지부 문화부에게는 특별상이, 중앙대 조정현 학생에게는 '나홀로상'이, 서울여자간호대팀에게는 '대단해요상'이 수여됐다.

"대불련 서울지부가 너무 부러워요. 오늘같은 자리가 다른 지부에도 빨리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김철우(인천대 99학번)

"16일 있을 창립제 준비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꼭 참가해 우승할겁니다.(웃음)" 이창현(건국대 03학번)

함께 모인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대불련 법우들. "함께 만드는 대불련이 됩시다." 그들의 마지막 외침은 대학불교 활성화를 간절히 염원하는 발원으로 메아리쳤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성신여대 학생들이 불교의 보시, 애어, 이행, 동사 등의 사섭법을 주제로 연극을 공연하고 있다.

사섭법 주제 연극 성신여대팀 우승

"이런 행사 다른 지부로 확산 됐으면…"

대불련 40년, 동문 찾기 캠페인 | 전북지부 동문회

공동주관: 대불련 총동문회·대불련·현대불교신문사

전북불교 이끄는 불퇴전의 청년불심

"완주군 위봉사를 아십니까? 지난 1972년 대불련 전북지부가 폐사 직전에서 구한 사찰입니다. 1973년에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수련도량으로 지정해 위봉사를 지켜냈지요."

대불련 전북지부가 1969년 창립 이후, 이 지역 불교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대불련 회원들은 구한말 33교구 본사 중 하나였던 위봉사를 살리기 위해, 교대로 돌아가며 무너진 가람을 지켰다. 이뿐만이 아니다. 1982년에는 전북 청년불교회를 결성, 전북불교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현재 전북불교계가 대불련 전북지부를 '불퇴전의 청년불자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대불련 전북지부 동문회원과 가족들이 올 9월 남원 실상사에서 순례법회를 봉행하고, 실상사 주지 도법 스님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문들 폐사 직전 위봉사 다시 일으켜

전북 불교대 설립 참여 교육의 장 열어

전북지부의 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987년에는 전북대 강건기 교수를 중심으로 재가불자 교육도량인 전북불교대학을 개교시켰다. 노종환, 최규갑, 전병영 등 전북지부 동문들이 대학 설립에 참여했고, 새로운 불교교육의 장을 열었다.

이 같은 전북지부의 노력은 2001년 출범한 전북대학생불교연합회 동문회에서 절정에 이른다. 뭉친 이유는 간단했다. 이제부터는 재학생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후원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전북지부 동문회 노종환 회장(전북대 67학번·전북관광협회 사무국장)은 "대불련 후배들이 살아야 한국불교가 살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 동문회를 결성했다"며 "전북지부의 전통과 역사를 잇고, 재학생 불교학생회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후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동문회는 이를 위해 대학별·학번별 이사를 선임하는 한편, 매년 동문회의 밤을 개최 대불련활성화 기금을 조성해오고 있다. 또 정기적인 성지순례와 수련회도 개최했다. 2002년 6월에는 전주 정혜사에서 철야정진 수련회를, 2003년 5월에는 무주 안국사에서 대불련 중흥을 위한 수련기도법회를 봉행했다.

동문회는 앞으로 체계적인 대불련 후원 기금 조성 차원에서 도입한 연회비 제도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배 동문을 중심으로 졸업생 취업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매년 열고 있는 동문회 밤을 선·후배들간 정보교류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자랑스런 동문들


◇노종환 동문


◇전병영 동문


◇한광수 동문


◇김성배 동문

노종환(전북대67학번·전북관광협회 사무국장), 최규갑(전북대67학번·광양산업 대표), 서경숙(간호67학번·전북대 병원 간호과장), 최이곤(전북대71학번·천지스톤 대표), 전병영(전북대73학번·원광보건대 교수), 소순근(전북74학번·안행골프장 대표), 홍수기(전북대75학번·ytn전북취재본부), 한광수(전북대75학번·우석대 교수 겸 전북불교대학 부학장), 백정구(전북대79학번·미래정보 대표), 조성후(전북대81학번·지원학원 원장), 김성배(전북대81학번·김제시의원), 서양숙(간호76학번·전북대학병원), 전경숙(간호77학번·신석보건진료소장), 김보은(간호69학번·원광대학병원 신경정신과) 등이 있다.

■ 대불련 후원회원 됩시다

불자학생들을 돕고, 대학생 포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자 및 동문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참여방법:** 일시 후원- 1구좌(1만원 이상) / 정기 후원- 월1구좌 자동이체

▶**문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02)732-0239, 739-0913

▶**계좌번호:** 국민은행 023-01-0565993, 농협 053-01-252868, 조흥은행 390-01-071917 (예금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 후원금 내신 분

▲현대불교신문사 서춘건, 이승철, 김춘호, 엄윤정, 선정호, 김정태, 김종열, 김학표, 이신정, 이혜영, 정진미, 홍영승, 조용, 김경숙 등 1구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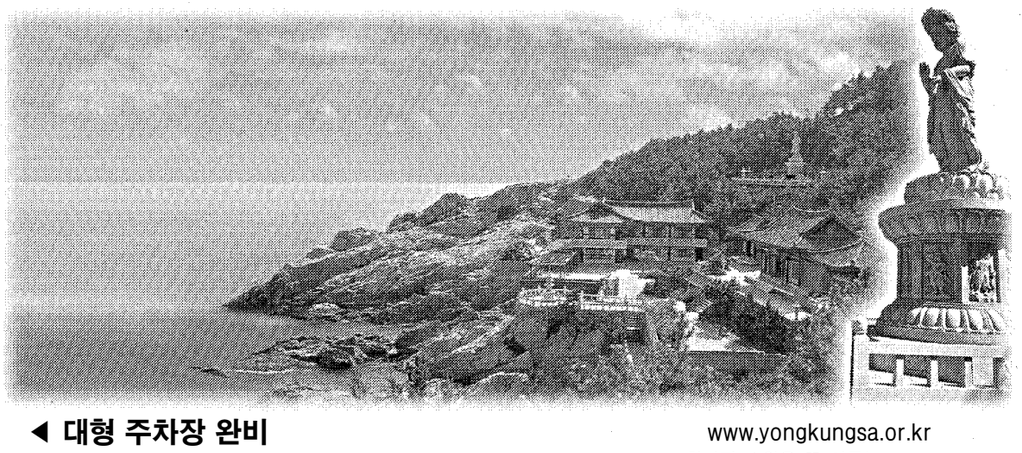
11월 13일 현재 총 2,843구좌

■ 총동문회로 연락주세요

밤을 지새우며 구도열정을 불태우고 전국을 누비며 수행현장을 찾았던 대불련 활동 당시의 소중한 법우나 소중한 가르침을 받았던 지도법사님. 세월의 간극을 넘어 그리운 동문과 은사를 찾고 싶으신 분은 간단한 사연과 연락처를 담아 본지나 대불련 총동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사연 중 채택된 원고는 본지에 소개될 예정이며, 본지와 총동문회가 갖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동원해 그리운 동문과 은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www.buddhanews.com
대불련 총동문회
www.daebul.or.kr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아바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 396-2736 · HP 016) 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학월 경산대종사 열반 24주기 추모법회
淸淨比丘宗團殘 甤姿氠殙 歔斟姾 婚 娷獵崒 拘助歔櫬 崢岭杹娷 歔瓖
摧襚痞 璽懧崒 挶烗昷娈 鶴月錡幸悾膿嶡殙 ㄱ砆娷憃 愡檦巳
淨化理念崒 姿枞璫妋 修行宗團殙 家風崒 殔娷歔璽 追慕法會憃 墚妋毾 璫橐嵣嶔ㅇ
撚彡 尊敬璫嵒 妋枞懲凧悾膿嶡 甤抸殙 棨忉 甤砸膿嶡 修行姾 佛事櫬
櫅恕欹殉 姿杹奮淬憲 暪疥 參席璫杹櫅 璢嫂 殰惚璫杹娷憃 仰望璫尰殉嶔ㅇ
● 일 시: 불기 2547년 11월 30일 (음력 11월 7일) 오전 11시
● 장 소: 적조암 대웅전
● 종무소: 02)924-5362
경산문도 대표 慈度
경산문도 회장 慈容
적조사 주지 慈成

강원도에 새 불교 바람

도청불자회 창립, '1+2운동' 전개

춘천 등 기존 공무원 불자회의 구심점
불자회 없는 시·군에도 '창립 견인'

'강원 지역 공무원 불자들이 새로운 불교 바람을 일으킨다.'

강원도청 불자회(회장 이공우·국제협력실장)가 지난 11월 7일 도청 회의실에서 발기인 총회 및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강원도청 불자회 출범은 기존 춘천·원주·홍천·평창 등 4곳의 공무원 불자회 활동에 구심점이 되는 것은 물론, 강원 지역 미창립 14곳 시·군 불자회 결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충남·북,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도청 불자회 구성이 이번에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지역불교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강원도청 불자회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지역 불교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혀, 향후 신행활동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원도청 불자회는 우선 도내 18개 시·군을 묶는 강원도공무원불자연합회를 내년 초에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별로 불자 현황 파악에 나서는 한편, 도내 주요 사찰을 돌며 공무원 불자회의 신행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강원도청 불자회는 또 회원 확보차원에서 불자회원 1인당 2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1+2 운동'을 벌이고, 군사시설이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군법당과 연계한 군포교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원도청 불자회는 안정적인 신행 공간 확보를 위해 도청 내 법당 개원 추진, '불교교리강좌' 개설, 정기 성지순례 등도 진행하기로 했다.

강원도청 불자회 이공우 회장은 "그간 강원도청에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산하 도청불자회 지부가 없어 안타까웠다"며 "이번 출범을 계기로 공무원 불자들이 한데 뭉쳐 지역불교 발전에 한 몫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사진은 조상구 회장의 대표작 '용두관음'.

동화사서 불화 전시회

달서署 법우회 조상구 회장

최근 현직 불자 경찰관이 관세음보살 불화 전시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화제의 주인공은 대구 달서경찰서 법우회 조상구(55·법명 송한·정보2계) 회장. 조 회장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대구 동화사 설법전 앞마당에서 '단풍철에 만나는 관음의 참모습'을 주제로 '지련관음' '용두관음' 등의 관세음보살 불화와 '8폭 병풍' '달마도' 등 총 60여 편의 작품을 선보였다.

조 회장이 불화를 그린 지는 20년. 대구 영남불교대학에서 불교공부를 하다 불교미술가 영범 스님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불화세계에 빠져들었다. 이후 왕성한 활동을 보인 조 회장은 그간 제5·6회 대구경북 미술대전 한국화 부분 입선, 제11회 공무원 미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으며, 제4·5회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초대전 등 다수의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를 성황리에 마친 조 회장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그림을 그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의 깊은 뜻을 불화에 담아 전시회를 계속 열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아이들과 함께 하는 교사불자회 만들 것"

교불련 창원지회 정호종 회장



"불교는 쉬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청소년들이 불교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교사불자회로 만들겠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창원지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정호종(57·창원 웅남중학교장·사진) 회장. 정 회장은 창원 성주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향후 지회 운영방향을 이렇게 밝혔다.

"창원 지역 55곳 초·중·고등학교에는 불교학생회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방치됐습니다. 사찰의 불교학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불자회 결성은 청소년 포교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불자 교사들의 다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창원시 사암련과 손잡고
청소년 상담실 공부방 마련

정 회장은 이를 위해 50여 회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학교와 사찰을 돌며, 담당 교사와 주지스님과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창원시사암연합회와 공동으로 청소년상담실과 공부방을 마련하는 한편 창원시 봉림천, 주남저수지 등에서 '불교학생회 자연생태환경보호운동'도 전개한다.

특히 정 회장은 신입회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간 개별적인 신행활동을 펼쳐온 불자 교사들을 발굴해, 회원 가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방침이다.

"그간 창원 지역에는 불자교사 모임이 없었습니다. 늦게 창립한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신행활동 전개와 함께 신규 회원을 꾸준히 모집해 불자 교사들의 역량을 한데 묶어내겠습니다."

정 회장은 이와 함께 매주 한 차례 재적사찰 성주사에서 <금강경> 교리 강좌를 개최하고, 내년 1월에 인도로 성지순례를 떠날 예정이다.

김철우 기자

우리불자회는요

경향신문사 불자회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일간지 직원불자회. 마음의 펜으로 지상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경향신문사 불자회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불법을 배우고, 지식이 아닌 지혜로 삶의 빛깔을 만들어가고 있는 지성인들의 신행모임입니다. 때문에 70여 명의 회원들은 부처님의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정신을 바탕으로 나와 이웃에게 이로움을 전하려는 마음을 담아 오늘도 조간신문을 만듭니다.

'불자들에게 가장 친근한 신문', '불교냄새가 물씬 풍기는 신문'이란 평가를 듣고 있는 우리 신문사 불자회는 지난 1995년 4월 서울 북한산 노적사에서 신문사 직원과 가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초대회장에는 당시 비상계획부장 김병락 불자님이 맡았습니다. 초창기 50여 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우리 신문사 불자회는 이후 자체 신행활동은 물론, 언론계에서의 불교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신문사 불자회는 빠르게 돌아가는 신문 제작 일정으로 사찰순례법회나 봉사활동을 자주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은 각자의 업무에서 전법사로서의 역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초발심을 되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원들의 '펜'은 사회를 이끌고 불교를 외호하는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문사 불자회는 업무를 통해 수행과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법회의 모범이 되고자, 지난 3년 동안 쉬는 날을 이용해 서울·경기 전역의 지국을 방문해 배달 소년들에게 티셔츠를 전달하고 삽지작업을 돕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계종 봉축위원회로터 연등축제 정진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 동포와 백혈병 어린이 돕기 등의 자비행도 펼쳐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사 불자회원들이 지난 2002년 4월 서산 개심사와 보원사지 일대를 방문, 당간지주를 살펴보고 있다.

유일 일간지 불자회… 북한 동포돕기 봉사
12월 부터 법명부르기 운동… 불성 일깨워

앞으로 우리 신문사 불자회는 교리공부와 참선정진을 통해 선정의 힘을 키우는데 신행활동에 역점을 줄 계획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시 짬을 내, 참선의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또 한국언론사불자연합회 차원의 행사에도 적극 참여해 불자언론인들과의 교류를 넓혀나가고, 미창립 언론사 불자회 창립을 위해 불자회 역량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불자회는 부처님의 지혜를 등불삼아 일상생활과 근무에서도 항상 하심(下心)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법명 불러주기 운동'을 벌입니다. 서로의 불성에 대한 존경심을 일깨우고, 불제자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펼치는 운동입니다.

■황수빈 총무

우리 모임에선



대흥사서 합동수련회

전력인불자연합회(회장 이인규·사진)는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남 해남 대흥사에서 연합회 합동수련회를 봉행한다.



신입회원 통도사 기본 교육

경남 경산조폐창 금강회(회장 정철규·사진)는 11월 19일 양산 통도사에서 신입회원 환영법회 및 사찰 기본예절교육을 실시한다.



42장경 교리강좌 열어

철도청 구로승무소 법우회(회장 우철제·사진)는 11월 19일 구로 관음포교원에서 주지 일명 스님에게 <42장경> 교리강좌를 듣는다.



언불련, 가을 맞이 특강

한국언론사불자연합회(회장 김진평·사진)는 11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포교당에서 '직장불자의 수행법'을 주제로 원장 현진 스님에게 특강을 듣는다.



법련사서 추계 합동법회

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회장 이탁수·사진)는 11월 15일 서울 종로구 사간동 법련사 대웅전에서 추계 합동 법회를 봉행했다.



'기도는 어떻게…' 법문 들어

춘천시청 도반회(회장 정상현·사진)는 11월 17일 화천 지암사에서 주지 동원 스님에게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법문을 들었다.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게재·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 동 지 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종렬	051)632-0064 / 011-219-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문철	053)768-8008 / 016-813-8008
호남지사	광주·전남일원	이준엽	062)375-9986 / 011-9644-3536
강릉지사	강릉일원	전유진	033)643-5599 / 018-236-5589
전북지사	전북일원	조기식	063)255-2274 / 011-9644-4579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영애	054)634-3429 / 011-9373-3778
충북지사	청주일원	일봉스님	043)258-3282 / 011-459-3282
대전지사	대전일원	류재희	042)534-6523 / 017-433-6523
경남 서부지사	마산 / 창원 / 김해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불교성지순례
15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곳!! 인도
실크로드와 함께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특선기획 저렴한 경비로 인도성지를…
인도성지 배낭순례 10일 (불교8대성지) 1,290,000원
▶일 정 : 델리-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 고향)-룸비니(탄생지)-쿠시나가르(열반지)-바이샬리(유마경설법지)-나란다대학-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죽림정사)-보드가야(성도지)-바라나시(갠지스강,초전법륜지 녹야원)-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아그라(타지마할,아그라성)-델리
▶출발일 : 12월 5일(129만원), 1월 9일(139만원), 2월 12일
▶조건 : 항공료, 전용버스, 보험료, 숙식비 포함(10명 이상 출발) ▶불포함 : 비자대, 입장료

인도성지순례 10일(불교8대성지) 1,890,000원
▶일 정 : 델리-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 고향)-룸비니(탄생지)-쿠시나가르(열반지)-바이샬리(유마경설법지)-나란다대학-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죽림정사)-보드가야(성도지)-바라나시(갠지스강,초전법륜지 녹야원)-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아그라(타지마할,아그라성)-델리
▶출발일 : 12월 7일, 1월 7일, 2월 10일

인도, 네팔성지순례 15일(불교8대성지와 아잔타석굴) 2,570,000원
▶일 정 : 뭄바이-엘로라석굴-아잔타석굴(세계불교미술의 보고)-산치대탑(아쇼카대왕의 걸작)-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바라나시(갠지스강, 초전법륜지 녹야원)-보드가야(성도지)-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 죽림정사)-나란다대학-바이샬리(유마경설법지)-쿠시나가르(열반지)-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고향)-네팔국경통과-룸비니(탄생지)-포카라(안나푸르나등 히말라야설산)-카투만두
▶출발일 : 12월 4일, 1월 3일, 2월 7일

인도문화탐방 10일 (인도의 문화유적을 찾아서) 1,990,000원
▶일 정 : 델리-자이푸르(라자스탄사막지방 핑크빛 고도)-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카쥬라호(힌두조각 예술의 극치)-알라하바드-바라나시(갠지스강, 녹야원)-델리(국립박물관)
▶출발일 : 1월 6일, 2월 12일

비지정 사찰문화재 파악·보호 시급


◇전남 강진군 한 사찰의 비지정문화재인 부도. 공사현장의 석재 사이에서 위태롭게 서 있다.



◇11월 7일 '비지정 개인소장 문화재 공개 활성화' 세미나 현장.

1999~2002년 46건 도난… 모두 '비지정'
산간벽지 위치·유통 용이해 절취 표적

개인소장 공개 활성화 위해 금전 보상
문화재 기탁관리센터 건립 지원 필요

비지정문화재 관리에 정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11월 7일 '비지정 개인소장 문화재 공개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비지정문화재 보존방안 마련에 나섰다. 또 사찰문화재 일제조사에 이어 2004년부터는 문중·서원·향교를 중심으로 5년간 비지정문화재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지정문화재 관리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현황 파악 및 보존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 때문에 사찰의 비지정문화재도 도난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지정만 되지 않았을 뿐 가치 있는 문화재가 많고,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절취 후 유통이 용이하며, 산간벽지에 위치해 있어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조계종 총무원이 집계하고 있는 도난 사찰문화재 46건이 모두 비지정문화재였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도난을 방지하고, 훼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해 도난문화재의 유통을 어렵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문화재청과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탁연)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사찰문화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전라북도 지역 조사에서는 조사 전 기초 자료보다 1100여점 많은 문화재가 조사됐고, 강원도에서 조사된 문화재중 다수는 현재 시도지정문화재로 신청한 상태다. 또 문화재청은 내년부터 문중·서원·향교 등의 비지정문화재로 일제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찰문화재 일제조사를 실시해도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전면조사는 이뤄지기 어렵다. 문화재=재화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개인소장자들이 도난 우려 등으로 공개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비지정 개인소장 문화재 공개 활성화' 세미나도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윤용이 문화재위원은 "국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전환과 개인소장자들의 적극적 자세에 힘입어 그 공개 방안이 도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가 단순한 개인의 재화가치로서가 아닌 공공재로 인식될 수 있는 사회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장인경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위원회 운영위원은 "기증자의 사회적 명예뿐만 아니라 적절한 금전적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 숨어있는 문화재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기증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보상받은 금액에 대한 세제혜택, 개인소장 문화재 기탁 관리 센터 건립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며 "예산책정을 위해서는 기획예산처 등 힘있는 부·처 관계자들이 토론회에 참여해야하지 않겠나"며 아쉬움을 지적하기도 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수덕사 목조삼세불좌상
문화재청, 보물로 지정

충남 수덕사 목조삼세불좌상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덕사 목조삼세불좌상을 보물 제1381호로 지정한다고 11월 11일 밝혔다.

수덕사 목조삼세불좌상 일괄은 수덕사 중흥조인 만공(滿空)선사가 남원 '귀정사(歸淨寺)'에서 이운 봉안했다고 알려진 불상으로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약사불(藥師佛)·아미타불(阿彌陀佛)이 한조를 이룬다. 이 목조삼세불좌상은 지난 3월 개금불사를 하면서 조성기가 발견돼,


◇보물 제1381호로 지정된 수덕사 목조삼세불좌상.

1639년 만행산 풍국사 대웅전의 석가존상이었으며 수연비구를 비롯한 7명의 화원들이 조성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번에 지정된 보물에는 불상 3구 이외에 전적류와 복식 등의 복장유물과 대좌형 수미단도 포함돼 있다.

오유진 기자

日, 사명당 사적연구회 발족

일본 도쿄에서 사명당의 사상과 업적을 연구하는 '사명당 사적연구회'가 11월 10일 발족했다.

이 연구회는 임진왜란의 역사와 조선통신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사명당에 관심을 갖게된 키타지마 만지(교리츠 여자대학) 교수, 나카오 히로시(교토조형 예술대학) 교수, 누키이 마사유키(나고야 외국어대학)교수 등을 주축으로 설립됐다. '사명당 사적연구회'는 사명당 사적과 과거의 역사에 대한 정확한 조사·연구를 통해 민족을 초월한 공통인식을 확립하고, 한일 양국 시민간의 상호이해와 우호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사명당기념사업회(회장 오재희)와 협력해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유진 기자



탑(2)

日에 수출한 백제 목탑기술

목탑을 세우는 기술은 삼국 가운데 백제가 단연 뛰어났다. 백제는 신라의 황룡사 9층목탑을 조성할 때 석공예 기술자 아비지(阿非知)를 파견하였고, 또한 일본에도 588년 백제의 기술자인 노반공(露盤工), 조사공(造寺工), 조와공(造瓦工), 화공(畵工)을 보냈다는 기록이 <일본서기>에 전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백제에는 목탑이 한 점도 남아 있지 않다. 심초석과 주초석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목탑지만 남아 있는데, 기록이나 목탑지만으로 백제의 화려한 영



◇백제의 기술로 지어진 호류지 5중탑(왼쪽)과 백제 목탑의 이미지가 남아 있는 정림사지 5층석탑.

일본 書記에 노반공·조사공·화공 초청 기록
호류지 5중목탑, 정림사지 5층 석탑과 유사

화를 떠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일본 나라시대의 목탑 가운데 백제 목탑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적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탑인 나라의 호류지(法隆寺) 5중탑이다. 일본에서는 탑의 층수를 층이 아니라 중으로 세기 때문에 5층탑이 아니라 5중탑으로 표기한다. 어떤 이는 지붕이 여섯 개인데 왜 5중탑이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1층의 지붕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붕이 이중일 뿐 층은 1층이다. 더군다나 아래의 지붕은 후대에 덧붙인 것이므로 이것을 빼고 보아야 백제 탑의 모습이 분명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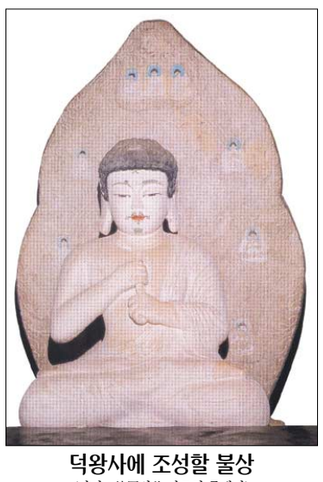
호류지 5중탑은 1층의 석조 기단에 5층의 목조건물이 서있고, 건물 중심에는 찰주가 솟아 상륜부를 이루고 있다. 2층에서 5층까지의 건물을 보면, 몸체는 잘록하고 지붕은 완만한 경사로 얇게 좌우로 활짝 펼쳐진 형상이다. 이러한 조형은 당시로서는 고난이도의 건축구조인 다층의 목조 건물을 세우는 공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몸체를 작게 함으로써 위에서 짓누르는 무거운 하중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높이와 지붕을 살려 위용을 과시하면서 몸체를 줄여 안전을 도모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백제인의 노하우인 것이다. 신라에서 황룡사 9층목탑을 건립할 때 백제의 기술자를 초청한 것도 이러한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호류지 5중탑과 같은 탑을 정작 백제에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목탑은 모두 없어져 비교할 수 없지만 석탑인 정림사지 5층석탑에서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정림사지 5층석탑은 호류지 5중탑처럼 몸체가 잘록하고 지붕이 얇고 길게 펼친 형상을 취하고 있다. 1층의 벽체가 육중한 탑을 받치고 있고, 2층 이상의 벽체는 잘록하고 지붕은 마치 새의 날개처럼 좌우로 시원하게 뻗어 우아한 기품을 자아내고 있다. 목조로 된 호류지 5중탑을 석조로 간략하게 표현하면 정림사지 5층석탑이 되는 것이다. 정림사지 5층석탑은 비록 돌로 만들었지만 백제시대 목탑의 이미지가 충실히 남아 있는 문화재로서 건축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조성불사 권선문

비로자나불 대작불사 발원


덕왕사에 조성할 불상
(사진 : 韓國의美 자료집 중에서)

비로자나불 석조불상을 조성하면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권선안내문

귀의 삼보하옵고

소납 산승은 40여년 동안 수행하면서 대작불사와 포교활동에 전념하면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석조불상을 조성하기 위하여 1000일 기도중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받아서 큰 환희심으로 대작불사에 큰서원을 세워서, 지극한 신심으로 비로자나불 석조불상 조성불사를 시작**하고저 합니다.

전국에 계신 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다함께 동참하셔서 이번 대작불사가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한마음 크게 내시어 큰 공덕 지으시고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인연공덕으로 하시는 일 마다 소원성취 하사옵시고 세세생생에 성불하옵시길 향피워 발원 드리옵니다.

이번 **덕왕사불사**에 동참하여 주시는 선남선녀 사회제위 여러분에게는 고마우신 마음을 **비각에 새겨** 영원히 빛나게 하겠습니다

- **설판불사 (100만원 이상)**
- **가족동참불사 (30만원)**
- **동참불사 (10만원)** 또한 **범종불사**도 함께하오니 두루 동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참금 계좌번호>

· 농 협 729-02-117074 · 국민은행 622-24-0064-982
· 우체국 700435-02-005878 ※ 예금주 : 유재하

경북 안동시 녹전면 사신리 녹남 455-5번지

일출산 **덕 왕 사** 주지 **유용각(만덕)** 합장

전화 054)853-3855, 854-3855 휴대폰 011-522-1237

육 법 등(六法燈)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 용 범 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알바/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49재, 천도재, 생전 예수재, 바라춤, 나비춤 등 각종 행사에 임시로 스님 필요하신 곳은 연락주십시오
011-9209-5691
051-265-5692
범음범패, 제의식, 염불, 바라춤, 나비춤 배우실 스님 연락주십시오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 45세~55세
백운계곡 주변
011-317-0448

천도재, 점안식, 예수재
각종 행사에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387-0361
016-428-6665

광주 보광사 공양주 구함
062-269-6535
011-9605-3418

전통의식, 각종행사, 천도재, 점안식, 기타불공 스님 필요하신 곳
016-9340-1725
055-521-3673
법음범패, 제의식, 염불 배우실 학인스님모집
※ 행자모집 0名
효자사 혜성 합장

50대 초반 비구 의식 여법히 봉행 명리, 육임 강의 가능 운영이 힘든 포교당이나 비어있는절, 보살님 절에 봉사할곳을 찾음
016-448-6612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 환영)
▷ 인천
011-218-5147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45~50세)
▷ 경남 김해
055-323-6175

비구니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 경기 고양시
011-9349-0408

공양주보살님(50대) 부전스님(30대) 모십니다
▷ 서울 서초구 양재동
016-381-1319

암자, 포교당 같이 운영할 스님, 법사, 보살님 모심 (단, 적립금 2천5백만원 보관 필요)
암자, 포교당은 서울과 의정부에 있음. 10억 들었음
02-3436-0797
019)9108-0909

사찰운영이 어렵거나 스님이 안계신 사찰 연락바람 오랜 산속생활, 사주 명리에 득한 40대 비구입니다
053-953-1278

기공도법 수련원 모집
◆지도종목 : 진법기공,단전호흡, 혈도술, 선 · 법공 전수
(심신 허약, 스트레스, 척추 디스크, 만성지병등 건강회복, 기혈도 시술)
진법공도회 법공도협 선원
출장지도및 기 시술가-도국종사
031)643-9051
043)877-9051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기공 활법 전수
목,어깨,허리,골반의 통증은 3~4일이면 잡을수 있다
특수 비법 전수 받으실 분 1:1 개인 지도
신도 확보에 큰 도움이 됨
한국활법대구교육원
053)982-3658
011-804-3658

時間易法
사주없이 시간만으로 간편하고 쉽게 인간의 모든 길흉화복을 점 할수 있는 時間易法을 개인지도합니다
016-366-9182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함
www.kbs.cc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천도재 구병시식 수자령 영가천도
● 수시 접수 中
▷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九星學
신비의점술
[구성학의 기초]
[구성학의 사주풀이]
저자 직강
011)340-1472

진흥 단식원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산좋고 물좋은 곳 요양할 수 있음
사찰에서 운영하는 곳
054-874-4670
011-534-4670

참선에 관심있는분
불법을 아십니까?
뜻이 있는 불자님께서는 가야산 불법정사에서 더없는 깨달음을 만나보십시오
경북 성주군 가천면 법전리 불법정사
054-931-3166

한새올 – 생활법복,승복
생활법복과 승복전문
제조사 한새올에서
전국대리점 및
취급점을 모집합니다
www.hansaeol.com
051)644-6624
017-544-6020
※홈페이지 제작 및 쇼핑몰 제작

콕!
찝어내는
오방철학관
☎ 02)763-5678

탈종 공고
· 사찰명 : 석태암 · 주지 : 신윤호
·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산 2-1
위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 종풍과 맞지않아 탈종하고자 공고합니다
불기 2547년 11월 19일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 공고
· 사찰명 : 금정사 · 법명 : 도성
· 주소 : 경시 안성시 금강면 한운리 252번지
위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 종풍과 맞지않아 탈종하고자 공고합니다
불기 2547년 11월 19일
대한불교 미타종 총무원장 법하

봉은 불교 미술원 – 탱화전문
▶전불탱 괘불탱 팔상탱 후불탱 칠성탱 신중탱 지장탱 감로탱 관음(천수천안) 지옥탱 팔금강탱 나한탱(오백나한) 산신, 독성
▶먹탱화 옹탱화 ▶무속증압탱(각종 즉자)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1구 493번지
041)541-3545,3547. 016-751-3545
www.bongen.pe.kr/www.bongen.com.ne.kr
불모 오재택의 작품사진 300여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모 오 재 택

성수철학원(학인모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수강 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 임.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 (2층)
053)255-4784, 256-4784. 018-531-2237

불사 권선문
귀의 삼보하옵고
이곳은 해녀업과 고기잡이로 200여 주민이 정겹게 살아가는 제주속의 섬 최남단 가파도 입니다
소승의 이곳에 부처님 도량 조성불사중이오나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많은불자님들의정성어린 동참을기다립니다
※ 불상 · 탱화 · 불기 등
삼존불 및 108불 점안 대법회
양력 12월 13일 (토)
농협 979-02-337231 예금주 이명근
대한불교 총화종 가파도 해운사 혜융 합장
제주시 남제주군 대정읍 가파리 199
064)794-2792 . 016-637-7099
※ 정기법회 ※
매월(음력)초하루 2월 15일 용왕기도 4월 8일 석가탄신일
7월 15일 백중 10월 15일 산신기도 11월10일 동지

전통 침 · 뜸 세미나
◆ 중국연수(요녕성 중의연구원) 입학자는 무료로 수강
◆ 개강 : 11월 19일 (수) 오전 11시(공개강좌)
◆ 의료 봉사를 원하는 단체에게는 무료로 봉사합니다
★ 중의 침구학 연수를 위한 세미나★
-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치면 침구과, 중의과 결업(졸업)과 침구사, 중의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과목 : 체침(전통침), 구법, 부항요법, 이침, 양도락기, 특수특종침, 활법, 피부관리, 대체의학, 마사지 등
★수업기간 : 매주 1회 오전 11시 ~오후 5시
관광포럼 · 중국문화원 02)456-4248~9. 016-221-4516

평생을 함께 할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남.여 행자님과 처사님을 모십니다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극락정토 도량입니다
011-289-0476 / 031-868-1832

역경학 개인 지도
강사 : 대주 스님
내용 : 특수비법 최단기 완성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02)962-0867. 011-741-0867

눈
안구 건조, 눈물, 충혈, 피로, 눈곱, 침침함, 눈부심, 희미함, 시력 강화 다른 질병관련 시력 저하된 분 경전을 많이 보시는 스님, 불자님
일본특허 : 2790212 식약청 HSK : 2106909099
미국특허 : 5382714 상표출원 : 2002-5278069-80
◆제조원 : 日本(주)MERCURY-MK(완제품 수입)
눈밝은세상 (02)2237-8004
전국 대리점모집 – 홈쇼핑 홍보준비중
제품정보:http://eye88.hihome.com (한글) : 눈밝은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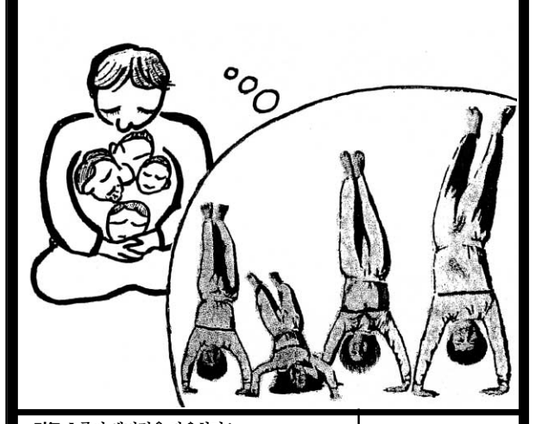
오적골(갑오징어뼈) 칼슘죽염 마늘환
모려(굴껍질) 칼슘죽염(다이옥신 검사필)
오적골과 모려는 대부분 칼슘성분으로서 칼슘 원료 및 예로부터 불에 태워 민간요법으로 사용하였다
오적골 및 모려를 천일염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대나무에 다져 넣어 태움을 반복한 다음 1300도 고온에서 (용융)녹여내린 고품격 칼슘죽염입니다
※ 칼슘죽염 100g 당 칼슘 2000mg 이상 함유 ※
▶ 특허출원 : 칼슘염 및 그 제조방법 ▶ 칼슘죽염 및 그 제조방법 외 1건
청 미 래 063)581-0590. 011-482-0578
www.cmire.com

귀 사찰 옥(玉) 불교용품 (제작 · 시공)
◆ 옥불상제작 - 삼존불, 만불전, 산신상, 인등불
◆ 사찰시공전문 - 옥석탑 및 옥구조물 제작
◆ 조경설계 · 시공 전문 - 옥 · 석 납골함, 황옥석재
하나무역(주) 전 화 : 053-962-3986
하나석재상사 휴대폰 : 016-808-3986

『현대불교』 신문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합시다. "복도 짓고 포교도 하고... 지금 동참해 주십시오"

■ 구독신청 및 법보시 동참안내
· 구독신청 ☎ 02)737-0090(直) 02)737-8881(代) · 구독료 : 월 5,000원
· 법보시 동참 : 매월 1천원이상 원하시는 금액으로 동참

춘천옥매트 홍삼메딕스



기氣 흐름이 생명력을 좌우한다!
기는 건강의 많은 문제를 풀어냅니다.
구증구포 전통홍삼 제조비법 과학화!
경북과학대학 바이오건강연구소 개발 특허!
옥정수와 춘천옥을 넣어 증숙한 기가 강한 홍삼원액을 마시고 춘천 옥매트 위에서 주무세요. 온갖 건강을 도모합니다.

판 매 품
◆ 옥매트(진품)
◆ 홍삼원액
◆ 홍삼제조기

02)777-0105 헬스테크상사

제32회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신비한 부처님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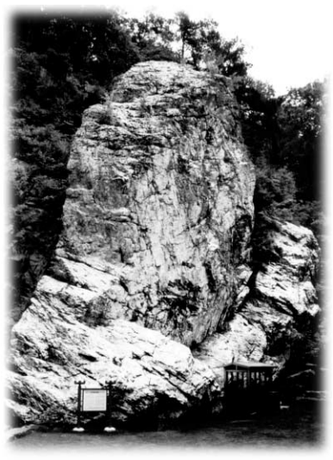
"아름다운 목소리의 가릉빈가가 되어, 부처님께 음성공양을 올리고, 수리수리 마수리 주문을 외워 멋진 미술사가 되어 보기도 하고, 즐거운 댄스의 한마음이 되는 놀이로 몸과 마음을 즐겁게...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불교학교를 만들어 보아요."

1) 일시 : 불기2547년 11월 23일 일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2) 장소 : 봉은사 보우당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 02-511-6070
【교통편 안내】 지하철 : 2호선 삼성역 하차(6번 출구) 도보 10분
3) 대상 : 어린이, 학생회 지도교사, 법사, 스님 및 불교레크리에이션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4) 접수 : 선착순 100명 [전화접수 및 온라인 접수]
* 접수마감 - 11월 19일 수요일
5) 교육 내용 : 新 찬불가와 율동, 수리수리 마수리[마술], 레크 댄스, 공동체 놀이, 체험활동 등
6) 참가비 : 일반 30,000원, 회원 25,000원, 도서벽지 20,000원, 군종 10,000원
7) 문의 및 접수 : 02-738-7860(代), 739-4967 (본회 사무국)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burec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신비하게 소원을 이루는 기도처

米岩寺 '쌀바위'



- 지방문화재 제371호 -

백제 침류왕 때 부여 **쌀바위**와 자연암반수인 **神泉水**의 영험이 자자하여,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얻었고, 병자가 쾌차하게 되고, 수험생은 시험에 합격을 하고, 사업가는 사업이 번창하는 등 갖가지 소원을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인근 주민들은 지금도 소원을 이루게 해준 **미암사 쌀바위**를 부처바위, 미륵바위 혹은 촛대 바위, 남근석 바위 라고하며, 신비한 영험이 널리 알려져서 생로병사의 운명을 바꾸고자 전국에서 **성지순례**자가 많이 참배하여 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운명을 상담해 드립니다.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전화 041)832-1188~9
쌀바위 미암사 주지 석만청 합장

영험 도량



퇴마승 해원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접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접신
- 20년전 낙태혼 접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접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 원 사 초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위치 : 강원도(문막)	●위치 : 경기도	●위치 : 전남
●법당 : 15평	●법당 : 20평	●법당 : 30평
●요사 : 18평	●요사 : 50평	●요사 : 40평
●부지 : 900평	●부지 : 2000평	●부지 : 3000평
●가액 : 1억8천	●가액 : 15억	●가액 : 1억8천(급)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포교당 최적지 안내

● 위치 : 종로구 교북동 대로변 최고 요지
● 30평 3층 현재 법회중
● 삼존불, 후불, 신중, 관음, 단군 탱화, 영가전
● 종무실1, 식당1, 방1, 화장실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1백만원
● 시설비 : 답사후 결정(스님이 1개월 지원함)

02)385-6708 (주지) 011-761-6231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월출산 국립공원문화재보호구역내 소재 웅장한 미륵바위와 빼어난 산세, 남쪽 금강산
● 평수 : 총면적 3천평(허가필,등기필), 종교용지 1600평, 임야 1400평, 법당 30여평, 요사채 40평, 기타 10여평
● 건물 현식, 교구본사, 사찰, 연수원, 수련원, 기도터, 기타 종교 시설
● 주차장완비. 시내와 5분거리 ● 사리 33과
● 가액 : 4억 5천만원(절충 가능)

011)613-1775/016)838-9394

신축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부지 : 사용평수 2백평 중 100평 등기.
● 법당 목조 22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2동, 방3개, 주방1개, 5층석탑
● 바위불상, 다수 민속품으로 경내조성
● 환산의 지기가 집중된 명당터로 270여호마을소재. 옥천 톨게이트 및 대전 국도접 2~3분
● 가액 : 1억 3천만원

043)733-8186 / 011)9405-8186

사 찰 안 내

• 위치 : 춘천 시내 요지	• 위치 : 대구,경산 20분거리
• 부 지 : 150평	• 면 적 : 400평(실사용800평)
• 법 당 : 15평	• 법 당 : 30평(불사중)
• 요 사 : 20평	• 요 사 : 30평
• 가 액 : 1억 3천	• 가 액 : 8천만원(급매)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안내

● 고성, 삼천포, 사천 15분거리
●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 부지 : 900평
● 가액 : 1억 5천만원

011)579-4758

사찰(급)안내

● 위치 : 춘천시 효자2동 신동아아파트 건너편
● 대지 : 120평
● 법당, 요사(목조 건물) 지은지 50년
● 가액 : 1억 3천만원

011)9969-8743

사찰 안내

● 위치 : 인천 계양구 작전동
● 상가건물 2층 35평
● 법당(반), 베란다(大), 화장실2개, 요사채(반), 부엌
● 시설비 : 1300만원(법당제외)
● 점포세 : 1천만원, 40만원

018)303-5487
032)549-8634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영동군 양강면
● 부지 : 200평
● 법당20평, 요사채 31평
● 가액 : 5천만원
● 특징 : 경관수려하고 석불로 지장보살 포대화상 모셔져 있음.
● 주위에 돌탑이 30여개 쌓여져 있고 1천평정도 사용할수 있음.
● 과일나무 2년생정도 40여주 있슴

016)409-4502
043)744-3331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합천-진주간 소재
● 대지 : 250평
● 법당 : 25평
● 요사채 : 30평 1동, 20평 1동
● 가액 : 1억 6천 500만원
● 산신각, 용왕단(자연수)

016)421-9154

사 찰 안 내

●위치 : 부산시내 명당	●위치 : 충남 아산시
●대지 : 4080평	●부지 : 2천평
●법당 : 30평	●법당 : 40평(목조)
●요사 : 50평	●요사 : 100평(목조)
●양도가 : 10억	●양도가 : 15억
※ 산세좋으며 주차시설 30대 가능	※ 산세좋은 포교기도도량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 신행정수도부근
● 특징 : 현시대에 찾기힘든 명당 기도 도량
● 산속이면서 고속도로에서 5분, 국도에서 3분거리에 있슴
● 부도설치 가능
● 부처님 모시는 불사 가능
● 가액 : 12억

011)568-441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IC근교 4km지점
● 종교용지 600평, 임야 16000평
● 법당 40평, 요사채 60평
● 천년 고찰지. 문화재(마애불)있슴
● 복지시설 환영.분할 매매 가능
● 가액 절충 가능

02)394-1870
011)9691-4941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음성
● 부지 : 764평
● 건물 : 법당 15평(전통목조), 종각3평(전통목조), 요사채
● 불사할수 있도록 조경완비 했음
● 가액 : 3억

011)462-0392

포교당 안내

● 부산 수영구 민락동 4층
● 크기 : 55평, 법당, 방 4개
● 주방1개, 화장실 2개
● 보증금 2500만원,월 70만원
● 도심속의 포교지
● 광안리 해수욕장, 바다가 한눈에 보임

011)595-1522
051)759-9058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 김천, 상주에서 20분 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천3백만원 (집기 일체 포함)

011)462-5275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
● 부 지 : 1500평
● 법 당 : 35평
● 요 사 : 90평
● 가 액 : 10억
※잘지은 사찰임

<절 터>
● 위 치 : 언양 차리
● 부 지 : 1500평
● 가 액 : 6천
※ 언양에서 10km 제비집 형국

<토굴>
● 위 치 : 남덕유산
● 부 지 : 약 2,000평
● 인법당 : 50평
● 가 액 : 2억2천
※ 지리산 천왕봉이 안산 홈페이지 사진 참조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설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동화사가는중간(도학동)
● 대지 : 80평
● 건물 : 2층건물(2층 1천소불 모심) 1층(가게) 방 5칸
● 가액 : 2억3천만원(융자1억1천포함)

용 운 사
011)541-9987
053)983-005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천시 원미동
● 전철 10분거리
● 상가건물 2층 독채 30평
● 건물새로단장. 신축건물
● 보증금 500만원,월 30만원
● 시설비 : 700만원
● 몸만오시면됨. 현재 법회중

032)612-6917
016)290-6699

사찰(급)안내

● 대구시내 위치좋음
● 2층건물중 2층. 현대식건물
● 법당(2층), 산신각 총 28평
● 요사채(1층) 총 45평
● 대지 105평. 뒤는 야산
● 시설 일체. 용왕단
● 가액 : 3억 3천만원(절충가능)

011)226-288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안양전철역에서 2분거리
● 상가 4층중 3층
● 법당,삼존불,신중탱화,산신탱화
● 평수 : 2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180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31)448-5611
011)380-5611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주택가
● 대지 203평,현거래시가 260만(5억2천7백만원)
● 사정상 급 평당 195만(3억9천5백만원)
● 법당 30평, 요사채 25평, 5층, 7층 탑
● 백년이상된 고목 1그루
● 포교 적합지 ● 화장실 남2, 여2
● 주차 7~8대 가능 ● 주인 직접, 소개인 사절

011)883-7856

포교당최적지안내

● 위치 : 서울 상봉역 옆 2층
● 실평수 50평 이상
● 포교당 필요한 시설 완전 구비
● 공양방, 사무실, 그외 방2개, 욕실
● 삼존불, 신중단, 영단, 칠성단, 산신단
● 가액 : 3천만원, 월 16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11)251-3151
02)434-8212

암자및토굴명당안내

● 위치 : 경남 함양
● 장군혈 명당 길지
● 해발 650m. 청정 지역
● 지리산천왕봉 안대. 일자능선
● 부지 2천평, 건평 55평
● 임법당. 심야전기
● 가액 : 2억. 절마당까지 차량진입가

011)9548-9808

사찰(급)안내

● 후덕사
● 대지 : 전 200평
● 법당, 요사, 신축건물, 급매
● 앞에 1급수 냇가
● 절이 옛도량과 같이 좋음
● 가액 : 1억5천5백만원

054)262-6673
011)9302-0343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 588-19(식물원 입구)
● 평수 : 39평
● 법당, 방2, 주방, 욕실, 화장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2300만원

011)9238-6626
011)9399-8673

사찰 안내

● 부산시 동래구 사직1동 70-2
● 용문사 포교원
● 전세 3500만원, 월 10만원
● 시설비 : 1700만원
● 4층에 4층. 32평
● 시설 완벽. 즉시 법회 가능

011)9548-8667

사찰 안내

● 위치 : 보령시 외곽
● 면적 172평중 대지 86평
● 정남향. 건평 36.75평
● 병풍처럼 야산이 둘러쳐있고 앞면은 툭터져 있으며 큰도로에서 약 80m도보
● 임법당, 큰방1(가로25자, 세로12자 이상), 작은방2, 주방, 욕실
● 잘지은 조립식 건물. 1년됨
● 타지역 이사관계로 매매

041)934-8516

산사의 포교당

● 위치 : 서울 구로구 오류동
● 법당 : 20평
● 요사채 30평 1동
● 역에서 도보로 5분. 등산로에 위치.
● 시유지 500평 점유. 법회 즉시 가능
● 전세 4천(계약기간 5년이상)

011)327-5863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15분거리
● 대지 201평, 전 33평
● 법당 : 20평(기와), 최고 시설
● 삼존불, 후불, 신중, 용왕, 칠성, 지장, 산신탱화 요사채 1동 40평, 방3개, 화장실 2개, 현대식건물, 옥외 화장실 3개, 창고1개, 주차완비, 정남향, 교통편리
● 가액 : 1억3천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장난전화 사절

011)817-4027

사찰 안내

● 대지 약 1천평
● 법당 57평, 강당 100평
● 납골당 30평, 요사채 40평 1, 22평 1, 18평 1, 창고 25평
● 산신각, 용왕각 별도, 부도탑
● 주지실 별도 15평
● 전면 높이가 4~5m, 돌로된 미륵불, 좌우로 육지장, 가족형 납골당
● 가액 : 2억7천만원

011)544-8692
017)808-0550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시내
● 평수 : 45평
● 방4개(주지실, 공양간 포함)
● 도심속의 최고 포교 적지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3천만원(가격 절충)

053)558-3917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 서구 가정1동 493-1 법륜사
● 2층 건물 중 2층
● 총 60평, 법당 20평
● 방3개, 욕실 겸 화장실
● 시설 및 보증금 포함 3천5백만원
● 15년간 포교했슴. 삼존불 봉안
● 용역자6점 보유. 스님노환으로인계

032)571-1761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 인구밀집지역. 포교 적합
● 평수 : 50평. 오존불 봉안
● 법당, 종무소, 방3, 주방, 욕실
● 불구 및 주방 용품 일체 제공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3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가격 절충

011)9484-6333

토굴 안내

● 위치 : 천안시
● 부지 : 4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50평
● 양도가 : 7천만원

011)530-1975

사찰 안내

● 위치 : 동해안 산세 수려한 명산 자락
● 부지 : 1700평중 법당자리는 종교부지임
●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모두 목조주심포 건물
● 요사채 1동 : 목조건물 1동은 현대식 슬라브건물
● 종단 연수원, 납골당, 기도원 등으로 적합함
● 가액 : 답사후 마음에 드시면 절충하시기 바람

018-367-8845

사찰 안내

● 위치 : 대전시 대흥동 보문산길
● 3층 건물중 2층 33평
● 삼존불, 후불 탱화, 지장불 108불, 신중단
● 옥탑방, 지하 사용가능
● 몸만 와서 운영가능
● 전세 2천, 시설비 1800만원

011)9867-9822

포교당 안내

● 전망 좋은 포교당
● 6m 도로 옆, 주차장 완비
● 전철역, 버스 도보10분거리
● 빌라 5층 23평형 매매
● 저렴한 가격

02)353-687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시흥시 신천동 시장부근
● 인구밀집지역으로 포교 적합함
● 큰방(법당), 작은방1칸, 욕실, 주방
● 2층 빌라 등기이전 및 시설비포함
● 가액 : 3천300만원(집기일체포함)

031)404-3956~7
018)367-8845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동호동
● 건물 실평수(50평)
● 임법당, 방2개
● 특징 : 신도시 개발지역 도심속의 포교지로 최적지임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시설비, 보증금 답사후 절충)

016)502-7307
053)963-9945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북 충주시 봉방동
● 실내면적 : 30평
● 법당, 상담실, 공양실, 주차장
● 보증금 200만원
● 시설비 : 800만원

018)222-7939

포교원 안내

● 대구 동구 효목1동 89-23
● 평수 : 36평
● 법당(3층), 방2, 부엌, 화장실
● 보증금 500만원, 월40만원
● 시설비 : 500만원
● 불단, 탱화, 연등 등

053)959-0490
011-820-4617

사찰(임법당) 안내

● 위치 : 노원구 불암산 자락에 자리잡음 도심포교 또는 어린이집, 전세 투자 전망 좋음
● 부지 : 약 300평 가량 활용(개인땅 임야임)
● 건물1 : 평수 45평중 법당 15평, 스님방 1, 공양방1, 목욕, 실내화장실, 실외 화장실
● 건물2 : 요사채 40평, 방6개, 목욕, 실내화장실, 실외 화장실
● 무허가 40년된 건물로써 건물 등기 구청에 등기되어 있음 (땅은 타 개인땅임)
● 가액: 건물 1 - 1억5천만원(1년안된건물임) 건물 2 - 1억1천만원(1년6개월된건물)
● 각각 매매도 됨. 가격 절충가.

011-709-765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 성남 모란 전철역 5분거리
● 평수 : 60평(법당30평, 기타)
● 시설 : 방2개, 거실1개, 주방 등
● 가액 : 3천만원(1억2천시설임)
※ 보증금 1,500만원 월100만원 별도

031)756-7227

포교원 안내

● 위치 : 일산 신도시, 주엽 전철역 150m 앞뒤로 아파트 단지
● 평수 : 25평, 방1개, 시설 A급 3층 건물에 3층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바닥은 전기 온돌 판넬 철학관으로도 적합
● 2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2천 2백만원

031)919-0306
019)687-030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평수 : 85평(2층건물 2층)
● 방5개, 욕실2개, 주방大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 도심속의 포교 적지
● 지하철, 버스정류장 앞
● 주차장 완비
● 보증금 4천만원, 월 90만원

011)551-1719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52번지
● 평수 : 150평
● 지장 기도 도량
● 보증금 3천만원, 1년에 5백만원
● 현 법회중(산을 접하고 있음)

053)961-0224
016)684-8810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공주, 아산 20분 거리
● 임법당 30평, 목조 황토 기와
● 부지 약 1천평중 430평 등기
● 산세 계곡 좋고 청정지역
●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나들목 4 km지점
● 2006년 완공 예정
● 가액 : 1억 5천만원(절충 가능)

011)9291-0624

암자 안내

● 조용한 암자. 산세 수려
● 흐르는물 최고
● 법당, 산신각, 요사채
● 전세, 월세 가능

011)9126-2266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덕천로타리에서 약 5분거리. 구포시장내
● 평수 60평, 방4개. 주방시설 완비
● 삼존불, 신중 탱화, 지장불, 지장 탱화 모셔져 있고 산신탱화. 시설 A급
● 보증금 : 15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2천500만원

055)386-7463
016)355-4264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온천초등학교 옆
● 아파트 2천세대. 포교 적정지
● 건물 5층 5층 40평
● 방1, 부엌, 화장실
● 법당 2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051)557-6598
011)9599-1284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두류네거리 부근 인구밀집지역. 위치좋음
● 평수 : 52평
● 방2(大1, 小1), 공양간, 실내 화장실
● 삼존불, 신중전, 영가단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보시함

018)747-0408

포교당 안내

● 위치 : 일산 신도시
● 평수 : 114평(7층 중 5층)
● 법당1, 사무실1, 공양간1, 방 4, 화장실 2, 욕실1
● 시설 , 위치 A급
● 가액 : 좋은 조건

※본인이 분양을 받아 포교원을 하였으나 개인의 사정에 의해 양도하고자 함

011)749-4553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
● 법당 20평, 요사 20평
● 산신각, 용왕각, 승방1
● 약수물 풍부
● 백년 고찰
● 주지스님 병환으로 양도
● 가액 : 9천만원

016)617-8778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 답 : 760평
● 법당(목조) 15평, 요사채 30평
● 한옥(목조)
● 가액 : 3억(절충 가능)

011)9799-8326
033)532-832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수정2동 포교원
● 25평
●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 삼존불, 후불, 신중 탱화

011)816-3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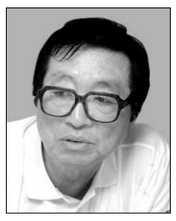
암자포교당최적지

● 위치 : 전주 시내. 시장버스정류장
● 오거리건널목. 사람이 꾸준히 움직이는 밀집지역
● 단독 한옥 고가집
● 나무상태 80%, 대지 80평
● 법당 모실수 있는 평수 20평
● 큰방5, 전체 수리 즉시 입주
● 은행융자됨, 도로간판 설치됨
● 새로 창건을 원하시는 비구니스님, 법사님, 보살님, 재자님께서는 4시이후 답사후에 가격 절충 바람

063)246-8481~2 / 011)650-8481

목어

수양과 교양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
본지 논설위원

우리 나라의 교육 제도는 수양과 교양을 도외시한 채 학생들을 마치 경주마처럼 시험을 향해 달리게 하고 있다.

대학에서도 풍요로운 인격을 위해 교양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과목을 설정하고 있으나, 인간의 존재 의미를 묻거나 세계관 확립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수준을 겨우 웃도는 지식의 나열이다. 고시 또한 고급관리 자격시험이지만 전문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윤리, 철학 등의 교양적 요소는 배제되어 있다.

우리 젊은이들은 제도상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는 교양을 접할 기회가 없다. 이로 인해 이 나라에는 전공 분야 이외의 것에는 관심이 없는 전문바보와 "잘살아보세"의 속물주의가 만연해 있다.

교양교육을 낭비로 여기는 풍조는 사회의 정신풍토를 메마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가령 기술로서의 건축 · 토목에는 전통이나 문화적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다. 합리성만을 추구하는 행정가, 경제인이 몰가치한 과학기술의 성과를 이용할 때 환경문제는 오히려 거추장스럽기조차 할 것이다.

학교에서 구할 수 없는 교양, 넓은 뜻의 정신교육을 위탁할 곳은 종교 외에는 없다. 그러나 종교계 또한 대학입시 철이 오면 때를 노칠세라 별별 이름의 기도회를 열고 있다. 종교계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속물주의에 휩쓸리고 있는 지경이니, 결국 중생은 아집과 미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되고 만다.

본래 불자는 불교적 교양이 문화 수준을 높이며 사회를 정화한다고 믿어 '중생구제'의 사명감을 되새겨 왔다. 기복적인 백일기도 등에 앞서 수양과 교양의 보급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영화로 세대차이 메워

서울노인복지센터(원장 지완)가 노인, 장년, 청(소)년 3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마스터 앤 커맨더' 영화 시사회를 열었다. 11월 18일 서울 강남 학동 시네시티에서 열린 이번 시사회는 영화제작사인 화천공사의 초청에 의해 이뤄졌으며, 3세대 150명이 참여했다.

이번 시사회는 3세대간 대화와 공동의 문화 향유를 통해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장군죽비

전쟁이 남긴 또다른 아픔

미국과의 전쟁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문화재가 마구잡이로 약탈되고 있다. 10월 15일~11월 3일 아프가니스탄 문화유산 파괴 실상을 조사하고 돌아온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카불박물관의 유물 70%가 약탈당했으며, 이 중에는 불교유물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KOICA 조사단은 각국의 고고학자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존은 외면한채 발굴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자 세상보기

김상득
전북대 교수 · 윤리학

존재의 의미 상실한 교육

수학능력 평가시험(수능)이 끝났다. 아니 수능은 끝나지 않았다. 재수생 강세로 고3생들은 벌써 2005년 수능 준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물론 어김없이 금년에도 '작년에 왔던 각설이'처럼 수능 비관 자살은 되풀이되고, 공교육 무용론이 점점 그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능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대장장이 테세우스를 생각나게 한다. 그는 큰 침대와 작은 침대를 만들어 지나가는 행인을 눕힌 다음 그 침대에 맞지 않으면 사지의 돌출된 부분을 잘라내어 침대에 맞추었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신화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죽은 신화가 아니라 21세기 생명공학과 컴퓨터공학의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현실이다.

학생 자신의 자아나 꿈, 적성 혹은 소신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직 수능 점수라는 침대에 맞추어 학생들의 꿈과 적성을 이 사회는 잘라내고 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다. 이 시대의 테세우스인 '수능 점수'는 아예 인간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에릭 프롬은 현대 문명을 비평하면서 "존재냐 소유냐?"를 묻고 있다. 그는 존재가 먼저이고 소유는 그 다음이라고 주장한다. 존재, 즉 사람됨이 먼저이고, 부나 지위 혹은 지식은 그 다음이다. 우리의 교육은 거꾸로 소유가 먼저이고, 존재는 그 다음이다.

아니 교육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그렇고, 부모의 가치관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소유에 의해 존재가 결정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소유의 논리에 따를 경우, 지식이나 부를 소유하지 않는 자는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자살은 소유 교육의 필연적 귀결이다.

백년대계인 교육의 근본 방향이 혁명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자살과 같은 수능 후유증은 예견된 일로 매년 되풀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미래 역시 소망이 없다. 침대에 사람을 맞추어서는 안 되고, 거꾸로 침대를 사람에 맞추어야 한다. 수능에 청소년들을 맞추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수능을 맞추어야 한다. 청소년을 수능의 노예로 만들지 말고, 청소년이 수능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교육의 근본 방향이 소유에서 존재로 바뀌어야 한다. 소유의 교육은 이 시대의 또 하나의 테세우스이다.

맹자의 어머니에게 교육의 지혜를 배우자. 그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공동묘지 근처, 시장 근처 그리고 학교 근처로 3번 이사를 했다. 장례 흉내와 장사꾼 흉내를 내던 맹자가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자 비로소 공부에 전념하여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맹모의 삼천지교에서 자식의 공부를 뒷바라지 한 맹모의 지극정성을 본받아 학원 일번지 강남으로 이사한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맹모삼천지교를 다르게 해석한다. 맹모는 아들로 하여금 죽음을 통해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게 하고, 나아가 장사를 통해 삶의 현장을 체득하게 하기 위해 학교에 앞서 공동묘지와 시장 근처에 삶의 터를 잡은 것이다.

교육에 해당되는 그리스어 '에듀카레'(educare)는 '밖으로 이끌어내다'의 뜻이다. 본래 청정한 자기 성품을 깨달아 일체의 집착과 번뇌로부터 해탈하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이다. 불교 그 자체가 크나큰 교육이다. 교사는 밖에서 새로운 무엇, 즉 지식을 주입시키는 자가 아니라, 학생으로 하여금 이미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개발시키도록 하는 계몽자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내면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드러나지 않는 재능을 마음껏 밖으로 표출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바로 사람됨의 교육이다. 이는 소유의 교육이 아니라 존재의 교육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국립공원 정책진단을 통한 공원내 개발사업의 문제점

생태환경 보전위한 공원법 개정 절실

북한산국립공원 · 수락산 · 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는 1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립공원 정책 진단을 통한 공원내 개발사업의 문제점 검토' 토론회를 개최했다. 50여명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윤주옥 사무국장(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국립공원 정책 부재로 인한 공원 내 대규모 개발사업 분석'을, 엄서호 교수(경기대 관광학과)는 '국립공원 정책 평가-수요자 차원'을, 신영철 교수(대진대 디지털경제학과)는 '국립공원 가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정리=남동우 기자〉

관리시스템 총체적 점검 필요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이념의 부재로부터 출발해 관련법과 제도, 관리 기구 및 비용, 자원 관리 방식 등 전 분야에 걸쳐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국립공원에서는 자연자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미흡해 공원 내 서식 · 분포하는 희귀 동 · 식물 및 외래동 · 식물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적절한 탐방 프로그램 및 탐방객안내소 등 탐방편익시설과 인력이 부족하고, 시설관리 역시 재정비돼야 한다. 국립공원관리체제도 다원화돼 자원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잦은 인사교체와 비전문성이 문제되고 있다.

자연공원법으로 3종류의 자연공원과 사적자원, 해상 · 해안국립공원을 관리하는 등 현 자연공원법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립공원지정 이후 접근도로 개설 및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외에는 공원 내 정비 및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관광 · 위락형 시설 및 단순 통과용 도로 등이 국립공원 내 설치될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법에 남아 있는 여러 개발법적 요소들을 삭제하고 자연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환경 보전 중심으로 자연공원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또한 공원 내 도로 관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공원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이 모색해야 한다.

벌통형 방식으로 환경오염 최소화



엄서호
경기대 교수 관광학과

국립공원 내 지역주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주민관광 사업에 대한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립공원 밖 지역주민들은 삭도(케이블카) 설치 등 국립공원 개발을 요구하고 있고, 국립공원 입구는 난개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 집단시설 지구는 경관훼손은 물론 사업성도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벌통(각종 관광시설)을 기존도시/취락 지역에 위치시키는 벌통형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집단시설 지구 기능을 공원 밖으로 추방시키면 국립공원 내 환경훼손을 최소화 및 생태관광 분위기를 조성을 꾀할 수 있다. 또 국립공원 내 취락지구 자연 친화형 민박시설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주변 도시나 취락지구 관광시설 개발 유도로 개발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성수기 시 거점지역 숙박과 셔틀버스 이용으로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고, 숙박시설 선택 다양성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벌통형 방식을 채택할 경우 난개발과 기존 국립공원 대부분의 경우 집단시설지구 제척 불가능, 주민들의 관광시설 요구 급증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이 경우 완충지역 설정과 신규 지정 국립공원부터 적용, 기존 국립공원 중 집단시설지구 제척가능 지역을 검토, 취락지구내 주민주도형 숙박시설 규모 제한과 개선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북한산 관통보다 우회가 더 비용절감



신영철
대진대 교수 디지털 경제학과

자연환경자원의 총 가치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로 이뤄져 있다. 사용가치는 해당 대상을 직 · 간접적인 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유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이고, 비사용가치는 해당 대상의 직 · 간접적인 이용과 관련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을 말한다.

시공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북한산 관통도로 대신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경우의 비용은 교통혼잡비 1조5천억원에 추가공사비 7천억원 중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발표된 논문 중에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해 북한산 국립공원 보존가치를 추정한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북한산 국립공원을 현재대로 보존하는 것의 가치는 국민 1인당 16,198원(1999년 가격)이었다.(이충기 · 한상열)이 금액대로라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산 국립공원의 보존에 부여하는 가치는 연간 7,300억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비사용가치인 보존가치만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향후 보존가치를 할인율 7.5%로 현재가치화하면 거의 10조에 이르는 금액이 된다.

북한산 관통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산 우회도로가 북한산 관통터널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파동명상제령 :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원격명상제령 :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교재 :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수련일시 : 11月 셋째주, 넷째주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 可, 전화문의 바람)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6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 상담 후 결정


제 232 호
감 사 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173-20
최 영 식
귀하께서는 평소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오셨으며 특히 경찰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제58주년 경찰의날을 맞이하여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권 지

파동명상요법으로 수많은 강력사건(유괴살해,강도, 강간)을 해결하는데 기여도를 인정받아 제58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부산 지방 경찰청장으로 부터 본 감사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노숙자들 농사지어 이웃돕기 3년째

"더 어려운 이웃 도울 수 있어 우린 복받은 사람들이죠"

"직접 농사지은 쌀로 저희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으니 우리는 복 받는 사람들입니다."

11월 12일 일년 동안 땀 흘려 수확한 쌀로 동래구 관내 소년소녀가장, 독거 노인 세대를 도운 부산보현의 집(원장 이기표) 노숙자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나눌 수 있음을 오히려 기뻐하는 노숙자들. '없는 사람 사정은 없는 사람이 안다'는 옛말처럼 실직과 노숙의 아픔이 있었기에 어려운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됐고 나누는 기쁨도 알게 됐다.

노숙자들 5~6명이 윤번제로 돌아가며 3천 평의 논을 고르고, 모내기를 하고 비료를 주며 수확한 쌀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보시한 것은 올해로 3년째다. 실직 노숙자들의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통도사 경내지에서 농사짓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 쌀, 배추 등의 농작물을 이웃에게 보시하는 계기가 됐다. 올해는 수민동, 사직 1동, 명장동을 비롯 총 14개 동에 거주하는 60세대의 어려운 이웃에게 20㎏ 백미 60포대를 전달했다. 벼농사가 풍년이었던 지난해에는 130여 포대까지 보시한 적도 있었지만 올해는 잦은 비로 인한 병충해로 수확이 좋지 않아 60포대에 그쳤다. 이 밖에도 입소자들은 매년 직접 수확한 배추, 무 등으로 김장 김치를 담가 독거 노인 세대와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부산 동래구 60세대에 백미 전달

부산보현의 집에 입소해 있는 실직 노숙자들의 보시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얼마 전 태풍 매미로 집을 잃은 가덕도 장애인들의 집을 짓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태풍 피해 복구 현장 곳곳에서도 맹활약을 펼쳤다. 이 밖에도 매달 부산보현의 집 인근에 있는 황전양로원을 찾아 노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후원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나누면서 살아가니 부자가 된 것 같다"고 밝힌 한 입소자는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은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부산 '보현의 집' 노숙자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직접 수확한 백미 60포대를 트럭에 싣고 있다.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송언합창단이 재해민을 돕기 위해 음악회를 개최했다.

재해민돕기 수행선법가의 밤

교성곡 '심우도' 첫 발표, 수익 - 난방비 등 지원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지원장 혜계) 송언합창단은 11월 8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1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재해민돕기 수행선법가의 밤' 음악회를 개최했다.

재해민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영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창작 교성곡 '심우도'가 처음 발표됐다. 마음의 본성자리를 밝혀가는 불교 수행과정을 10단계로 묘사한 '심우도'는 한마음선원 원장 대행 큰스님의 게송을 박상준씨가 4부 합창 관현악곡으로 작곡한 것이다.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은 이번 공연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 8백96만원을 재해민들에게 난방연료비와 김장김치로 전달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치매노인보호센터 열어

낮시간중 안전하게 보호

개금사회복지관(관장 박용하)는 최근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를 열고 노인복지를 본격화했다. 복지법인 불국토가 2004년 주력사업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선정되자 불국토 산하 복지관인 개금복지관도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한층 더 다양화하기 위해 주간보호센터를 개설한 한 것이다.

경증 치매, 노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낮시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치매노인보호센터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의료서비스, 정서서비스, 취미활동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051)893-5034 천미희 기자

동백갤러리 부산명소로

스님 서화·다기 등 전시

최근 바다의 풍광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카페와 식당으로 유명한 부산 일광의 바닷가에 문을 연 <동백 갤러리>는 경찰공무원 심진택씨가 수집한 스님들의 서화를 선보여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심 거사는 부산 감로사 부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사찰을 방문했다가 보경스님과 인연이 됐고 이후 스님의 마을 상좌가 됐다. 심씨 부부는 "훌륭하신 스님들의 수행력과 가르침을 느낄 수 있는 서화를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바다 내음과 선(禪)의 향기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동백갤러리는 스님들의 서화와 함께 서양화와 조각 다기 등 다양한 소품도 전시하고 있다. (051)727-1953 천미희 기자

미륵암 대웅전 강제이전 再燃

고신대 측, "1년 유예기간 경과" 철거 요구

지난해 11월 고신대에 의해 요사채가 강제 철거되었던 미륵암(주지 혜정스님)의 대웅전 철거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미륵암 사태는 80년 고신대가 미륵암을 포함한 주변 7만 4천평을 매입해 이전한 후 캠퍼스 확장을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미륵암은 74년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맞섰다. 토지매매 계약서만 있을 뿐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던 미륵암은 95년 대법원에서 패소했고 강제 철거당했다. 그 결과 미륵암은 지난해 11월 대웅전을 제외한 요사채와 화장실이 완전히 철거됐다. 이후 미륵암은 남아있는 대웅전에서 예불과 법회를 진행해오며 사실상 종교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최근 고신대측이 '1년간의 철거 유예기간이 지났다'며 자진 철거를 요구하면서 신도들은 또다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륵암의 철거 문제를 둘러싸고 미륵암 철거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남 장로)와 미륵암 비상대책위(위원장 정각 스님)의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양측은 10월 27일과 11월 4일 두 차례 만나 미륵암 철거 문제를 협의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으며 추후 대표자 만남을 통한 대화를 계속할 방침이다.

미륵암 관계자는 "철거가 합법적이겠지만 미륵암이 부지를 산 것 또한 분명하다"며 "종교 재단인 학교가 타종교의 시설물을 강제 철거한다면 종교적 · 도덕적 분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벽화와 감로탱화 속 영산작법을 재현한 '나르바나(열반)' 공연이 창원 성산아트홀 소강당에서 선보였다.

불화·탱화 속 작법…니르바나 공연

김향금 교수, 보살춤·조전춤 등 5가지 선뵈

400~500년 전 그려진 불화와 탱화를 바탕으로 한 전통무용이 무대에 올려져 관심을 끌었다.

경남 창원대학교 무용학과 김향금 교수는 11월 11일 오후 창원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탱화 속의 영산작법을 재현한 '니르바나(열반)'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영산작법이란 제례의식인 49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불교의식으로 석가가 영취산에서 행한 법회 '영산회상'을 재현한 '영산재(靈山齋)'를 말한다.

이날 공연에서는 벽화와 감로탱화에 보이는 승무복장의 보살춤, 하얀 긴수건을 들고 추는 춤, 불자를 들고 추는 조전춤, 등불춤, 시건춤 등 5가지의 무용만 선별하여 선보였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각필악보와 신라의 고문서 '화엄경사경조성기(華嚴經寫經造成記)', 고려시대 불화, 조선시대 감로탱화 속에 있는 의식절차와 복식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어 고려 불교음악과 조선복식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김 교수는 "이번 공연은 한국불교사상의 내적인 힘과 외적인 깨우침을 향한 몸짓이었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진주 장애인종합복지관 27일 개관, 재활사업 추진

진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현종)이 11월 27일 개관식을 갖고 지역 장애인 복지에 앞장서게 된다. 지난 8월 7일 합천 해인사가 진주시로부터 위탁받은 복지관은 상담지도와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재가장애인복지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진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진주시 상대동 일대 1천여 평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919평 규모로 건립됐다. 지상 1층에는 어린이집, 어린이 재활교실로 운영되며 지상 2층은 언어치료실, 심리치료실, 작업치료실 등의 장애인 재활시설로 운영된다. 또 지상 3층에는 컴퓨터교육실, 점자도서관 등이 마련돼 있다.

관장 현종 스님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하겠다"며 "상담, 치료,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전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잠재능력 개발과 장애인 자립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055)763-6677 이동혁 기자

김달진문학제 열려

노인구연대회 등 행사

불교문학계를 대표하는 월하(月下) 김달진(金達鎭.1907~1989년) 문학제가 11월 8일과 9일 경남 진해시 일원에서 열렸다.

올해로 8회 째를 맞는 김달진문학제는 첫날인 8일 태백동 시민회관에서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지역 인사와 문인들의 학창시절 편지글을 모은 옛편지글 전시회와 옛날이야기, 창, 민속무용 등 노인구연대회로 진행됐다.

둘째 날인 9일은 김달진 생가 방문과 월하 백일장이 열렸다. 문인들과 주민들이 소사동에 위치한 김달진 생가를 방문, 추모와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시간을 가진데 이어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일반부로 나눠 시와 시조를 짓는 월하 백일장을 시민회관 광장에서 개최했다.

전국 문인들의 축제이자 학생, 주민들의 축제로 자리잡은 김달진 문학제는 김달진문학상 시상식과 함께 시인 시낭송 페스티벌도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천미희 기자

서울大출신 공학도가 풀어낸 사주의 새로운 개념서

내사주 내가 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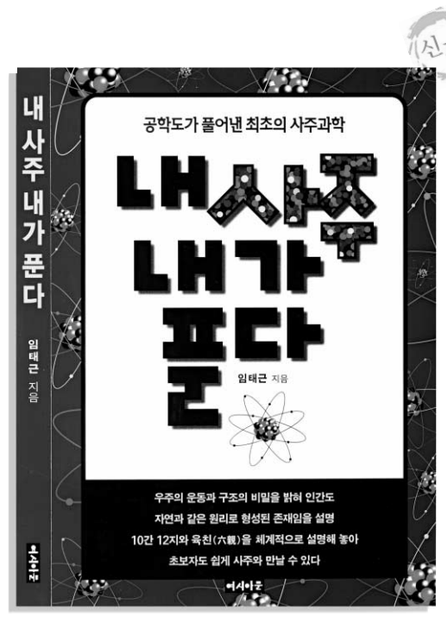
10干 12支는 순환하는 우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 甲木 : 지표를 뚫고 나오는 힘
· 乙木 : 옆으로도 퍼지는 힘
· 丙火 : 밝게 빛나는 광선
· 丁火 : 조용히 타오르는 불
· 戊土 : 광활하고 거친 대지
· 己土 : 부드럽고 낮은 땅
· 庚金 : 거친 원광석
· 辛金 : 정교하게 연단된 연장
· 壬水 : 시원하게 흐르는 물
· 癸水 : 이슬 같은 생명수
· 寅木 : 햇살이 비치는 골짜기 숲
· 卯木 : 꽃이 아름답게 핀 초원
· 辰土 : 바깥은 건조하나 안은 습한 늪지
· 巳火 : 화려하고 번성한 도심지
· 午火 : 불꽃같은 정열의 장소
· 未土 : 문화의 산물을 저장및 중재하는 장소
· 申金 : 물이 샘솟는 구획된 도시
· 酉金 : 결실과 냉철함이 있는 곳
· 戌土 : 낙엽 지고 메마른 땅
· 亥水 : 생명이 숨쉬는 얕은 바다
· 子水 : 고요하고 깊은 바다

- 부시 美 대통령과 남북 정치인 3인의 運은? (실전풀이편에 소개)
- 육친(六親)만 알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밝혀낼 수 있다.

이 책은 자연의 순환하는 관점에서 사주를 분석하고 팽창(木火) 과 수축(金水)의 관점에서 중화용신(中和用神)을 설정하여 독자 스스로 운명을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주는 조부모 부모 본인과 자식의 4代에 걸쳐 진행되는 대하드라마입니다.



임태근 지음 / 46배판 / 336면 / 값 12,000원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2-1521(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http://www.yosiamun.com

광양의 심장 가야산을 살리자

송전탑 설치로 수행환경, 생태계 위협

현불사 고성스님 묵언, 삼보일배 정진



◇현불사 주지 고성스님이 11일 가야산 송전탑 건립 저지를 촉구하며 광양 시내에서 삼보일배 정진을 하고있다.

사찰옆 고압 송전선로 공사로 수행환경이 크게 위협 받고있는 가운데 송전탑 건립 저지를 위한 삼보일배 정진이 매일 열리고있다.

광양 현불사 주지 고성스님은 11월 11일 오전10시 광양 시청앞에서 지역 환경단체와 함께 '가야산 송전탑 건립 저지를 위한 삼보일배 특별법회'를 갖고 가야산공원까지 삼보일배 정진을 했다.

지역스님들과 현불사 신도, 광양만환경개선광양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가한 이날 법회에서 태고종총무원은 성명서를 통해 "광양시민의 생명인 가야산에 고압 송전탑이 설치될 경우 수행과 자연환경 파괴로 죽음의 산으로 변할것이다"라며 광양시민 생명과 현불사 수행환경에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공사중지를 촉구했다.

이에앞서 고성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삼보일보 정진으로 시민들이 가야산 살리기에 함께하기를 기원한다"며 "도와 시, 제철소 관계자들의 참회와 공사 중단때까지 무기한 묵언 · 삼보일배 정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회에 이어 고성스님은 환경단체대표들과 함께 광양 시청 앞에서 송전탑 공사현장인 가야산공원까지 8km에 걸쳐 삼보일배 정진을 했다.

고성스님은 이날 삼보일배 특별법회에 앞서 지난 1일부터 가야산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가야산 지키기'를 발원하며 매일 1000배씩 열흘간 정진해왔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98년부터 부족한 전력을 수전받기위해 송전선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제철소내에 발전소를 건설하여 생산된 전력을 밖으로 송전하기 위해 송전탑을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광양제철소가 건설하는 송전선로는 현불사에서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곳으로 지나가고 있다. 또 환경단체는 29기의 송전탑을 건설하며 가야산을 비롯한 곳곳에 동 · 식물 서식처파괴와 생태계파괴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양= 이준엽 기자

종교편향 조장 순천시의회

송광사 조례 폐지운동 전개

특정종교 성지화 지원 의혹

순천 송광사(주지 현봉)는 11월 10일 본 · 말사 스님 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교구종회를 개최하고, 지난 7월 25일 순천시의회가 공포한 '순천시 종교유적발굴과 성지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남 동부지역 불자연합회소속 20여 신행단체도 13일 순천 동화사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순천시의회 특정종교 편향조례 폐지운동을 적극 전개키로 결의했다.

'순천시 종교유적발굴과 성지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 10조~14조의 성지조성과 보존사업 및 관리운영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종교시설물과 순교지등을 순천시가 성지로 조성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순천시 관내의 모든 종교시설에 각종 관광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 조례가 특정종교 성지화 사업지원과 성지순례 코스 마련을 위해 구상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순천시의회 종교유적발굴과 성지조성 관리위원회에 추천된 2명의 시의원은 모두 특정종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조충훈(순천중앙교회 교도) 순천시장은 1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순천선교기념교회를 건립하는 등 순천시를 순차적으로 기독교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의회 박동수 운영위원장은 13일 송광사를 방문, 문제가 된 조례가 당초 기독교성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박위원장은 "일단 공포된 조례는 시행해야하며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송광사 총무국장 보리스님은 "시의 살림살이를 맡은 시의원들이 없는 조례까지 만들어 혈세를 쓰는것은 있을수 없다"며 "정당한 조치가 이뤄질때까지 타종교및 시민단체, 지역사찰, 불교단체등과 연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김원우 기자

광주, 전남 불교합창예술제 성황



'제7회 광주,전남 불교합창 예술제'가 12일 광주 남도예술회관에서 펼쳐졌다.(사진)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지)가 주최한 이번 합창제에는 무각사, 향림사,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원효사, 백양사, 원각사 증심사 등 7개 불교합창단이 찬불가와 가요를 선보였다. 또 향림사 유치원생의 전래동요와 수화, 문성고 사물패 산울림의 초청공연도 함께 열렸다.

이준엽 기자

천년고찰 월림사 대웅전 낙성식

보성 벽옥산 월림사(주지 지봉)는 11월 18일 오전 10시 대웅전 낙성 및 삼존불.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월림사는 주지 지봉스님이 7년전부터 중창불사를 펼쳐 이번에 25평규모 대웅전을 낙성하고 불상과 탱화를 점안한다.

이준엽 기자

우리 절 우리 신도

"부처님 품속에서 삽니다"

서울 원효사 김명숙보살

"숙제 안 해오면 혼나요!"

10일 서울 옥수동 원효사 신도 김명숙 보살(50)은 이 말부터 한다. 김 보살의 숙제는 한글 <화엄경> 보현행원품 1회 완독, 새벽 108배 참회기도, 매주 일요일 원효법회 강의 예 · 복습….

하지만 불만은 없다. 올 10월 19일, 100일 불공 입재 때 김 보살은 누군가와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저와의 약속이었어요. 제대로 불교를 알고 싶었어요. 막연하기만 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조금씩 몸과 마음으로 다가와요. 뭐랄까. 부분만 보다가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보살의 불교공부는 원효사 주지 청보 스님이 주창한 '생활불교운동'에서 비롯된다. 이름 하여 '자율 숙제'다. 주문은 간단하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를 하라는 것. 그러나 지난해 8월부터 불교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김 보살에게는 어려운 과제였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새벽 108배 참회 정진에서 한글경전 독송 등에 이르기까지 힘겨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무릎을 딱 쳤죠. 사르르 녹아 없어지는 제 업장을 보았던 거죠."

김 보살의 구도열정은 '원효사 리틀 원효'라는 별명에서도 확인된다. 청보 스님은 "김 보살은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단번에 알았다"며 별명이 붙여진 이유를 설명했다.

신도회장 최민정(47) 보살도 한 마디 거들었다. "김 보살이 신도들 사이에 '걸림 없는 보살'로 통해요. 사찰의 허드렛일에서부터 꽃 공양, 종무 일까지 어느 하나 막힘없이 알아서 척척 해내니까요."

이뿐만이 아니다. 김 보살은 가족신행공동체도 일궜다. 남편 민영섭(51) 씨와 딸 지선(27 · 국립국악원 무용단원) 씨는 김 보살의 108배 도반이 됐고, 아들 정식(24 · 군복무중) 씨는 내무반에서 <반야심경>을 입에 달고 지낸다. 온 가족이 부처님의 품속에서 살고 있다.

김철우 기자



◇김명숙 보살이 지난 주 '원효법회'에서 배운 '유심안락도'를 설명하고 있다.

자신과의 약속지키려 불교공부 삼매경

'리틀원효' 걸림없이 닮고 싶어하는 보살



추천의 말

청보스님 원효사 주지

똑 부러집니다. 신행목표가 분명합니다. 신도들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닮고 싶은 보살' 이라고 말입니다. 김 보살의 도반들이 이렇게 말하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한결같은 믿음과 실천. 그야말로 '연꽃보살'입니다. 가족신행도 칭찬할만 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의 작은 불교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김명숙 보살. 정말 원효사의 보배입니다.

한결같은 믿음과 실천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

수신토종오가피 5개 신문 히트상품 선정!

소비자들이 먼저 확인한 우수한 품질, 다시한번 인정받았습니다.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 일간스포츠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한국일보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경향신문 2003 경향히트상품 선정
★ 서울경제신문 2003 서경벤처히트상품 선정
★ 스포츠 굿데이 2003 굿브랜드 대상 선정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는 다릅니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신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농장견학회 및 재배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의 : 저희 수신토종오가피가 유명해지자 원료를 성광수씨로부터 구매해 만들었다고 판매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속지마십시오! 국내최대오가피 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토종오가피원료는 전량 수신토종오가피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5대 히트상품선정기념. 선착순 고객사은대행사!

지금 전화주세요. (02)447-9114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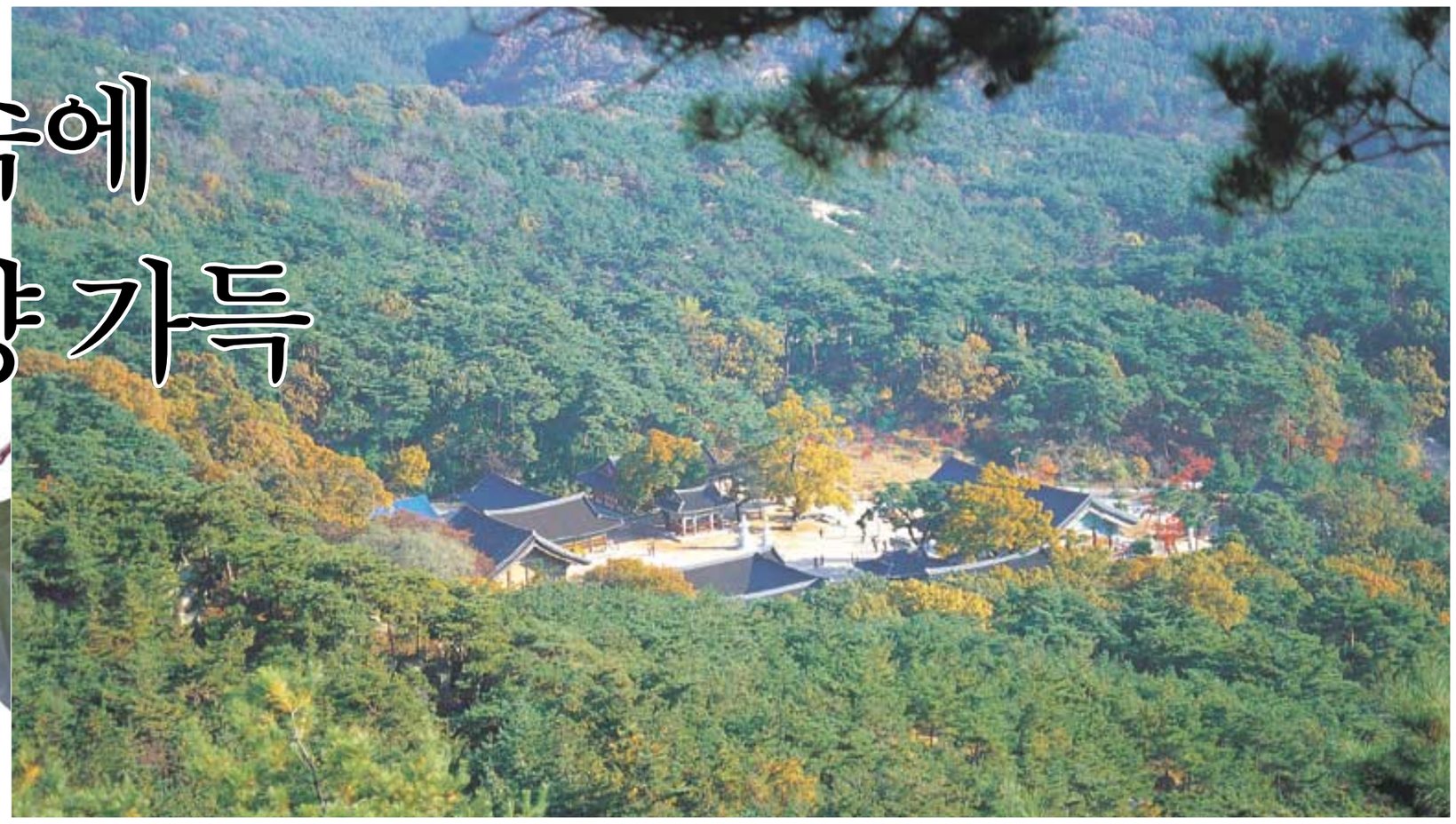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평범함 속에 천년 법향 가득



◇수덕사 전경.



사찰생태연구소 ·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18) 덕숭산 수덕사

예산 덕숭산이 '한국의 명산 100'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도 적지만, 그 사실에 동의하는 이들도 적다. 그것도 그럴 것이 덕숭산은 높지도, 크지도 않은 야산급에 불과한 산이기 때문이다. 흔히 '충남의 소금강'이라고들 하지만, 산이 깊은 것도 계곡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다. 식생 또한 너무 평범해 따로 설명할 특징 같은 것도 없다. 해발 5백 미터도 못되는 이 산이 우리나라 100대 명산으로 꼽힌 이유는 오로지 천년고찰 수덕사를 품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산이 절을 만들고, 절이 산을 만든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재선충 감염으로 소나무 피해 극심

수덕사 들머리는 다른 절에 비해 좀 어수선한 편이다. '일주문 밖이 사바'라는 말을 실감케 해준다.

들머리 솔숲이 재선충에 감염되어 군데군데 병색이 완연하다. 소나무의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은 물과 영양분이 공급되는 도관(導管) 부분을 공격해 소나무를 말라죽게 한다. 재선충은 솔수염하늘소와 같은 매개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지만, 일단 감염되면 1년 안에 나무가 고사하기 때문에 빨리 손을 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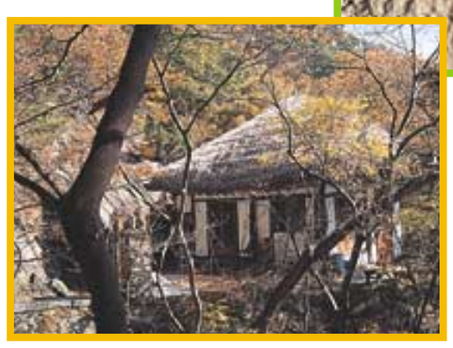
일주문에서 황하정루에 이르는 구간은 근래 새로 조경되었다. 잔디를 깔고 조경수를 심는, 소위 아파트 공원식 조경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절집 조경이라면 어딘가 달라야 하는데, 그게 좀 아쉽다. 수덕사뿐만 아니다. 요즘의 사찰 조경이 다 그런 식이다.

마당에 늙은 느티나무 두 그루와 노송이 자리하고 있다. 석단을 높이려고 흙을 북돋우다보니 나무들 무릎이 땅속에 묻혀버렸다. 그런 푸대접에도 불구하고, 인공물만 서 있는 삭막한 공간을 나무들은 넉넉한 품으로 거두어들이고 있다.

대웅전 두리기둥에 기대어서면 들판과 낮은 산줄기들이 만드는 스카이라인이 눈 아래로 멀리 지나가고 있다. 해발이 불과 3백 미터도 안 되지만, 전망이 시원하고 호방하다. 사람들은 수덕사의 형국을 가리켜, 자좌오향(子坐午向)에 대웅전을 두고, 화국(火局)의 양수(養水)와 장생수(長生水)를 쇠방(衰方)인 정방(丁方)으로 내보내는 명당이라고 한다. 정상에서 내려온 내룡이 토심이 두텁지 못해서 생기가 왕성한 편은 아니지만, 땅의 기운보다는 양기의 흐름이 좋은 향명당(向明堂)이기 때문에 대웅전을 7백 년 동안이나 지켜올 수 있었다고 한다.

덕숭산 지질은 돌이 많은 화산(火山)이다. 그래서 산 이름에 '崇(숭)'자를 넣었다고 한다. 그러나 능선의 흐름을 보면 여성의 부드러운 허리를 연상케 하는 토산(土山)이다. 그래서 대웅전을 굳이 맞배지붕으로 올렸다고 한다.

골짝을 끼고 정혜사로 가는 숲길이 나 있다. 계곡 주변의 식생은 참나무류를 비롯하여 느티나무, 굴피나무, 때죽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고로쇠나무, 산벚나무, 서어나무, 오리나무, 갈매나무, 단풍나무, 누리장나무, 산초나무, 팔배나무, 사람주나무, 참회나무 등이 나타나고 있다.



◇소림초당.

가을날 이 숲 속은 겨울준비에 바쁜 고마로브집게벌레들의 세상이 된다. 고마로브집게벌레 몸통의 반은 붉고, 반은 검정색이다. 몸길이는 2센티미터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집게벌레 가운데 가장 긴 집게를 가지고 있다. 이 집게벌레는 썩은 유기물질을 주로 섭취하는 숲 속의 청소부다.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보면 이따금 암괴(巖塊)를 만난다. 금선동(金仙洞) 암괴 아래 소림초당이 자리하고 있다. 벽초 스님이 스승인 만공 스님을 위해 지은 초당이다. 초당을 지나 향운각 마당에 서면 여태 지나온 숲들이 수덕사 전경과 함께 내려다보인다.



◇작은멋쟁이나비.

정혜사 해우소는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에 접해있다. 비록 벽돌로 쌓긴 했지만, 중층구조에다 재래식 구조로 된 전통해우소이다. 거기서 나오는 걸로 1천 평 채전밭 가꾸고 있다. 그러나 낙엽이나 왕겨 같은 매질(媒質)을 사용하지 않아서 전통해우소라고 부르기엔 조금 뭣하다.

크지않은 산에 많은 암자

정상에 오르면 건너편 이쪽저쪽으로 가야산과 용봉산이 듬직하니 자리하고, 내포평야가 멀리까지 발아래 펼쳐져 있다. 금북정맥은 속리산 일맥이 북진해서 안성 칠장산에서 서진한 산줄기이다. 천안 광덕산-청양 칠갑산-보령 오서산-홍성 일월산-예산 덕숭산-서산 가야산으로 이어졌다.

덕숭산은 산의 규모에 비해 암자를 많이 거느리고 있다. 아래쪽에서부터 환희대, 선수암, 극락암, 견성암 등이 모두 1백년 안에 지은 비구니 승방이다.

견성암은 대지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용적률)이 높은 편이다. 근래에 시멘트로 지은 승방이 경내에 또 들어섰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몇 년간은 시멘트가 내뿜는 독성이 방사마다 그득할 것이다. 비구니처소일수록 시멘트 냄새를 멀리 해야 하는데, 적이 안타깝다.

숲의 단순화와 쓰레기로 사찰환경 훼손 심각

견성암에서 정혜사로 가는 길은 솔향 그윽한 숲길이다. 주변의 참나무들이 소나무를 못 살게 군다는 이유로 군청 산림계 사람들이 나와서 참나무들을 베어내고 있다. 하지만, 숲이 소나무만으로 단순화되었을 때 병충해를 입게 되면 그 숲은 순식간에 전멸되고 만다. 그리고 숲의 단순화는 곤충상과 조류상의 다양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스님들이 낙엽을 쓸어내는 동안 처사님은 경내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거두어 수레에 싣고 온다. 모아놓은 쓰레기들을 분석해보니 생수병과 음료수병, 음료캔과 맥주캔, 일회용 컵, 과자 포장지, 비닐봉투… 등등 거의가 태울 수도 묻을 수도 없는 1회용 화공제품들이다. 쓰레기를 내지 않는 생태사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강화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절에서부터 자판기를 철거하는 선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내에 약수가 있는데도 굳이 '죽은 물'을 팔아야 쓰겠는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http://cafe.daum.net/templeeco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원담대종사 법어집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德崇山法香」 봉정식

경허 · 만공 스님의 선맥을 이은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원담 스님의 생생한 법문을 그대로 녹취해 풀어낸 『德崇山 法香』이 출간되었습니다.

1980년(경신년) 하안거 결제 · 해제 법어 부터 올해 계미년 하안거 해제 법어까지, 방장 스님의 선기어린 활구법문(活句法門)을 느낄 수 있는 상당법어(上堂法語) 87 편이 실려 있습니다.

그동안 덕숭문중의 권속들과 제방의 참선대중들 모두 방장 스님의 법어집 발간을 간절히 바라왔는데 이번에 시절인연이 익어 그 결실을 맺게 돼 봉정식을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제방의 스님들과 불자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스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는 문장마다 선(禪)이요, 구절마다 법(法)이며, 그 뜻이 현묘하고, 문체가 단아하며, 언서(言書)에는 규범이 있으면서도 늘 잔잔한 유수(流水)에 사뿐히 떨어진 꽃잎처럼 자연스러움이 넘칩니다.

제가 오직 스님의 덕화(德化)를 기리어, 문사(文辭)의 졸렬함을 잘 알면서도 골수에 사무친 은혜를 어찌할 바 몰라 송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감히 스님의 법어집(法語集)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 "

법장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의 〈德崇山法香〉 간행사 中

▶일 시 : 불기 2547(2003)년 11월 19일 (음 10. 26) 수요일 오전 10시
▶장 소 : 덕숭총림 수덕사 대웅전 ※ 문의 : 종무소 041)337-6565

대한불교조계종 제 7 교 구 본 사 덕숭총림 수 덕 사

산문밖의 선



내 바다는 '깨침' 위해 출렁댄다

지역문화 운동 펼치는 소설가 한 승 원 씨

"율산마을의 해산토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알다마다, 한승원 선생님 만나뵈러 왔구마잉. 한 20분 달리면 된당께."

유독 뛰어난 문인을 많이 배출해 낸 전남 장흥. 이청준, 이승우, 송기숙 등 걸출한 작가들의 고향인 이곳에 최근 몇 년간 문학과 예술을 찾아 모여드는 사람이 늘고 있다. 연어가 제 난 곳을 향해 회귀하듯, 자신의 근원을 찾아 서울서 귀향한 작가 한승원(65) 씨를 만나기 위해서다. 장흥 바닷가에서 삶과 문학의 팔할을 키운 '그'와 그 근원인 '바다'를 대면하려는 발걸음들이다.

"바다를 보면 자비와 불성, 그리고 우주적 시원까지 모두 다 깨달



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엄(華嚴)의 바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해산토굴 평상에 가부좌를 틀고 앉은 한 씨가 입을 열었다. 두툼한 개량한복을 스친 바닷바람이 풍경을 울리자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차를 내어주며 얘기를 계속했다. 그가 '바닷가 학교의 커리큘럼'에 따라 '바다의 시간과 순리를 공부하는 학생'으로 살아온 지는 벌써 8년째. 장흥의 바닷가 마을 토굴객으로 지내면서 17년 서울 생활에서 담을 수 없었던 '상생'과 '연기'의 화두를 바다를 통해 자유롭게 풀어가고 있노라고 했다. 그가 그러한 세계관으로 구상한 작품들은 현대 '불교 문학'의 흐름 위에 생생히 살아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같은 소설만이 불교문학이라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불교적 소재가 불교문학의 필수조건은 아니죠. 불교문학은 '정제된 영양제'와 같은 것입니다. 삶 속의 진리를 압축해 문학적으로 승화한 영양제 말입니다."

불교문학의 침체를 우려하는 질문을 던지자 한 씨는 "불교가 '습윤(濕潤)'된 작품은 상상 이상으로 많다"고 응수한다. 불교사상의 일반화에 따른 결과다. 불교는 철학, 신화, 생태주의 등 다양한 형태로 인문학에 녹아들었다. 특히 문학자들에게는 경전 읽는 것이 하나의 과제처럼 받아들여져, 많은 작가들이 경전에서 문학적 모티브를 얻고 있다고 한다.

"불교경전은 문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물섬과 같습니다. <백유경> 속의 이야기들은 재래설화처럼 읽히고 있지만 실은 경전이지요. 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작가들의 시에는 경전 어구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작가들이 자기 생각인양 차용해 버리는 데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경전을 공부해 온 사람은 '사상의 습윤'인지 '무차별 모방'인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지요."

필요한 것은 정신이지 외피가 아니라는 한 씨. 그의 말 속에는 절절한 경험이 녹아있다. 그는 젊었을 때만 해도 예수나 부처나 다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에 불상에 경배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탁발나온 스님의 염불소리가 좋아 며칠을 되새기기도, 서라벌 예대 재학 시절 수업을 함께 듣던 스님의 암자에서 몇 달을 기식(寄食)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불교를 가슴에 담을 수 없었다. 실존주의가 팽배했던 시절 불교철학을 논하며 사상적으로도 가까워졌지만, 스스로 불자라 부를 자신은 없었다.

"제자의 실재 이야기인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쓰면서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작품을 쓰는 도중 많이 아팠는데 '이 소설만 쓰고 죽게 해달라'고 빌 정도로 애정이 각별했지요. 이 작품을 제대로 마무리짓고 전 진짜 불자가 됐어요. 부처님 속에서 나를 발견하기 시작했고,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것이 곧 나와의 약속이라 받아들이게 됐지요. 그 과정에서 불경 공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듯합니다. 현재 제 소설 뒤에 응화(應化)처럼 자리 잡고 있는 불교사상은 그 시기를 거치며 견고해 진 것이라 할 수 있지요."

그는 글을 쓸 때도 '똑같은 문장을 똑같은 색깔로 만들면 수 년 내로 도태된다'는 생각으로 날마다 새로운 '지금-여기'를 꿈꾼다. 그래서 과거 본인이 쓴 소설이 정확히 몇 권인지, 작품을 논하는 문객들의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궁금해 하지 않는다. 만조의 바다를 보며 상념에 잠길 때나, '동물의 왕국' 혹은 '6시 내고향'에 온 신경을 쏟아 부을 때도 그의 관심은 늘 '지금 이 순간'이다. 그 때문에 그는 문단 내에서도 배움에 있어 멈추지 않는 열정을 쏟아붓는 작가로 유명하다. 30년 동안 이야기해온 그의 '바다'가 늘 새로울 수 있었던 것도 해양학, 철학, 신화 등을 두루 섭렵한 그의 폭넓은 사고에서 기인한다.

그런 그가 최근에는 문화소외지역인 장흥에서 지역문화운동도 시작했다. 삶 속에 녹아있는 불교를 이야기하며 지역민과 다양한 문화행사 또한 기획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의 문학 현장을 기리기 위해 만든 문학현장비 밖에 없지만, '장흥'을 문화마을로 꽃피우기 위한 지역예술인들의 마음은 각별하다. 모든 성취는 의미있는 발걸음 하나 둘로 이뤄지기에, 앞으로 계속될 그들의 움직임에 쏠린 시선들이 변함없이 기대에 차 있다.

장흥=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바다 통해 상생과 연기의 화두 해석
불교문학은 삶속 진리 압축한 영양제
<아제아제 바라아제> 탈고 후 불교귀의
'똑같은 문장은 도태 된다' 배움의 열정 대단
지역문화운동 꽃피울 날을 기대하며…

부처님 성지 녹야원에 첫 한국불상 봉안

한·인 수교 30년 기념 성도절(12월 30일)에 봉불법회
불자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동참불자 명단 영구복장



'한-인도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마하보디사르트센터는 스리랑카 근대 불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다르마팔라(Dharmapala : 1864~1933)가 조직한 대각회(Mahabodhi Society) 사르나트 지부가 있는 곳으로 이 안에는 무르간다쿠티비하라 사원이 있어 티베트, 스리랑카, 미얀마 등 동남아 불교국가들의 불상이 모셔져 있지만 유독 한국 불상만 없어 성지를 참배한 한국 불자들의 안타까움이 컸었습니다. 이에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성지 복원운동의 일환으로 불상을 점안하고 본격적인 인도불교와의 교류에 앞장서겠다는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특히 이번 점안법회에는 대각회 부회장 등 현지 불교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불교의 발생 성지인 인도와 수교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한-인 수교 30주년'**을 기 념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후 최초로 설법하신 성지 녹야원에 한국전통 양식으로 조성된 불상을 모시는 불사를 독자 여러분을 비롯한 전국 사부대중과 함께 추진합니다.

또한 인도 불교지도자와 한국 참가단이 동참한 가운데 거룩한 **성도절에 불상봉안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 성지순례**도 갖습니다.

부처님 나라 인도와 수교 30주년을 기리는 이번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부처님 성지 녹야원 한국부처님 봉안불사

- **동참금 :** 1구좌 1만원
- 모든 동참자의 명단은 부처님 복장에 영구히 봉안됩니다.
- **접 수 :** 국민은행 006-01-0783-27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

▶ 봉안법회 참가 및 성지순례 행사 프로그램

- **점안법회**
  - **일 시 :** 2003년 12월 30일(성도절)
  - **장 소 :** 마하보디사르트센터(Maha Boddhi Sarnath Center)
  - **법 주 :** 혜총스님(감로사 주지)
- **인도 · 네팔 성지순례**
  - **인솔법사 :** 리선행법사(성지순례 전문가)
  - **일 정 :** 2003년 12월 28일 ~ 1월 7일(10박 11일)
  - **코 스 :** 인도(사르나트(녹야원), 보드가야, 쿠시나가르, 라즈기르, 스라바스티, 바라나시, 아그라, 뉴델리), 네팔(룸비니)
  - **특 전 :** 지역마다 최고급 호텔, 요리사 동행 식사제공, 서울 부산에서 동시 출발

▶ 동참문의 : (02)737-8881
▶ 주 최 : 현대불교신문
▶ 후 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총동문회

릴레이 수행일기 〈上〉



홍치원

법무사

1989년 대한불교선도회(이하 선도회)에 입문하여 참선을 시작한 지 1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참선을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참선에 관한 세간의 관심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던 때로 생각된다. 나의 어릴 적 기억으로는, 불경보다는 선사들의 게송(偈頌)과 같은 것이 마음에 더 끌렸던 것 같다. 물론 그런 것이 게송이라는 것을 안 것은 참선에 입문하고 난 후의 일이다.

그 때는 불교에 관한 서적이 많지 않았고, 설혹 불교 관련 서적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알기 쉽게 설명된 책은 없었고, 그저 한문 일색이었다. 그 동안 줄곧 봐 왔던 불교가 대부분 예불과 기도이다 보니, 자연 종교로서의 불교에 대한 회의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방안을 찾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심오한 뜻을 가진 많은 장경이 만들어진 오랜 역사를 가진 불교의 배경에는 그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조계사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절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작은 암자에 들러 기웃거려 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때마다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불상만이 법당을 찾아 오가는 사람들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혹시나 별다른 방법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라도 만나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에는 항상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다만 절집이 오래된 문화재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대강 읽어보는데 그쳐야 했다.

그러던 중 1980년대 초반 종달 이희익 노사께서 저술하신 <좌선>이란 저서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재가자들에게 좌선을 지도하는 종달 노사를 메스컴에서 볼 수 있었는데, 나는 그 때까지도 좌선이라는 말이 너무 친숙하지 않았던 탓에 그것이 뭘 하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쳤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1989년경, 직장 동료가 재가자에 대한 참선지도를 하는 곳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 대략적인 내용은 가부좌를 하고 단전호흡을 하며, 매주 입실을 통해 화두를 점검을 받는다는 그런 것이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나로서는 전혀 생소한 내용이었

종달 이희익 노사 인연으로 참선입문

무문관 마치고 법사자격 취득 수행지도

으므로 반신반의하며, 직장 동료를 따라 종달 이희익 노사께서 재가자에게 참선을 지도하시던 선도회 선방을 찾게 되었던 것이다.

선방을 들어서자 이미 20여 명이 가부좌를 하고 정연히 앉아 있었다. 그 숙연하고 정연함에 기가 죽어서 총무가 정해준 뒷편 빈자리에 결가부좌를 하고 앉았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 종소리가 울리자, 앞에서부터 앉은 순서대로 입실을 하였는데, 생전 처음 해보는 결가부좌라서 차례가 오기까지 30~40분간 앉아 있는 동안, 발목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참기가 무척 어려웠다. 차례가 되어 입실을 하였더니, 노사께서는 '무자(無字)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없을 무(無)'라고 답하자 노사께서는 "그런 대답은 소학교 학생이나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참선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일러 주셨다.(계속)

"마음을 관하면 곧 여래"

수완스님의 '심념처 수행' 안내

모든 수행의 요체는 마음을 관하는것

언어·문자 의지함 없이 회광반조

"중국 선종의 2조 혜가 스님이 달마 대사를 찾아가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자, 달마 대사는 '그 불편한 마음을 가져오라'고 했지요. 이 순간 혜가 스님이 불편한 마음을 보니 그 마음은 사라지고 본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가 생길 때 즉시 그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는 어느 선사의 말이 아니다. 미얀마 랑군에 있는 쉐우민명상센터에서 몸(身)·느낌(受)·마음(心)·법(法) 등 4념처 가운데 마음을 관찰하는 심념처(心念處) 위주로 수행해 온 수완 스님의 말이다. 북방이든 남방이든, 간화선이든 위빠사나이든 수행의 요체는 마음을 여실하게 보는 공통점에 있음을 암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몸 관찰 위주의 마하시 위빠사나가 유행하는 반면, 쉐우민 센터에서 가르치는 심념처 수행은 아직 생소하다. 그러나 일상에서의 마음 관찰을 강조하는 심념처 수행은 선(禪)의 '회광반조(廻光返照)' 공부와 유사하다. '바깥의 경계에 쏠린 시선을 안으로 돌려 바로 자기 마음 속에 자리한 신령스러운 성품을 보라'는 회광반조는 언어나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내면세계를 회고반성(回顧反省)하는 까닭에, '곧바로 마음을 보고(直指人心)', '자신의 발밑부터 살피라(照顧脚下)'는 말뜻과 다름없다. 이와 관련 수완 스님은 "꿰뚫어보는 것은 화두 공부와 매우 유사하다. 이른바 '(마음을) 보는 자가 여래다'는 말이 공통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출가전 염불과 위빠사나를 병행하며 수행해 온 수완 스님은 늦은 나이로 출가후, 심념처로 득력(得力)한 수행 체험담을 <마음 챙김>(북하우스)이란 책을 통해 소개한 바 있다. 11월 7일, 경북 경산의 한 암자에서 용맹정진하다 오랜만에 출판관계로 상경한 스님을 만나, 마음 관찰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성 꿰뚫어 보는 수행

▲심념처는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한 위빠사나인데요?

"마음 관찰법은 마음에 탐진치가 있는지 없는지, 주의 깊은지 산만한지 등을 살펴보면서 그 본성을 꿰뚫어 보는 수행입니다. 수행 중에 떠오르는 과거의 생각이나 미래의 계획,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등을 실재하는 '나'로 여기기 때문에 고통이 일어납니다. 진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객으로 조건지워진 생각들을 통찰해보면 그 안에 불생불멸의 자리가 있습니다."

무상, 무아, 고 분명히 알아야

▲4념처 중 가장 먼저 무엇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엔 호흡을 관찰하다가 집중력이 생기면 몸 전체를 관합니다. 정신이 산만하고 식욕이 강하며 이성을 갈망하는 이는 몸을, 의심 많고 자존심이 센 이는 느낌을, '나'가 있다는 그릇된 견해를 지닌 이는 마음을, 관찰이 예리한 이는 법을 대상으로 관찰합니다. 수행자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든 오온(五蘊)의 생멸 현상에서 무상(無常)·고(苦)·무아(無我)를 분명히 보고 알 때, 정견과 정사유가 생깁니다."

망상 원인 밝히면 근원 드러나

▲생활 속에서 망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얼른 알아채야 합니다. 방일하지 않으면 망상이 일어나는 낌새를 감지할 수 있죠. 망상이 일어나는 순간, '느낌(受)은 왜 일어나지? 인식(想)은 왜? 형성 작용(行)은? 그리고 의식(識)은 왜 생기지?' 라고 그 원인을 밝히면 근원인 잠재의식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깨어있을때 힘을 길러라

▲스님은 '오매일여(寤寐一如)'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잠자기 바로 직전 깨어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깨어있을 때 수행을 통해 마음의 힘을 길러 망상이나 판단하고 분별하는 마음을 어느정도 정화해야 합니다. 꿈은 낮 동안 겪었던 일에 대한 느낌, 기억, 욕망, 생각 등의 혼합물이기 때문입니다."

識을 봄으로써 지혜 생겨

▲'아는 마음을 다시 보라'거나 '아는 마음을 다시 아는 마음', 또는 '앞의 마음과 뒤의 마음을 보라'란 무슨 뜻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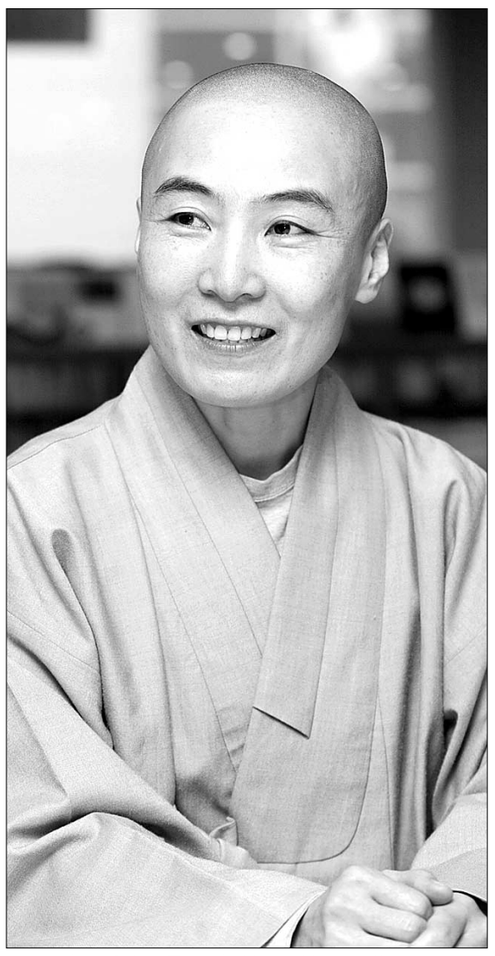
"앞의 아는 마음은 알음알이(識)이고 다시 보는 행위와 다시 아는 마음, 뒤의 마음을 보는 것은 관(觀. Vipasana)으로 비추어 봄을 뜻합니다. 즉 식을 관함으로써 오온의 생멸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죠. 즉 오온의 생멸을 보고 그 원인을 아는 것입니다."

좋고 싫음없는 평등심 유지

▲마음 챙기는 힘이 강해짐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는?

"마음 챙김이 확고하면 망상이 생기지 않아 실상(實相, paramatha)만 보입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을 나로 착각하는 견해와 상견 또는 단견이 사라집니다. 어리석음과 의도적인 행위를 원인으로 태어나서는 갈애에 따른 집착과 업을 형성함으로써 다음 생이 이어지는 12연기가 완전히 이해되면 무엇이든 생멸 현상으로 보게 되어서, 내가 생멸하는 게 아니라 오온이 생멸한다는 관찰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 때는 현상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도 싫어하는 마음도 없는 평등심(upekkha)이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그 앎이 끝나면 괴로움도 끝나서 궁극적인 평화가 찾아옵니다."

김재경 기자



◇국내에서는 드물게 '마음 관법'을 닦는 수완스님.

봉인사 자비수관 및 다도수련



남양주 봉인사(주지 적경, www.bonginsa.net)는 11월 22일 오후 3시부터 28일(6박7일)까지 지운스님(전 송광사 강주·사진)의 자비수관(慈悲手觀) 수련을 실시한다.

자비수관은 '자비의 손'이라는 마음의 손을 이용해 자신의 몸을 관찰하면서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 등 3법인을 체득하는 수행이다. 간화선과 위빠사나로 연결될 수 있는 기초 수행인 자비수관은 위빠사나에 밀교적인 수행이 가미된 것으로 쉽고 빠르게 수행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일상에서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재가자들에게 더욱 적합하다. 또 이 수행법은 원각경, 화엄경 등 경전에서 이론을 정립한 것으로, 이른바 '제3 수행법'과는 다르다.

한편 봉인사는 11월 23일 오후 1시반부터 28일까지(매일 1시간30분씩) 다도(茶道)수련도 실시한다. (031) 574-5585

'네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특강

초기불전연구원(주지 대림, cafe.daum.net/chobul)은 동안거 결제를 맞아 1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네 가지 마음챙기는 공부 특강법회를 총 10회에 걸쳐서 갖는다. 법사는 <네 가지 마음챙기는 공부>의 역자인 각묵스님이다.

상좌부 주석서를 통해서 마음챙기는 공부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공부하는데 초점을 맞춘 이번 특강법회는 상좌부 아비담마가 어떻게 실제 수행과 연결되는 가를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02)391-8579

우곡선원 참선교육 강좌

생활 참선 도량인 우곡선원(원장 장명화)은 11월 18일부터 제16, 17기 참선교육을 실시한다.

서울 우곡선원의 경우 11월 1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8시, 토요일 오후 4시부터 각각 2시간 씩 진행되며 △실상관법 △좌선과 호흡 △좌선실수 △수행체계 요론 △무심삼매 등을 주제로 장명화 선원장 등이 지도한다. (02)2055-3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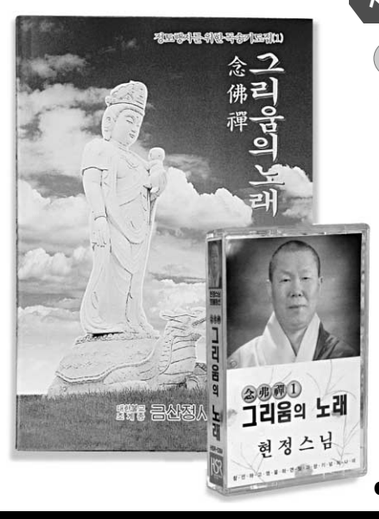
한편 부산 우곡선원의 참선교육은 11월 25일부터 2주간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동일하다. (051)740-6288

현정 스님의 우리말 염불참선

그리움의 노래

그리움의 노래 3,692글자 + 선근인연연가 824글자 + 부모은중가 996글자 + 불전참회가 623글자 + 회향산회가 752글자를 모두 합해 6,887글자로 한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분당 125글자를 염불했습니다. 55분 동안 장엄하고 아름다운 염불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한권의 책 6,887글자는 모두 염불테이프에 녹음되었습니다. 그리움의 노래는 이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법문! 이와 같이 신명나는 염불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이 법을 전하세요 /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

● 앞면 : 그리움의 노래 -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처의 세계가 어떤곳인가를 알게하고 염불참선의 진미를 들려줍니다.

● 뒷면 : (1)선근인연가 - 민족과 국가의 인연에서부터 고향. 이웃 가족의 인연이 맺어지기까지 인연의 고리를 밝혀주는 노래입니다.

(2)부모은중가 - 부모! 오늘의 우리들은 그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식이면 눈물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절절한 은혜의 노래

(3)불전참회가 - 참회.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노래합니다.

(4)회향산회가 - 참아라! 참아라! 그리고 또 참아라! 부처님은 왜 우리들에게 그토록 인욕을 당부하셨을까요? 들어보면 알게됩니다.

● 책+테이프 = 5천원 / 입금온라인 : 우체국 501023-01-000379(금산정사)

※ 단체주문환영. 법보시 하실 분은 주소 알려주시면 직접 우송

신청전화 (061)843-8822 금 산 정 사

" 1가정 1컴퓨터 시대" "전 국민 네티즌 시대"

귀사의 홈페이지로 승부를 걸어 보세요

잘 꾸며진 홈페이지하나만 있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발전합니다. 지금껏 홈페이지제작을 망설여 오셨다면....

(주)아이코스솔루션과 상담하십시오.

■ 컴퓨터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 컴퓨터를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 별도의 인건비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 적은 투자로 엄청난 홍보가 시작됩니다.

고 품격의 홈페이지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제작진은 최저 60만원 부터 500만원까지 다양한 형태의 홈페이지를 귀사의 기획의도에 가장 알맞은 맞춤형 제작을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서버 대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아이코스솔루션은 서버 임대사와 제휴를 통해 웹 호스팅 기초비용을 월 5,500원(리눅스) 월 11,000원(NT)부터 제공해 드리며 할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홍보 기획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사업홍보물 기획은 전문가에게 맡겨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코스솔루션은 최상의 기획전문가를 통해 페이지당 기본 50,000원 부터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티즌의 마음을 여는 홈페이지 기획, 제작 전문업체

㈜아이코스솔루션 http://www.eyecos.com

☎ 031)836-0992 FAX : 031)836-0993 E-Mail : eyecos@eyecos.com

우리의 결제는 안거스님들 '외호'

바라밀현장

금강선림회 고불식


◇금강선림회 김일심행 회장이 8일 해인사 선원에서 대중공양을 위한 보시금을 선각스님에게 전달하고 있다.

해인사, 동화사 선원 대중공양
신명다해 수행 뒷바라지 다짐
"간화선 중흥에 밑거름 될 것"

11월 8일 오후, 가을비가 합천 가야산을 물들인 단풍을 적시며 산사로 내리고 있는 동안, 해인사 대웅전은 방장 스님의 2003년 동안거 결제 법어를 듣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어느새 해인총림 방장인 법전(조계종 종정) 스님의 결제 법어를 기다리는 스님들로 대웅전은 가득 찼고,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웅전 처마 밑까지 대중들이 들어찼다.

이들 틈에는 이른 새벽 서울에서 출발해 해인사로 향한 금강선림회(회장 김일심행, 46) 회원들도 자리를 잡았다. 이날 결제하는 해인사 선원 스님들에게 대중공양을 올리기 위해 빗 길을 한달음에 달려온 금강선림회 회원들은 긴 여정의 피로를 잊은 듯, 간절하게 두 손을 모았다. 법좌에 오른 법전 스님은 세 번 주장자를 내리친 후 법문을 시작했다.

"금우(金牛) 화상이 항상 공양 때가 되면 밥을 들고서 큰방 앞에 가서 춤을 추고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납자들이여! 밥을 먹으러 오라.' 금우 스님이 손수 밥을 짓고 춤을 추면서 사람들에게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한 뜻이 참으로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이번 철의 결제대중은 정진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발우를 펴고 공양하면서도 늘상 이 화두를 놓치지 말고 항상 참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문이 끝났건만 법전 스님의 '화두 놓치지 말라'는 간곡한 당부는 마음에 고스란히 남았다. 촉촉히 젖은 낙엽을 밟으며 해인사 선원에 오르는 동안 수좌스님들의 수행 뒷바라지를 위해 결성된 금강선림회 회원들의 마음은 남달랐다. 외부인은 함부로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선원을 금강선림회 회주인 선각스님의 안내를 받으며 돌아보는 동안, 회원들은 90일 동안 치열하게 정진할 스님들을 그려보았다. 서너 시간 뒤면 죽비 소리와 함께 생사를 잊은 치열한 정진이 이어질 선원에서 삼배를 올리고 나온 회원들의 표정이 좀 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삼생의 업이 멸한다. 오늘 선원을 돌아보니 일념으로 정진하시는 스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새로워지고 불자로서 눈밝고 청정한 스님들께 공양 올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환희심에 가득 찬 회원들을 지켜보던 김일심행 회장은 "선원 스님들과 생사를 같이한다는 마음으로 신명을 다해 수행을 뒷바라지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조계종 선방 수좌스님들의 정진을 후원하기 위해 지난 6월 결성된 금강선림회는 이날 처음으로 해인사와 동화사 선원을 찾아 대중공양을 올리는 것으로 고불식을 대신했다.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 의원, 전국의 CEO를 비롯 이미 100여명이 회원으로 동참할 정도로 간화선을 중흥시키고 선원을 외호하겠다는 금강선림회의 취지는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해인사 선원에 대중공양을 올린 회원들은 해인사 도량과 해인사성보박물관을 돌아본 뒤 다음날 새벽, 법전스님께 화두를 받고 재가자 수행에 관한 법문을 들었다. 다음 날 동화사 선원 대중공양까지 회향한 김 회장은 "전국 91개의 선원을 한 곳도 빠짐없이 후원할 계획"이라며 "금강선림회의 발원으로 간화선이 중흥되고 나아가 한국 불교가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스님들에 대한 불신으로 승가 전체가 폄하되고 있는 요즘, 금강선림회의 발원은 승가 내외의 선풍(禪風)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스스로 화두를 참구하는 재가 수행자로서, 또 수행승을 외호하는 호법신장으로서 정진하겠다는 금강선림회의 활동에 출 · 재가 선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인사=천미희 기자

쿵더쿵~ 선행은 소리없이

대구남구종합복지관 '쇠소리 풍물 자원봉사단'


◇쇠소리 풍물 자원봉사단이 지역의 어르신을 위해 풍물공연을 벌이고 있다.

소리있는 풍물놀이로 소리없는 선행을 실천해온 31명의 봉사단이 있다. 대구남구종합복지관의 '쇠소리 풍물자원봉사단(단장 김하태)'이 바로 그들. 봉사단은 99년 창단된 이래 3년이 넘도록 불우이웃에게 사랑의 소리를 전하며 꾸준한 '풍물봉사'를 펼쳐왔다.

대창 양로원등 위문공연
지역문화행사에도 동참

이들은 풍물모임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비정기적 공연봉사를 벌이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추위를 녹여줄 사랑의 소리를 전하고 싶어서" 이 같은 봉사대를 결성하게 됐다. 매주 화 · 금요일 2시간에 이르는 강도높은 전문교육을 받으며 실력을 쌓아온 풍물자원봉사단은 '합천원폭피해복지관', 고령 사할린동포들이 거주하는 '대창양로원', 가톨릭 치매센터 등 4곳에서 정기 위문공연을 벌여왔다. 또한 수시로 남구청행사, 달구벌 축제행사, 초파일행사, 지하철 문화행사 등에도 적극 참여해 지역문화행사에 동참하고 있다.

풍물봉사만이 아니다. 이들은 남구복지관에서 밑반찬 만들기 및 급식봉사에도 매주 2회 이상 참여한다. 김하태(58) 봉사대 단장은 "어려운 이웃을 소리와 땀방울로 어루만지는 것도 바라밀실천의 한 방편일 것"이라며 "봉사를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053)476-7700

강신재 기자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타타오 스님 (下)

여성불자 사회봉사 기회 제공

태국의 사원들은 남성과 소년들을 위해서는 종교적, 현실적인 교육을 시키고 은퇴후에도 귀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하지만, 여성 불자들에게는 의지할 수행처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여성 수행자들은 그들만의 공동체인 사원에서 여성 불자들을 교육하거나, 여성들의 가정문제나 개인적인 고민들을 상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공간을 원했다. 비구니가 사회 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기도 했기에, 타타오 스님이 건립한 송다르마 카리야니 사원에서는 이러한 요구들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여성 불자들이 사회 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서, 오랜 불교국가인 태국도 더이상 외면할 수 만은 없었다.

그러나 대다수 태국 비구 스님들은 아직도 비구니 교단이 성립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타타오 스님이 엷은 황색 법복을 입고 여성 불자들을 위한 사원을 열었을 때, 비구 교단에게 돌아가야 할 특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교단과 시 당국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적도 있다. 태국 교단의 최고지도부인 장로회의의 조사에 의해 그녀의 무죄가 입증되고 난 이후에야, 정부와의 갈등이 수그러들 정도였다.


◇타타오 스님

사원 건립해 교육·상담 공간 활용
비구교단 특권침해 이유로 비난 받기도

하지만 타타오 스님이 중국(대만) 법계의 비구니계를 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교단은 여전히 그녀의 수계증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녀는 지금도 상좌부 비구니가 아닌 중국 불교의 비구니로 남아있을 수 밖에 없었다.

태국의 교단은 수직구조로 조직되어 있으며, 주로 정부의 감독하에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멀지 않아 태국 불교의 남녀 평등은 어느 정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 불자에 대한 차별이 적지 않음에도 태국의 일부 학식있는 소장파 비구 스님들은 여성 불자와 비구니 교단을 향한 낡고 부정적인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타타오 스님은 "비구니 문제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소장파 비구 스님들이 원로회의 석상에 앉게 되는 그날이, 태국 비구니 교단이 성립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고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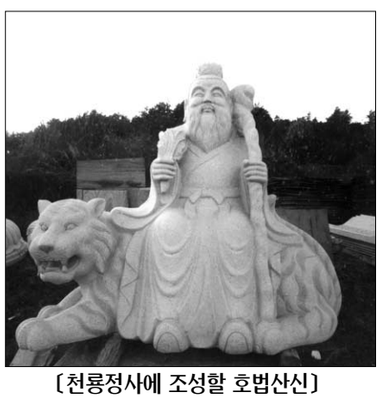
방콕 탐마사트 대학 카빌싱 교수가 발행하는 <국제 여성 불자 운동 회보>도 이와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비구니 교단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재가자들을 설득하여 비구니라는 관념을 받아들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태국의 여성들이 중국(대만)의 법계를 받고 나서 청정한 실천을 통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다."

오늘날 태국에는 비구니 대신 '마에 지(Mae Ji)'라는 재가 여성 수행자들이 존재한다. 사원 내에 거주하면서 흰색 법복을 입고 삭발한 이 여성 불자들은 독실한 재가자들로서, 10계 중 5계나 8계를 스스로 수지하고 출가자와 재가자의 교량역할을 하고 있다. 1만여명에 달하는 '마에 지'들은 스리랑카의 진보적 여성 불자들이 조직한 '다사 실 마타보(10계를 지키는 여성 교단)'와는 달리, 아직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좌부 불교의 여성 불자들이 사미니계 이상의 비구니계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불교의 비구니로부터 계를 받아야 한다. 태국을 비롯한 상좌부 불교의 비구교단은 비구니 교단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내외의 압력을 받고 있지만, 소승의 율장을 따르는 그들에게는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김재경 기자

팔공산 호법산신 조성 권선문


〔천룡정사에 조성할 호법산신〕

귀의 삼보하옵고

시방삼세 부처님과 모든 중생들이 한마음으로 기뻐하는 계절에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천룡정사**에서는 팔공산 중턱에 위치한 기도도량이자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전법도량**으로 거듭나고 **국태민안**과 **만중생**의 안녕을 위하여 팔공산 **대석조 산신님** 조성의 **대발원**을 세웠습니다.

산신 신앙은 우리민족 고유의 신앙으로 **불교**에서는 **불법**을 **수호**하고 **대중**들에게 **복록**을 전하는 **호법신장** 중에 한분이십니다.

청신사. 청신녀. 여러분, 이 **천년불사**에 지대하신 원호와 물심양면의 **위법정신**을 바라며 그 **인연공덕**으로 **재수대길 신병쾌차 무병장수**는 물론 발원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원 합니다.

국내최대 호상 4m50cm(15尺) 산신 4m 80cm 원석으로 조성
(사찰매장 운영 하실 화주보살모십니다)

- **산신공덕비동참 : 30만원**
- **동참계좌 : 농협 751070-52-055271** ● **예금주 : 장기홍**
- **문 의 : 053)986-1355 / 전송 053)986-1356 / 휴대폰 017-533-1356**

※ 동참자는 천년불사 공덕비 세워드림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59번지

팔공산 천룡정사 주지 **지덕** 합장

교송 정명주 스님의 **佛氣 달마도**

시방삼세에 늘 나투하고 계시는
부처님의 여여한 모습

- 세계 최초로 교송 정명주 스님께서 친견한 시무상주 시방불 사진입니다.

佛心天地海風

가정에도 사무실에도 사업장에도 喬松 · 鄕 · 銘 · 主 스님의 견여래 사진과 男 · 女 달마도를 걸어보세요.
온갖액운 근심걱정 사라지고 기쁨과 행운이 펑펑 솟는 답니다.

- 佛 心 : 부처님 가르침이란
- 天 : 높거라 ● 地 : 깊거라 ● 海 : 넓거라 ● 風 : 바람이려니


장소 : 청송주왕산
시간 : 1998년도 AM 9시경
규격 : 가로 51㎝ x 세로 66㎝
가격 : 100,000 원


규격 : 가로 51㎝ x 세로 66㎝
가격 : 100,000 원


규격 : 가로 51㎝ x 세로 73㎝
가격 : 100,000 원

귀의 삼보하옵고
교송 스님께서 수많은 달마도를 접하신바 사나운 기운이 솟아남을 감지하시고 그원인을 찾던중 달마에게도 짝이 있음을 알아 탄생시킨 세계최초의 女子달마도와 관음 달마도는 주문후 3,4일의 시일이 걸릴수 있음을 참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경남창원 명주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입금계좌 : 농 협 821146-52-038830 〔예금주 : 정지완〕
■연 락 처 : 055-275-1372 / 055-262-0928 ■휴대폰 : 019-574-0928 교송 합장

경남 창원시 중앙동 58-9번지

한국대선불교조계종 명 주 사 한글홈페이지 : 명주사



비슬지라 거사의 법문

불탑 공양은 법신 섬기고 있음을 의미

"광대한 지혜로 시방의 일체법문 포섭"

선재동자는 다시 남쪽의 선도(善度)라고 하는 성에 있는 비슬지라 거사를 찾아 나섰다. 그는 항상 전단좌 불탑(佛塔)에 공양하고 있는 사람이다. 마침내 선도성에 이르러 거사의 집을 찾아간 선재동자는 거사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나서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거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이 '열반의 경계에 들지 않음'이다. 나는 이렇게 여래가 이미 열반에 들었다거나 이렇게 여래가 지금 열반에 든다거나 이렇게 여래가 장차 열반에 들리라거나 하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노라. 나는 시방 모든 세계의 부처님 여래들이 필경에 열반에 드는 이가 없는 줄을 알고 있는데, 다만 중생을 조복시키기 위하여 일부러 보이는 것은 예외가 될 것이다.

선남자여, 내가 전단좌 여래의 탑 문을 열 때에 삼매를 얻었으니 이름이 불종무진(佛種無盡)이다. 나는 생각마다 이 삼매에 들고, 생각마다 모든 부처님들의 한량없이 훌륭한 일을 안다."

선재동자가 물었다.

"이 삼매는 그 경계가 어떠합니까."

비슬지라 거사가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내가 이 삼매에 들고는 차례 차례 이 세계의 부처님들을 보았으니, 이른바 가섭불 · 구나함모니불 · 구류손불 · 시기불 · 비바시불 등이며 잠깐 동안에 백 부처님을 보고 천 부처님을 보고, 백천 부처님을 보고, 내지 불가설 불가설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들을 차례로 다 본다.

또한 저 부처님들이 처음으로 마음을 내고 선근을 심고 훌륭한 신통을 얻고 큰 원을 성취하고 묘한 행을 닦고 바라밀다를 구족하며,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서 청정한 법의 지혜를 얻고 마군들을 항복받고 정등각을 이루어 국토가 청정하고 대중이 둘러싸고 있음을 본다.

나는 그 부처님들이 큰 광명을 놓으며 묘한 법륜을 굴리며 신통으로 변화하는 갖가지 차별을 다 지니고 다 기억하고 살펴보고 분별하여 나타낸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보살들이 얻는 열반의 경계에 들지 않는 해탈을 얻었을 뿐이다."

비슬지라 거사가 설하고 있는 '보살들이 얻는 열반의 경계에 들지 않는 해탈'의 법문은 법신(法身)은 상주(常住)한다고 하는 신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불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여 모신 곳이다. 불탑을 공양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육신(肉身)을 가졌던 역사상의 석존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그는 이미 부처님은 결코 열반에 드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영원불멸한 부처님의 법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의 본질은 결코 어떠어떠한 형상을 지닌 특정의 인물이 아니라 영원불멸의 법이다. 부처님이란 바로 이 법을 깨달은 지혜인 것이다. 육신은 멸해도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불멸의 가르침으로서 인간생존의 진정한 도(道)로써 살아있는 것이다.

거사가 불탑의 문을 열었을 때에 '부처님의 종성(種姓, 家系 또는 系譜)이 다함이 없다[佛種無盡]고 하는 삼매'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법신이 상주불멸임을 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불탑 속에는 무량하고 무변한 여러가지 훌륭하고 미묘한 법이 빛나고 있다. 그러므로 거사는 순간마다 이 삼매에 들어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훌륭한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거사는 시방의 불가설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들의 모습과 그 부처님들이 처음 발심하여 선근을 심고 묘한 행을 닦고 마군들을 항복받고 정등각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청정한 불국토의 광경이나 중생을 교화하는 모양도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거사는 일체의 부처님을 현재에서 보고, 그 부처님들이 설하는 일체의 법을 모두 듣고 기억하고 수지해서 마음에서 잊어버리는 일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부처님들이 큰 광명을 놓으며 묘한 법륜을 굴리고, 갖가지 신통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분별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다.

거사가 살고 있는 성의 명칭이 선도(善度)인 것은 거사가 항상 법신불을 공양하여 자신은 물론 다른 중생들을 잘 제도해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사의 이름이 '비슬지라(法을 포섭한다는 의미)'인 것은 그의 지혜가 광대해서 시방의 일체 법문을 포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세간의 지혜로써 세속에 머무르면서 자비를 행하여 방편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거사의 보살행은 항상 법신불을 공양하는 데에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부처님을 출현시킬 수 있는 화엄의 보살행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선의 세계 ⑱

견성성불-6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말은 세상과 인간의 온갖 문제에 대해서 그 궁극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개인의 마음가짐에서 찾는 선종의 기본 입장을 단적으로 표현해 준다.

하기는 이것은 선종에서 새롭게 개발한 입장은 아니고, 워낙에 불교의 기본 입장이다. 불교의 시각에서는,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고 그 해결책도 우리 자신에게 있다.

흔히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로 꼽는 사성제(四聖諦)에도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다. 세상살이가 모두 근본적으로 괴로움인데(苦諦),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하든 괴로운 일은 피하고 즐거운 일만 누리려고 발버둥 친다. 그 발버둥이 번뇌이다. 그런 헛된 발버둥을 어지럽게 쳐대는 것은 탐욕 때문이다. '나'를 즐겁게, 편안하게, 영광되게 하고 싶어서 안달하기 때문이다(集諦). '나'를 붙들고 사는 한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안고 태어났다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생사의 쳇바퀴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 '나'라는 것이 허상이며 즐거움, 편안함, 영광됨이 다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바르게 살면(道諦) 그 쳇바퀴를 벗어나 괴로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滅諦).

그러니까 세상을 괴로움의 바다로 만드는 것은 저기 높은 하늘 위 어디에 있는 조물주도 아니고, 살인, 강도, 도둑, 사기꾼 등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나 아까운 사람 병들어 죽게 하여 애달프게 하는 세균 같은 것만도 아니요, 가뭄이나 홍수, 태풍 등 이른바 천재지변도 아니고, 결국 나 자신이라는 얘기이다. 내가 세상의 진상, 즉 무아, 무상의 진상을 모르고 '나'(我)의 '영속적인'(常) 즐거움과 편안함과 영광됨을 붙들려고 발버둥 치는 행태가 그대로 괴로움의 바다를 연출한다. 따라서 세상이 괴로움의 바다인 그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나밖에 없다. 우선 말초적인 즐거움에 속지 말고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괴로움임을 깨닫고, 나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실상은 무상하며 무아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상살이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데 개인의 마음가짐에 관심의 초점을 두는 것은 불교뿐만 아니라 고전종교와 고전사상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여기에서 고전종교와 고전사상이라 함은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Karl Jaspers, 1883-1969)가 말한 이른바 축(軸)의 시대(axial age)에 중국, 인도와 그리스, 로마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상과 종교를 말한다. 축의 시대란 기원전 8세기에서 2세기까지 즈음을 가리키는데, 서양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동양의 석가모니와 공자, 노자를 비롯한 여러 사상가들이 모두 이 시대에 일제히 태어났다. 현재까지 인류가 가진 제반 사상과 종교의 중요 가치관들은 모두 이들 축의 시대 인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적어도 사상과 종교에서는 그 뒤로 아직까지 그만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선종에서 말하는 '직지인심 견성성불'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사상이다. 동서양 고전종교와 고전사상을 싸잡아서 이야기했으니, '너 자신을 알라'는 서양 쪽의 경구도 떠오를 것이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神殿) 현관 기둥에 새겨진 구절이라는데, 흔히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잘못 알려졌다. 물론 소크라테스도 이 격언을 언급하였다. 그는 인간의 지혜는 신에 비하면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전제 하에,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의 무지(無知)를 아는 엄격한 철학적 반성이 중요하다고 하여 이 격언을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것이다.

무지 깨닫는 철저한 반성이 중요

<윤원철 서울대학교 교수 · 종교학>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21>



공감과 수용(Ⅱ)

예전에 서해 교전으로 아들을 잃은 유족에 대한 기사를 읽다가 나도 모르게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이 느껴져 눈물을 흘렸다. 그 기사에는 유족이 소리죽여 오열하면서 역시 해군 예비역으로 퇴임한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었다'라고 단 한마디만 했다고 간략히 나와 있었고, 그 간단한 한마디에 나는 울고 말았다. '아들이었다'라는 말에서 과거형을 나타내는 그 '었'의 무게를 아는 자, 과연 얼마나 될까? 나는 그가 사망한 아들에 대하여 '여전히 내 가슴 속에 자랑스러운 아들이다'라고 하였다면 전혀 울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가슴 속에서 그의 아들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기에.

결국 내가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육신을 지닌 아들이 살아 있느냐 죽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식이라는 집착을 놓아 과거형으로 말 할 수 있기까지 우리가 느껴야 할 고통인 것이다. 그 고통이라는 느낌이나 감정은 분명 일어났다가 꺼지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기에 허망한 것이다. 그러나 허망하다는 것이 결코 절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니 어쩌면 그만큼 절절하기에 그 허망함을 알아차리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 절절함이 깊을수록 그 집착의 뿌리 깊음을 알 수 있기에.

그러나 그것은 알아차린 자의 몫일 뿐, 과연 소위 마음공부를 한다는 우리는 마음 아픈 이들의 그 절절한 고통에 대하여 얼마나 공감하면서 그들과 함께 고민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같이 손가락을 잘렸다고 조폭의 단결을 위한 절단과 식솔의 생계를 담당하는 노동자의 절단에 의한 고통의 절절함이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마음공부를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개체로서의 단절을 절감해야 한다. 아무리 내가 당신을 공감한다고 생각해도 결코 나는 네가 될 수 없고 너는 내가 될 수 없음에, 내가 너의 눈물을 닦을 수 없음이요, 네가 나의 눈물을 닦을 수 없음이라.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란 그러한 고통의 허망함을 알아 그 고통을 놓으라고 할 수 밖에. 그러나 고통의 절절함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그 절절함이 허망하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소귀에 경 읽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한 나무에서 뿌리와 가지는 한 몸이요, 가지와 가지도 역시 한 나무의 한 몸이라. 그러나 뿌리를 자르면 가지도 죽지만, 가지를 잘라도 다른 가지는 태평하니 여기에 한 몸이면서 한 몸이 아닌 가지의 슬픔이 있다.

고통 주관적이기에 공유할 수 없는것

"마음공부로 개체의 단절 느껴보자"

그렇기에 참선 마음공부의 출발점은 '나는 누구인가'이지만, 이것이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허망한 고통과 슬픔이 난무하는 세속의 현실 속에서 풀어가기 위해서는 물어야 할 것은 나는 누구인가보다는 '너는 누구인가'인 것이다.

그러나 이때 너는 누구냐고 묻는 자에게 또한 우리는 말해야 한다. 네가 나를 아느냐고. 마음공부를 통해, 평등심을 통해 타인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공감을 할 수 있다면 그 마음공부는 개체에 대한 단절을 절절히 느끼게 된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녹음테이프로 공부하는
太極四柱가 나왔다
(사주배우기가 너무 쉬워졌다)

중국 命理學을 완전 압도하는 새로운 太極四柱가 나왔다.
太極四柱는 이론이 간단명료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속성으로 완성하며 자신있게 개업할수 있다.
中國四柱인 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끝이없고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太極四柱는 배우기가 매우 쉽고 자상하며 간단명료해서 구체적이고 논리가 정연함으로서 차분하고 능소 능대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생생하다.
누구나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실례를 들어 흥미 진진하게 설명하므로서 질문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녹음테이프를 하루 한시간씩 독학으로 2개월이면 완성하고 인간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20여년간 강의하고 연구개발한 太極四柱는 오판과 실수가 없다. 中國命理學과 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안내서 무료 배부)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고 전화하면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테이프(14개)와 교재 代金 45만원
▶농협 : 100080-56-022361 (손선영)
※ 스님 및 포교사 특별할인 (30만원)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中央會
(053) 324-2468 / 326-4585
釜山支部 : (055) 384 - 2303 大邱支部 : (053) 641 - 2334
龜尾支部 : (054) 465 - 2642 慶南支部 : 016 - 274 - 3170
慶北支部 : (054) 553 - 5145

당 뇨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당치 발란스
(糖治) BALANCE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현직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학적 검증을 거쳐 개발된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에 맞춘 혈당강하 식품입니다.
▶당치 발란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7일~15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1개월분 180,000원

개발자(김종연 교수) 약력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주임교수
-영남대학교 기초의학연구소 소장
-영남대학교 비만·당뇨 선도연구센터 센터장
현재 역임중

- 당치발란스의 임상실험 -
당부하검사와 같은 개념으로 200그램의 탄수화물 식이 부하 후 2시간까지의 최고 혈당치가 160mg/dl 이상인 건강인 21명 중 90%인 19명에서 혈당강하 효과가 관찰되었으며, 평균 혈당 감소치는 29mg/dl이었다. 최고 혈당치 120 mg/dl 이하인 실험대상에서는 혈당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주)아미노젠
주문 및 무료상담전화 080-558-6633

능인선원에서
행자님을 모십니다

" 기도하시면서 대학원 진학을 원하시는 스님들 모십니다 "

● 도심 불교 포교의 대명사 능인선원, 국녕사, 등룡사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발 맞춰 함께 정진하실 행자님을 모십니다.
큰 뜻을 머금고 자신을 갈고 닦아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행자님들을 모셔서 새시대를 열어가는 참된 수행자와 전법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참수행에 큰 뜻을 머금은 행자님들의 많은 지원 기대합니다.
소정의 수행기간이 끝난 후 자신의 원력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시거나 대학원등에 진학하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포교를 원하시거나 외국진출에 뜻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자신의 역량에 따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 이미 스님이 되신 분들 가운데도 포교를 원하시거나 대학원에 다니시는 분이 계시면 함께 모시고 열심히 기도 정진하는 가운데 소정의 과정을 거쳐 자신의 능력과 원력에 따라서 힘껏 지원을 하겠습니다.
많은 스님들의 지원 바랍니다.

▶『행 자』
- 자격 : 고졸이상 40세 미만
- 신체 건강하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스 님』
- 대학원에 진학코자 하시는 분
- 승적증명서 입방원서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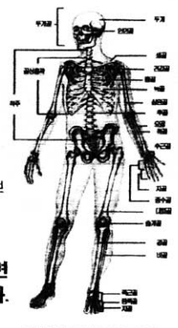
▶문의 : 577-5800 교 202 • e-mail : neungin@chollian.net
H·P : 011-9887-6351, 011-249-3378, 011-898-4680

관 절 염
▼
자 생 환(自生丸)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 습 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응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빠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 仁 製 藥(株)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45화)

"육식을 하지 말라-(2)"

〈출전 : 법구비유경 권 제1;자인품;4-581중〉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남을 돕는 일

드러내지 않는 따뜻함

나뭇잎이 하나둘씩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추워지는 요즘, 선재는 훈훈한 이야기 하나를 들었다. 전철역에서 노인이 발을 헛디뎌 선로로 떨어져 의식을 잃자 한 청년이 뛰어내렸다. 노인을 승강장 위로 밀어올리려던 청년은 열차가 역에 들어서자 선로 옆 배수구로 몸을 피해 두 사람 다 무사했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선재도 가끔씩 듣는 이야기와 별다르지 않다.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이다. 그 청년은 경찰에서 "나 아닌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라는 말만 남기고는 취재 요청이나 감사 전화까지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선재는 이 청년이야말로 남을 돕는 일이란 이렇게 해야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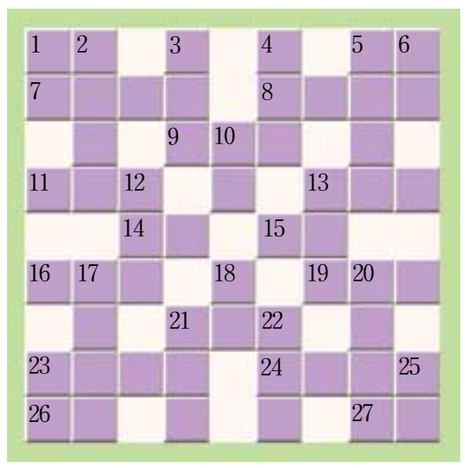
남을 도우면서 무슨 희망이나 갚음을 바라지 말라는 가르침은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유명하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오른손의 선행을 그 오른손 자신도 몰라야 한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이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일체 중생을 제도했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도 제도한 적이 없다. 무슨 까닭이겠느냐?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이 있으면 실로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행여 내가 남을 도운 사실을 알면 아예 남들에게 그 모든 것을 돌리라고 가르친다.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든지 조그마한 보시를 하고라도 증상심(增上心)으로 널리 일체중생을 위하는 가장 수승한 선심을 내어, 얻은 공덕을 일체중생에게 회향할 줄 알면, 그 이익이 다할 때가 없느니라." 〈방등경〉의 말씀이다.

"나 아닌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라거나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말은 하기 쉽다.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만나기 어려웠다. 그저 당연하기만 한 상식이 화제가 되는 현실, 가슴 따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쉽다.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상식퍼즐



가로

1. 아주 뛰어난 맛 5. 불성, 깨우쳐 반성함 7.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음 8. 꼬불꼬불한 양의 창자 9. 홀로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수행법 11. 참된 법신 13. 다섯 가지 색의 실 14. 속 마음, 한 복판 15. 청하여 대접함 16. 합장을 하기 위한 모임 19. 모임, 법회를 마치며 부르는 노래 21. 불사의 회향 때 공덕을 온 중생에게 베푸는 뜻을 담은 기원문 23. 삼일간 마음을 닦음(짧은 시간의 수행을 의미) 24. 더할 나위 없는 정성 26. 매우 바름 27. 금전을 꾸어 쓴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금전.

세로

1. 한 부분 2. 경전 가운데 불가사의한 일을 말한 부분 3. 경험이 많고 좋은 성과를 많이 낸 훌륭한 감독 4. 남자 스님 5. 모양과 색이 각기 다름 6. 자라남 10. 깨달아 눈을 뜨는 것 12. 불법을 수호하는 화엄신중을 모신 단 13. 강원도 평창에 있는 산으로 월정사 상원사 등이 있다 17. 큰 바다에 던져진 한 알의 좁쌀이란 뜻으로 매우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비유 18. 맑은 향기 20.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별한다 21. 서산대사가 지은 것으로 전해지는 노래로, 불교의 이치와 인간의 무상함을 쉽게 전달하며 선행을 권하는 내용 22. 문을 지키는 사람 23.법신, 보신, 응신 등 법신을 셋으로 나누어 부르는 말 25. 거룩하고 성스러운 사람.

〈447호 「상식퍼즐」 정답〉

만	유		보		팔		청	수
자	아	실	현		관	음	정	토
	독		강	연	회		법	
의	존	도		등		청	신	사
		서	원		정	법		
송	유	관		식		가	호	력
	유		무	탐	심		규	
기	상	천	외		지	피	지	기
신	종		시		어		옥	상

이젠! 깊은 산요초 향기를 "공양" 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일 공양 태우지 않아 연기없는 정각향 출시

우리산 나무, 잎, 열매를 따서 해초로 만들어진 전통법제향은 참깨를 볶아 고소함을 내는 비법과 같습니다.
깊은산 자연으로 불자님의 건강은 물론 생활이 더욱 좋아질것 같은 설레임 그 소중함을 안겨드립니다.

차량용 가정용


경제적인 아로마 알갱이 리필

사용처

법당과 선방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업 비서실에서 다시 찾는 향입니다.
불자님의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물론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방에서 자동차안까지 숲속의 맑은 정기를 채워드리게 되었습니다.

제품속에 행운이 깃드는 신비의 돌

경명이 첨가되었으므로 한두알씩 주머니속에 넣어 보이지 않는 좋은 향기의 "힘"을 느껴 보십시오.

사용후

21가지 산요초와 솔잎, 난초,국화, 몸에 좋은 모과는 물론 나쁜 재앙을 물리치는 경명의 힘까지 함유되어 사용후 배게속에 넣어 다시 사용하는 천연향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향낭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방안의 냄새는 물론 담배생각까지 점점 줄어드는 자연향에서 집안에 수맥걱정, 시멘트 및 화학 물질의 독성까지 걱정을 덜어주는 천연광물질의 힘이 담긴 향 알갱이를 하루에 한알(작은알은 두세알)씩 뚜껑에 보충시켜주십시오.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향낭의 신비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氣"이며 당신의 힘이 될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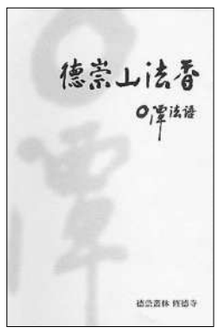
제조원 나Mountain 세계적인 정각향 알갱이를 만드는 법제력!
KOREA Aroma 알갱이 www.Aromamall.org 고객센타 051)633-4070 / 향장인 직통 011-9384-4801
입금계좌 : 국민은행 107-21-0904-797 예금주 : 김도헌

불교는 자기를 찾는 '法' 입니다



◇인자한 미소로 '천진불'이란 별칭을 얻은 원담 스님. <덕숭산 법향>에서는 수좌들에게 들려주는 자상한 법문을 볼 수 있다.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로 '나(我)'를 찾는 법입니다. 나를 위해서, 불조(佛祖)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온 국민을 위해서 진실로 발심하고, 거짓 없는 정진을 하세요."
(갑자년 동안거 해제 법어 中)



'덕숭산 법향'
원담 스님 법어집
덕숭총림 수덕사 / 3만원

경허 · 만공 스님의 법맥을 이은 원담 스님(덕숭총림 수덕사 방장)의 첫 법어집 <덕숭산 법향>이 나왔다. 원담 스님의 상좌인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1998년부터 5년간의 준비 끝에 선보인 것이다. 책에는 1980년 하안거부터 올해 하안거 해제 법어까지 20여 년 동안의 상당법어(上堂法語) 87편이 실려 있다.

법장 스님은 간행사에서 "스님의 가르침은 본래 면목을 밝히려고 할 때 밝은 거울이 되어주었고, 마음의 고향을 찾아 나설 때 나침반이 되어 주었으며, 피안에 다다르고자 할 때 자비로운 배가 되어 주셨다"며 "그러나 이러한 스님의 은혜를 다 갚기도 전에 스님의 법체가 날로 쇠잔해지시고 저 또한 주름이 깊어가기에 법어집 간행을 서두르게 됐다"고 출간 동기를 밝히고 있다.

상좌 법장 스님 5년간 준비 … 19일 고불식
법어 87편 수록 · 청허 백장 스님 일화도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스님의 법문을 녹음한 테이프를 그대로 풀어, 실제로 법문을 듣는 것 같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흔히, 결제에 드는 수좌들에게 내리는 법문은 어렵고 난해하다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스님의 법문은 여러 선사들의 법거량을 쉽게 풀이해 곁들임으로써 일반인들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수좌들의 수행을 독려하는 자상한 면모도 살필 수 있다.

법문에 켜켜이 녹아 있는 선사들의 일화를 찾아 읽는 재미도 이 책의 큰 장점이다. 그 중에서도 어린 나이에 출가한 원담 스님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했던 만공 스님의 일화는 유명하다. 원담 스님은 "만공 스님이 주장자로 내 머리를 때릴 때 마다 '아야!' 하고 소리치면 '그 아야 하는 놈을 찾으라' 고 하셨어요. 내가 한참을 그렇게 맞은 후 '그놈이 바로 마음인 것 같다' 고 하자 크게 칭찬하며 기뻐하셨다"고 회고한다. 이 밖에도 1970년대 초반까지 인삼밭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이야기나 청허 스님과 백장 스님의 일화도 원담 스님의 생생한 육성으로 들을 수 있다.

원담 스님의 손상좌이자 총무원 총무국장 소임을 맡고 있는 주경 스님은 "스님의 법문은 수행자들 사이에서 법문을 녹음한 테이프를 주고받을 정도로 수행자들의 마음을 울린다"며 "결제 때 마다 직접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느꼈던 그 두근거림을 책에서도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덕숭산 법향>의 출판 고불식은 원담 스님의 78번째 생일인 11월 19일 오전 10시 수덕사 대웅전에서 열린다.(041)337-6565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원담 스님은

원담 진성(圓潭 眞性) 스님은 1926년 전남 옥구에서 태어났다. 12살 되던 1937년 이모를 따라 수덕사를 찾은 스님은 정진하는 스님들의 청정한 모습에 환희심을 느껴 출가를 결심했다. 천장사와 전월사 등에서 만공 스님을 시봉하며 5년 동안 행자생활을 했다. 16세 되던 1941년 벽초 스님을 은사로, 만공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으며, 1943년 만공 스님으로부터 전법게를 받았다. 1970년 수덕사 주지로 취임, 덕숭총림의 기초를 닦기 시작해 1984년 덕숭총림을 개설했다. 1986년 11월 혜암 · 벽초 스님에 이어 덕숭총림 3대 방장에 취임했다.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수덕사 염화실에 주석하고 있다.

84년 덕숭총림 개설 … 3대 방장
조계종 원로의원, 수덕사에 주석

새로나온 책



■<싱갈라는 가르치다>(혜능 스님 엮음, 하늘북, 4천8백원)= 해인사 율원장 혜능 스님이 재가 불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자세와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전 구절을 모아 엮었다. 부처님이 대부호의 아들인 싱갈라에게 계율을 가르치는 형식으로 꾸몄다.



■<역주 수능엄경>(일귀 스님 역주, 샘이깊은물, 3만원)= 일귀 스님이 송광사 승가대학에서 <수능엄경>을 강의하며 메모해 둔 것을 새롭게 정리해 <역주 수능엄경>으로 펴냈다. 일귀 스님은 "능엄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참다운 나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경전이다"고 말한다.



■<山 두고 가는 산>(수해 스님 시집, 토방, 7천원)= 제방선원에서 수행정진하고 있는 수해 스님의 시집 <山 두고 가는 산>에서는 글쓰기를 수행으로 삼고 있는 스님의 시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읽을 수 있다.



■<수미산의 이쪽과 저쪽>(오정환 지음, 한국경제신문, 8천5백원)= 롯데연수원 오정환 원장이 불교설화 속의 이상향인 수미산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책. 티베트인들의 소박하고 겸허한 일상을 담담하게 보여준다.



'산문, 치인리 십번지'
현진 스님 지음
열림원 / 8천5백원

수행 · 인터넷 · 체력단련 등
산중 스님들 사는 모습 그려

"최신형 모델 40화음 핸드폰으로 바꾸고 겪은 일이다. 새 핸드폰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 신도들 앞에서 싱글벙글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리는데 멜로디 때문에 기절할 뻔 했다. '여보~ 전화 받아요~'."

해인사에서 발간하는 월간 <해인> 편집위원인 현진 스님이 산중에서 살아가는 스님들의 생활 모습을 담은 <산문, 치인리 십번지>를 펴냈다.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수행자다운 모습이다'고 말하는 현진 스님은 빨래하고, 음식 만들고, 문풍지 바르고, 김장하고, 고무신을 닦는 일 등 산중생활의 소소한 일상들을 책에 담았다. 가습속에 간직하고 있는 스님들의 내밀한 속내까지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치인리 십번지'는 250여 명의 스님들이 정진하고 있는 합천 해인사의 주소인 동시에 이 땅의 모든 수행처를 상징한다.

스님의 글을 통해 산문 안의 생활을 조금 살펴보자.

'21세기 스님'은 자동차를 몰고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인터넷을 즐긴다. 매년 이맘때면 배추 5천여 포기로 김장을 하고, 섣달그믐이면 윷놀이로 밤을 샌다. 체력단련을 위해 축구대회도 열고, 예비군 훈련을 위해 군복을 다리기도 한다.



◇해인사에서는 매년 단오날 산중 체육대회를 연다. 이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축구대회. 스님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은 최근 운동장을 잔디 구장으로 바꾸는 결실을 거두었다.

하지만 스님들이 이곳에 모인 가장 큰 이유는 수행이다. 더러운 고무신을 닦으며 마음을 깨끗이 닦고, "죽어도 이 선방에서 죽으시오. 수행자가 정진하다가 죽는 것은 가장 값진 죽음이오!"라는 혜암(입적, 전 조계종 종정) 스님의 가르침에서 수행정신을 찾는다.

현진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절집 사람들이 먼 시대의 박제된 인물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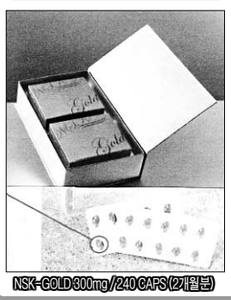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삶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	혜봉 거사	불광
2	산중일지	현칙 스님	지영사
3	화	틱낫한	명진출판사
4	백천간두에서 한 걸음 더	법전 스님	조계종출판사
5	부처 통곡하다	정동주	이룸
6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7	깨달음의 거울	법정 스님	동쪽나라
8	천문학자와 붓다의 대화	이시우	종이거울
9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	카렌 암스트롱	푸른숲
10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대림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도서 안내 : (02)737-0695

인터넷 · 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고혈압 · 순환기질환
진정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 혈관속에 만병이 있습니다※
◆ 혈전(血栓)이란
혈관내에 생기는 단백질의 피브린을 주성분으로 형성된 젤(gel) 상태의 혈액 덩어리로서 혈액의 흐름을 악화시키고, 각종 질병(성인병)을 유발시킴.
◆ 혈전성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중풍), 노인성치매, 당뇨성정맥폐쇄증, 손발절임, 눈이 침침함 등
◆ 혈전용해효소 [낫토키나제]
대두의 발효중 미생물(납두균)이 만들어 내는 신기능성 특수효소물질(Nattokinase)
(강력한 혈전용해 능력으로 순환기계질환의 예방과 개선에 탁월한 기능성 효소물질)
◆ 국제혈전용해학회 에 발표(1996년), 분자구조식이 규명되어 그효과가 과학적 으로 입증됨(일본 생물과학 연구소)

NSK-GOLD 300mg/240 CAPS (2개월분)
● 늘어나는 평균수명과 늘어나는 순환기질환
● 식생활 습관의 서구화 가공식품, 동물성지방 스트레스, 운동부족 환경오염
대건메디칼 053-744-2502 011-811-3938
(약식행심) (안내책자를 보내드립니다)

불교의식(범음 · 범패)
제 2기생 학인모집
본 대구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초종파를 막론하고 불교의식 염불, 또는 법패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이라면(스님)은 물론 현재 사찰운영에 어려움을 격고 계시는 교임 또는 법사님께서도 본 교육원을 이수하신 후에는 아무런 불편없이 운영하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과 정
▶ 의식 초급반(3개월) 주 2회 강의 (매주 월, 화요일)
● 강의시간 : 오후 3시 ~ 5시까지 (2시간)
● 강의내용 : (새벽 도량석, 종성염불, 상단새벽예불, 저녁예불, 아침송주, 저녁송주, 상단불공(제불통청), 신중퇴공, 행선축원, 불공축원, 관음시식, 배송, 사미율법 및 초발심 자경문
▶ 의식중급반 (5개월) 주 2회 강의(매주 수, 목요일)
● 강의시간 : 오후 3시 ~ 5시까지 (2시간)
● 강의내용 : 시련절차, 천도, 49제 재공편, 전점안법, 설교의식, 시왕불공, 시식, 배송, 다비편, 방생의식, 불상 및 탱화 점안법, 예수제의문, 구병시식 등
※ 재장엄번설치법, 령가축원문작성법, 위패, 지의, 전, 작성법
▶ 작법반 : 일반(5개월) 주 1회 지도(매주 일요일)
● 강의시간 : 오후 3시 ~ 5시까지(2시간)
속성(2개월) 주 1회지도(매주 금요일) 시간 : 오후 1시 ~ 4시 30분(3시간 반)
● 종 목 : 천수바라, 도량계(나비춤), 사다나니(가지게) 회의재진연바라
▶ 역학반(10개월) 주 1회 지도(매주 수요일)
● 강의시간 : 오후1시~3시(2시간) ※ 특별강사초빙
▶ 사물특강반 내용 : 태징, 광쇠, 북치는법(천수북, 정근북, 장엄염불북, 요잡쇠)
● 기 간 : 3개월 주 1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5시(2시간)
▶ 속성반 : 의식, 작법, 사물(짧은 기간에 이수하실분은 별도 등록 요함)
대구불교의식 법음 · 범패 교육원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3동 167-14(2층)
원장 주동주(동현) 합장 ☎ 053)955-7725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추동복 재질 (모직)

1. 적삼, 조끼, 바지 ₩160,000
2. 동방,바지 ₩160,000
3. 두루막 ₩140,000
4. ₩60,000
조끼·몸배
누비

5. 적삼, 조끼, 바지 ▷모직누비 ₩320,000 ▷순면누비 ₩250,000
6. 동방, 바지 ▷모직누비 ₩320,000 ▷순면누비 ₩220,000
7. 두루막 ▷모직누비 ₩250,000 ▷순면누비 ₩160,000
잔누비
셔츠

8. 셔 츠 ₩60,000 (차이나형, 라운드형) 바 지 ₩70,000
라운드형 차이나형 ₩30,000 ~ ₩35,000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중간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물에도 감정이 흐른다

'물의 메시지'

에모토 마사루 지음 / 양익관 옮김
나무심는 사람 / 1만5천원







◇원적사 사찰뒤편 골짜기(사진 위)와 그곳을 흐르는 물의 결정(사진 아래).



◇원적사 경내(사진 위)와 경내를 통과한 물의 결정(사진 아래).

'사랑한다'는 글자를 보여준 물에서는 아름다운 결정 사진을 얻을 수 있었으나, '바보 멍청이'라는 글자를 보여준 물에서는 흉측하고 불쾌한 결정 사진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글씨에는 물의 결정이 심하게 일그러졌지만 선한 마음이 담긴 기도문에는 아름다운 결정으로 화답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슴 저미는 노래를 트니 물은 신기하게도 슬픈 표정으로 반응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실험을 통해 물에도 인간과 같은 감정이 흐르며 '마음'이 있다고 주장한다.

재일교포 2세 부인을 둔 '국제평화운동가' 이기도 한 저자는 이번 한국어판 출간에 맞춰 그동안 외국에서 출간된 책들과는 달리 한국 관련 물결정을 추가로 수록하는 열성을 보였다.

경기도 이천시의 원적사가 바로 대표적이다. 원적사에는 사찰 뒷산에서 발원한 계곡물이 경내로 흘러들어와 대웅전 옆을 지나간다.

가슴 저미는 노래 들려주면 슬픈 표정 반응
자연수가 사찰 경내 흐를 땐 육각수로 변해

한 신도가 경내로 흘러들기 직전의 물과 경내로 흘러들어온 물을 떠서 에모토 박사의 연구실로 보내 결정 사진 촬영을 부탁했다.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다. 사찰로 흘러들기 전의 계곡물이 평범한 자연수와 비슷한 결정을 보여준 데 반해, 경내로 흘러들어온 물은 선명한 육각형 결정을 이룬 것이다. 불과 몇 초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

또한 국립국악원이 연주한 '영산회상'을 들려준 물의 결정은 단아하고 영롱한 빛을 발했다. 에모토 박사가 북한에 들렀을 때 떠온 평양의 고려호텔 수돗물 결정 사진은 도쿄나 런던보다는 맑은 결정을 보여 주었다.

이 책에는 약수 · 샘물 · 청정수 등 때묻지 않은 자연의 물에서부터 오염된 강물과 대도시의 수돗물에 이르기까지 120여컷의 물결정이 사진으로 소개돼 있다. 저자의 부인이 한국인인 까닭에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 더욱 친근하게 느껴진다. '아름다운 말과 긍정적인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는 진리를 눈으로 깨닫게 해주는 책이다.

<물의 메시지>는 얼마 전 출간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1 · 2>로 큰 관심을 모았던 에모토 마사루가 최근 펴낸 세계 최초의 물결정 사진집이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물의 얼굴'은 다양하고 풍부한 표정들을 가지고 있으며, 무심코 내뱉은 말에도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게 반응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는 안내서

'2막'

스테판M. 폴란 · 마트 레빈 지음
조영희 옮김
창작과비평사 / 2만원



前 세계 헤비급 챔피언 조지 포먼, 前 미국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지미 카터, 영화배우 마이클 J. 폭스, 애플 컴퓨터의 CEO 스티브 잡스, 미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각 분야에서 세계 정상을 달리는 명사라는 점 외에도 이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탄탄대로만 골라 달렸을 것 같은 이들도 실은 실패의 낭떠러지 밑으로 몇 번씩 미끄러진 뒤에야 오늘날의 자리에 올라섰다는 점이다.

이 책 <2막>은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기 위한 안내서다. 2막이란 늘 꿈꿔왔지만 어떤 이유로든 이루지 못했던 삶을 뜻한다. 세일즈맨에서 귀농인이 되는 것이든 평범한 주부에서 자영업자가 되는 것이든 새로운 삶을 위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2막의 시작이 될 수 있다. 2막은 가슴속에 품어왔던 꿈을 펼치는 무대이며, 인생의 새 장이 열리는 순간이다. 이 책은 인생의 2막을 올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저자들은 '인생이라는 기나긴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단 하나일 리 없다. 인생이 한 번뿐이지 기회가 한 번뿐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한다.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꿈 길러내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솔직하라' 등 2막을 위한 9가지 마음자세와 '내면의 욕망 찾아내기' 등 5가지 연습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마음자세' '내면의 욕망 찾아내기' 등
실패의 두려움 극복 방법 상세 소개

김주일 기자

전문가 서평

'지전(智典)'

령청진 엮음 / 장연 옮김
김영사 / 2만4천9백원



지혜로운 삶 제시 … 읽는 재미도 '쏠쏠'

역대 중국의 인물들을 재평가함으로써 인재의 변별과 활용을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던 <변경>의 저자 령청진이 쓴 743쪽 분량의 책이다. 얼핏보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사전 냄새가 난다. 이 책에서 그는 중국 춘추전국시대 난세영웅들의 빛나는 지혜와 지략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사기><춘추><한비자><손자병법><논어> 등과 같은 위대한 고전에서 뽑아낸 핵심적인 내용들로 100여편의 이야기를 엮었다.

인재등용의 모범이 된 맹상군, 적은 자본으로 왕조를 사들인 대상인 여불위, 정치와 역사를 좌지우지한 전국시대 책사의 1인자 장의와 소진 등, 역사속 위대한 인물들의 뛰어난 지혜와 지략이 쉽고 재미있게 소개돼 있다. 명인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기인이나 은자(隱者)들의 이야기도 들어 있어 한층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특히 모든 이야기의 앞에 서문을 두어 독자들이 중국 고전의 지혜와 책략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풍부한 사진자료들과 찾아보기 쉽게 만들어진 사전식 설명의 인명사전, 이야기를 곁들인 고사성어 사전은 재미와 함께 학습효과까지 더해준다. 이 책은 총 4권에 걸쳐 앞으로 출간될 '지전총서'의 첫번째 시리즈 '춘추전국시대편'이다.

난세영웅들의 지모 · 지략 史記 등서 뽑아 소개

이 책을 읽다보면 한 고조 유방의 일화가 특히 의미있게 다가온다. 한고조 유방은 이렇게 말했다. "장막 안에 앉아 천리 밖의 승리를 거두는 면에서 나는 장량(張良)보다 못하고, 나라와 백성을 안정시키고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면에서 나는 소하(蕭何)를 따르지 못하며,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공격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면에서 나는 한신(韓信)에 미치지 못한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천하의 영웅호걸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사용할 수 있었으니,이것이 바로 내가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밑천이다."

순자(荀子) 또한 이렇게 말한다. "제왕이 활을 쏘아서 백발백중하고 싶다면 자신이 직접 손을 댈 것이 아니라 궁수를 등용하면 되고, 천하를 잘 다스리려면 재능과 덕을 겸비한 인재를 등용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마음과 힘의 소모를 줄이면서 대업을 이룰 수 있다."

바로 이것이다. 성공하는 조직은 영웅 한 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재들의 집합으로 잘 관리돼 있는데 있다. 다만 조직을 관리하는 지혜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음미할 때만이 비로소 나에게 다가 온다. 즉 인재와 역사적 교훈을 오직 진심으로 행동에 옮길 때만이 비로소 지혜를 활용해 자신의 인격을 높이며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결코 작지 않은 책의 두께와 무게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흥미있게 책장이 넘겨지는 이유는 바로 인재와 지혜가 가져다 주는 인생의 가치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간에 모든 직업과 계층을 아우르는 책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그런 면에서 <지전>의 출간은 반갑게 다가왔다. 여기에는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들의 신통한 지략과 지혜가 담겨있다. 이 책을 읽다보면 지혜를 익히는 방법 가운데 역사속 실제 인물들의 삶을 통해 배우는 것이 가장 크게 가슴속을 파고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또한 책장을 한장한장 넘기면서 어느새 새로운 눈이 트이고, 현명한 지혜가 마음속에 싹트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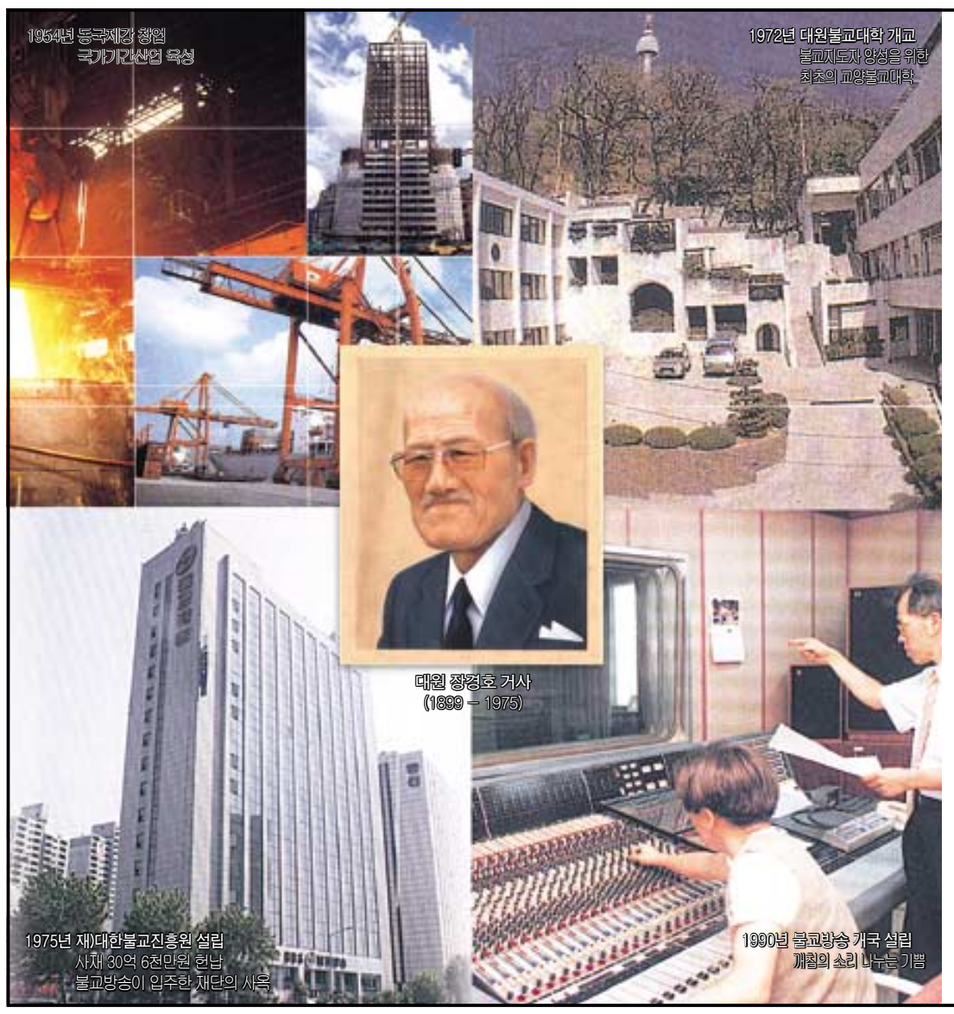
자칫 책략서로 오해될 수 있지만 책이 전하는 것은 모사와 임기응변이 아니라 안목과 균형감각이다. 다른 시대, 다른 인물들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며 엮어가는 역사의 파노라마를 읽다보면 위기 극복의 지름길은 시대와 인간에 대한 통찰밖에 없다는 걸 배우게 된다. 에피소드별로 단락 구분이 명확하고 저자의 친절한 해설이 도와준다.

성공을 꿈꾸는 경영자나 직장인, 삶과 앎의 지혜를 터득하고자 하는 학생, 멋진 아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주부 등 모두가 재미있고 편하게 읽으면서, 자신의 삶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안성맞춤의 책이다.

더욱이 지금처럼 국내외 안팎으로 어수선한 시기에는 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할수 있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 <지전>은 이 난국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수천년 전의 위대한 지혜를 한자리에 모은 책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성공적인 삶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읽고 한 권쯤 소장해야 할 변치 않는 고전이다.

■김영열 / 상지대 경영학부 교수

<지전>은 <사기> <춘추> <한비자> <손자병법> <회남자> <문자> <주서> 등 만고의 고전 중에서 난세 영웅들의 지혜와 지모만을 모은 책이다.



2 년 제 야간강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크나큰 원력을 일으킵니다" 미래불교 지도자를 양성을 위한 열린 교육도량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정법불교 대중불교의 건학 이념에 따라 본교 합격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 혜택을 드립니다.

① 모집과정
- 대학원과정 15명 대학과정 50명 통신과정 00명

② 전형일정
- 원서교부 2003년 11월 17일 – 12월 29일
- 원서접수 2003년 12월 1일 – 12월 29일
- 합격자 발표 2004년 1월 14일(개별통보)
- 대학원 면접 2004년 1월 10일(토) 14:00 본교 강의실
- 대학(통신)과정은 서류전형임.

③ 대학(통신)과정 특전
- 성적 우수자는 본교 대학원 과정 입학 자격 부여
- 철저한 학사 관리로 효율적인 학습 효과 및 면학 분위기 조성

④ 대학원과정 특전
- 개인지도교수제(Tutorial System)의 철저한 논문 지도
- 년 1회 해외불교학술답사 실시(지도교수 인솔)
- 졸업 후 미래학불교학회 회원으로 연구 및 강의 활동 참여
- 소정의 수련과정 이수 후 법사 자격 부여

※ 교과 과정 등 자세한 안내는 입학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 입학원서 배부처 본교 교학과, 경서원, 불서보급사, 불교방송 3층 불교문화센터, 책방 여시아문

대원불교대학 www.buddhaschool.or.kr www.idaewon.or.kr
DAEWON Tel 02)754-1613, 773-9171 Fax 02)771-6796

최고의 교수진
– 장휘옥 (일본 국립동경대학교) – 허경구 (인도라나시 힌두대학교)
– 김사업 (일본 국립교토대학교) – 김종욱 (서울대학교)
– 최봉수 (동국대학교)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도



보시

최근 우리나라에도 보시문화가 확산되고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다. 얼마 전 기빙 엑스포(giving expo)가 열리기도 했다. 단순히 특정한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인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지키면 좋은 사회적 미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보시는 사회학적으로 말하자면 나누어 쓰는 것이며, 분배를 통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끼리 혹은 생명체들이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시는 누가 특정한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다. 돌고 도는 사회의 메커니즘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을 위해 베푸는 것이 된다. 그렇기에 단순한 '더불어 삶의 미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생명의 일체화'를 위한 숭고한 도덕적 행위로 승화될 수 있다.

불교적 가르침에 의하면 보시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 진리를 나누어 주는 것, 평화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런데 나누어 준다는 것은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공유라는 말을 즐겨 사용한다. 내 재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다. 나의 배움을 남과 공유하는 것이며, 나의 안락함을 남과 더불어 만끽하는 것이다. 지금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역시 다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조력에 의해 형성된 것이거나 완성된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잠시 보관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소유하며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부처님께서 인도의 녹야원에서 다섯 명의 비구들을 위해 처음으로 설법했을 당시에도 보시의 중요성과 실천에 대해 설파하셨다. 이후의 경전에서도 보시의 중요성은 누누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새삼스레 보시를 강조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보시의 공덕에 대한 부처님의 설법을 한 구절만 살펴보고자 한다. 부처님께서 코삼비의 코사라 동산에 계실 때의 일이다. 마하주나라는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는 것이 세간의 복을 닦는 길인지에 대해 질문한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비구들에게 거주할 방과 전각을 보시하라. 새롭고 깨끗한 옷을 보시하라. 갖가지 먹을 것을 보시하라" 보시를 하면 선남자 선여인에게 큰 복을 얻게 하고, 명예를 얻으며 공덕을 얻는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갈수록 넓고 깊어지는 것처럼 선남자 선여인이 보시를 하면 공덕도 넓어진다는 것이다.

보시를 할 때는 무심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서원을 세우고 보시하는 것이 훌륭한 일이라는 것이다. <증일아함경>제19에 나오는 가르침이다. "보시할 때는 그것이 많거나 적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정성을 들이지 않고 원을 세우지도 않으며, 믿는 마음도 없으면 그 과보는 즐겁지 않느니라. 정성껏 마음을 쓰고 차별을 두지 않으며, 후세에 다리가 되겠다고 서원하면 그 과보는 훌륭하니라. 아득한 옛날 빌라마라는 범지가 팔만사천의 금은 등을 팔만사천의 미녀들에게 보시하였었다. 그러나 그런 보시는 집 한 칸을 지어 수행하는 출가자에게 보시하는 것만 못하다. 또한 한 사람의 수행자에게 보시하는 것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만 못하다. 수행자에게 보시하고 삼보에 귀의했더라도 스스로 5계를 수지하는 것만 못하다. 5계를 수지하더라도 잠시나마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것만 못하느니라. 설사 그렇게 보시했더라도 일체의 존재는 무상하여 집착할 것이 못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 못하니라"

이상의 가르침은 보시의 참다운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다. 보시에도 가치의 상하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재물을 공유하는 것 보다는 법을 공유하는 것이 좋으며, 나아가 생명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평화를 제공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모두 세간에서 말하는 선이요 정의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이요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제법무상의 진리를 깨우치는 것이 궁극적인 가치로 설파되고 있다.

진리·평화·재물의 조건없는 나눔
궁극은 제법무상의 진리 깨닫는 것

마땅히 머무는 마음 없이 보시하라는 것이 <금강경>의 가르침이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 사회의 징검다리가 되겠다는 서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는 굳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 상대를 의식하지 않는 것과 우리들 자신의 결의는 분명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한두번은 보시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굳은 결의가 없는 사람은 진정한 보시의 의미를 실천궁행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전생명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 그들이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있게 한다면 그러한 일을 위해 기꺼이 보시하는 것이다. 보시는 결국 나의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다른 인간, 혹은 생명체에게 조건 없이 주는 것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재가자도 수행자 입니다
바른법 따라 공부하세요



지상 백고좌

벽 산 스님

(정읍 다천사 조실)

목무소견무분별
(目無所見無分別)
이무소청절시비
(耳無所聽絶是非)
세상만사도불간
(世上萬事都不看)
단간심불자귀의
(但看心佛自歸依)

눈으로 보는 바가 없으면 분별이 없고
귀로 듣는 바가 없으면 시비가 끊어진다
세상만사를 다 간섭하려 하지 말고
다만 부처의 마음을 보아 스스로 귀의하라.



◇스님을 닮은 대나무숲에 선 벽산스님.

부안 내소사에 가면 선원으로 유명한 월명암이란 암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월명암에 얽힌 부설 거사(浮雪居士) 이야기를 할 것이니, 잘 듣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부설 거사에게는 영조와 영인 스님이라는 도반이 있었습니다. 도를 닦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항상 함께 했습니다. 어느날 부설 거사는 영조, 영인 스님과 금강산으로 공부를 하러 가다가 묘화 부인을 만났습니다. 부설 거사는 묘화 부인과 지금의 월명암 자리에 토굴을 짓고 공부를 하였고 영조, 영인스님은 금강산으로 구도행을 떠났습니다. 부설 거사에게는 아들과 딸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등운과 월명이었습니다. 월명암이란 명칭은 월명(月明)이란 스님의 이름에서 따 온 것입니다.

한 순간도 화두 놓지말고 정진해
있는 그대로 지혜 덕상인 줄 알아야

10 년이란 세월이 흘러 금강산에서 공부하던 영조, 영인 스님이 돌아왔고, 세 사람은 그동안 공부한 바를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부설 거사가 물이 가득 담긴 그릇을 공중에 던져, 그릇이 깨지지도 않고 물도 흘어지지 않아야 제대로 공부를 한 것이라는 문제를 냈습니다. 영인, 영조 스님은 모두 실패했는데, 부설 거사는 공중에 멈춰서 그릇이 깨지지도 않고 물이 쏟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설 거사는 영조, 영인 스님으로부터 속세에서 처자권속을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공부를 했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설 거사가 영조, 영인 스님에게 했던 법문이 위의 게송입니다. 이 시를 듣고 영조, 영인 스님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벽산스님은 찾아오는 모든 이에게 차별없이 법문을 들려준다.

이 이야기를 여러 불자님들에게 하는 이유는, 출가 사문이라고 해서 깨달을 수 있고 재가자라고 해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 법에는 출재가,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거든요. 누구나 배우고 익혀서 부지런히 닦는다면 자신이 이미 부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가자도 수행자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깨달음이라는 것이 쉽지 않듯이 바른 법을 만나기 또한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데에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오로지 '의법불의인(依法不依人)' 즉, 바른 법을 근본으로 해야지 사람에 의지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미 참 부처입니다. 공부를 안해서 참 부처 노릇을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수행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참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럼 어떤 수행을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는 간화선이라는 좋은 수행법이 있습니다.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시에 화두를 들고 공부하면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일체중생 개유불성(一切衆生 皆有佛性)'이라 했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불성이 있다 했으니, 시시때때로 잊지 말고 걸어가면서, 밥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앉아서 쉬면서, 화두를 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불자님들이 자주 선과 교, 어느 것이 중요하냐고 질문하곤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단지 어느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할 뿐입니다. 교를 알려면 선을 해야 합니다. 조사어록에 '선시불심(禪是佛心)이요 교시불어(敎是佛語)'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은 곧 부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바로 교라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널리 일체중생을 보니 모두가 여래의 지혜와 부처의 덕상을 갖

지장보살원력 입은
달마도 보급에 나선 지명스님

달마도의 신비스러운 원력 함께 나누는 삶 서원



지명스님

새벽 밝은 공기가 창을 넘어오는 시간이다. 달마도에 취해 명상에 빠진 지명스님은 날이면 날마다 붓을 들고 그리고 또 그린다. 엣된 여승을 바랑을 짊어지고 목탁을 두들기며 서울 시내 지하철 역마다 내렸다. 다시 타고 다음역으로 향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달마도를 1년에 전 지하철을 4바퀴를 돌며 불교을 전하고 그들의 찌든 마음을 열어주는 포교를 해왔다.

춥가 후 줄곳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발원에 발원을 거듭하며 증진하던 중 지장보살님의 화현하심을 영접하고 달마도를 펼쳐 보여주시며 "이 달마도를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 보급하면 이 달마도가 있는 곳마다 영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동안 많은 인연들이 저의 달마도를 소장하게 되었지요." 서울시내에만 무료로 일반 여점의 달마도를 보급해 그들이 달마도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지난 경제위기 때에는 인양의 ㅇㅇ아파트를 지어 놓고 분양을 못해 부도직전에 이른 수원의 어느 건설회사는 분양사무실에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걸어 놓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전세대가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를 마쳤다고 한다. 지금은 구로구에 법당을 마련하고 계속 불사중이며 홍익대에서 체계적인 그림공부를 하면서 날마다 달마도를 그리며 지장보살님께 "이 땅의 병들과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법력으로 치유되고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달마선사의 원력으로 어렵고 괴고운 고(苦)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날마다, 날마다 서원하고 있다.

▼ 달마 6폭병풍



문의 전화 02)857-4576, 017)430-5008
보 현 사 지명스님 합장

국제 수준의 타로(TAROT) 카드 교육 실시

1. 타로카드 교육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타로(TAROT)카드를 국제 수준에 맞게 배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양에 주역이 있는 것 처럼 서양에는 타로카드가 있어 왔습니다.
타로카드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문제들을 점치는데 쓰입니다.
1. 연애와 결혼 2. 인간관계 3. 금전문제 4. 사업문제 5. 일 자리 찾기
이밖에도 인생의 온갖 과정에서 선택, 결단, 결정을 내리는 데도 쓰이며 연구 개발, 사업기획, 정책입안, 문제해결의 길을 찾는데도 쓰입니다. 그리고 그저 카드를 보면서 상상을 하기만 해도 정신수련, 마음수련, 정신위생, 우뇌훈련, 상상력훈련에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우리 국제타로학원에서는 지난 1년여에 걸친 준비를 완료하고 국제수준에 맞는 타로카드의 단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재로 쓰이는 타로카드도 오리지날 마르세이유 타로카드를 현대에 복원한 카모왕판 마르세이유 타로카드를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카모왕판 마르세이유 타로카드 1세트 35,000원
● 교육일시
- 1차 제1단계 : 03년 11월 22일(토) ~ 23일(일) 선착순 24명
제1단계 : 03년 11월 29일(토) ~ 30일(일)
제1단계 : 03년 12월 6일(토) ~ 7일(일)
제2단계 : 03년 12월 27일(토) ~ 28일(일)
제3단계 : 04년 1월 24일(토) ~ 25일(일)
- 2차 제1단계 : 04년 1월 3일(토) ~ 4일(일)
제2단계 : 04년 1월 31일(토) ~ 2월 1일(일)
제3단계 : 04년 2월 21일(토) ~ 22일(일)
● 참가비 : 각단계 12만원 균일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2. 레이키(Reiki)교육
레이키에서는 10시간이면 누구나 氣에너지 요법가가 될 수 있습니다. 레이키에는 어튠먼트라는 특유의 비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氣요법가겸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것입니다. 어튠먼트는 우리의 온몸을 단전으로 만들어 드리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 교육기간 2~3일 전수비 50만원
● 카루나 레이키 : 교육기간 1일 전수비 30만원
국제타로학원(한글도메인)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박희준)
인터넷 www.Reiki.co.kr
◇ 전화 : 02)720-5682. 720-5719 핸드폰 019-392-2557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809호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수 있음)
◆ 조상신과 중엄신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 물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등)
◆ 영기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영기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기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기가 참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좋은소식(영험도량)

지상의 그 어떤 악한 중엄신도 단방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영기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모든 빙의령)
◆ 무명,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놀리고 환청으로 잠못 이루는 분
◆ 밤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 주위에서 볼때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힘든 행동을 한다든지, 방안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등등... 조상의 음덕으로 사업성공을 발원하는 분, 하는일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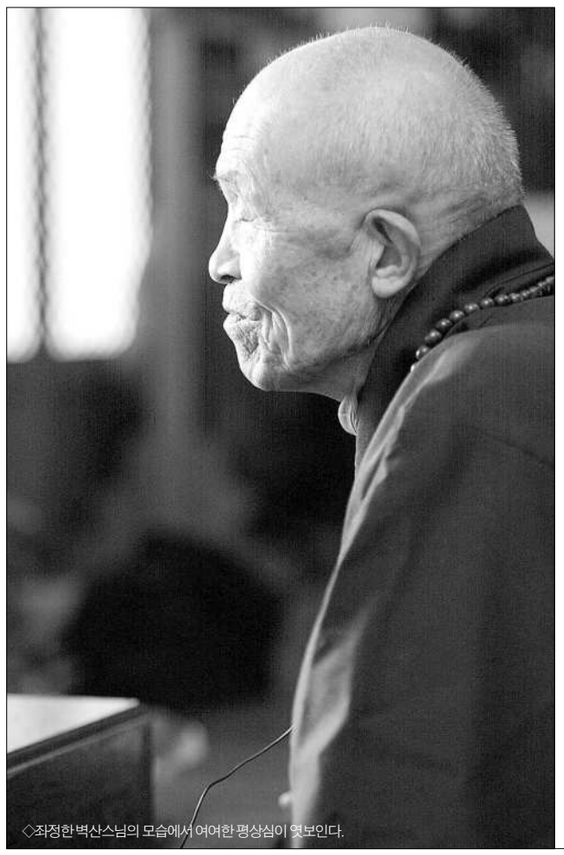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 : 특징 - 울 50% 폴리에스텔 50%
적삼,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막 150,000~180,000
2. 무 명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3. 무명, 면 : 면100%(먹물 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솜 없는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막 170,000
5.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막 210,000
6. 골 덴 : 면100% 적삼, 바지 180,000
7. 장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대가사 150,000 반가사 70,000
법복 모직 60,000~8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하철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약점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좌정한 벽산스님의 모습에서 여여한 평상심이 엿보인다.

손상좌 진성스님이 본 벽산 스님

벽산 스님은 우리 시대의 선지식이자 교리의 대가로 추앙받는 큰스님이라 해도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큰스님은 크고 작은 불사에 증명법사로 추대되어 법문을 하실 때 마다 불자들에게 "욕심과 아집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 정의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또한 출가 승려에게는 보시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면서 신도들의 보시로 살아가는 처지를 일깨워 주시고 회향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경책해주곤 합니다. 일전에는 넉넉지 못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태고총림 선암사 강원에 1천만원을 쾌척하시어 몸소 나눔의 삶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큰스님은 누구에게나 <금강경>을 권합니다. <금강경>이 있는 곳은 불법승 삼보가 함께 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깨끗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에서지요. 큰스님의 은사이신 해안(海眼) 선사께서도 <금강경>의 대가였습니다. 큰스님도 평생 <금강경>을 수지 독송해 왔습니다.

"회향하는 정신으로 수행" 당부
평생 금강경 수지독송하며 정진

1922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벽산 큰스님은 15세에 부안 내소사에서 해안 선사를 은사로 동진출가한 이래 금강산 유점사, 양산 통도사, 남양주 봉선사, 장성 백양사, 부안 월명암 등의 강원과 선방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곳에서 만암 스님, 경봉 스님, 금오 스님, 운허 스님 등 수 많은 선지식과 강백들의 가르침을 받았지요. 그게 조계종과 태고종의 오랜 분규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걸림없는 삶을 보여주신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후 세 차례나 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장을 맡았고, 중앙종회 의장도 두차례에 걸쳐 역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후학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일선에서 물러나 태고종 승정으로서 종단의 법통을 면면히 이어오고 계십니다.

"부모에게 몸 받기전 본래면목은 무엇인가" 화두 참구를

추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곧 근본 진리는 부처와 중생이 한 가지로 여래의 지혜와 덕상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동불중생(同佛衆生)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자리에 집착하지 말고, 모두 있는 그대로 지혜의 덕상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이세요.

나는 불자들에게 늘 <금강경>을 수지 독송할 것을 당부합니다. 부처님께서 49년동안 설한 법문 가운데 21년간 설한 가르침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의 사구게(四句偈)만 설하는 곳이라도 그곳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탑이나 부처님을 모신 절과 같이 모든 세간의 하늘이며, 사람이며, 아수라들이 와서 공양하거늘, 하물며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한다면 어찌되겠습니까. 이는 가장 잘 사는 법을 바로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부처님은 또, "삼천대천세계에서 가장 큰 산인 수미산만한 칠보들을 가지고 널리 보시하더라도 경전의 사구게를 받아 지녀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 설해주는 공덕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물질보시 보다 법보시의 공덕이 크다는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들은 남을 위해 진심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짧은 말이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언제 어느 때 변화를 가져올 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나에게 한권의 경이 있으나(我有一券經)
종이와 먹으로 된 것이 아니다(不因紙墨成)
한 글자도 펼치지 아니하여도(展開無一字)
항시 큰 광명을 놓는다.(常放大光明)

내 마음이 편안하고 온전하면 세상이 설사 시끄럽더라도 항시 편안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세상도 시끄럽고 어지러워지거든요.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해야 세상도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즉 3독을 놓아버려야 불국정토가 이루어집니다. 3독은 마치 독사가 사람을 해하는 것과 같아 중생의 착한 마음을 해롭게 합니다. 그러니 인자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로 남을 사랑하며 삼보를 공경하는 마음을 지녀 진리를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다 마음에 달린 게지요.

"법보시의 공덕이 가장 커서 칠보를 수미산만큼 보시해도 사구게 설한 공덕만 못해"

'무엇이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이런고'. 부모로부터 몸을 받기 이전의 본래 면목은 무엇이런고. 다함께 화두 들고 공부합시다.

정리=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성전스님의 스님이야기 — 천호스님 (2)



늦가을 산사의 새벽은 피부가 아리도록 시리다. 이 아린 추위 속에서 스님들은 부처님을 향해 예경을 올리고 집을 나서던 출가의 그 날을 기억한다. 따뜻했던 집을 나서 찬 바람 부는 산사로 떠나온 이들의 가슴 속에는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서원의 빛 하나씩 간직하고 있다. 그 빛은 출가자들의 일생과 함께 한다.

그러나 수행자가 스스로 발원을 잃어버릴 때 그 빛은 스스로 꺼져버리고야 만다. 배고프고 추운 자리를 버리고 배부르고 따뜻한 자리를 찾을 때 그 빛은 소리도 없이 꺼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스님들이 아무도 깨지 않은 새벽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그 빛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현이기도 하다.

찬 바람 부는 새벽을 지나 그날 아침 천호스님은 머리를 깎았다. 가위가 먼저 긴 머리를 자르고 그 뒤에 이어지는 삭두질. 세속을 상징하던 머리카락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 가고 출가의


그림 · 문병성

상징인 삭발이 그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냈다. 처음 왔을 때처럼 삭발이 된 그 순간에도 그는 예의 그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다. 삭발 전이나 삭발 후 똑같이 계속되는 그의 맑은 미소의 의미를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전생에 많은 시간을 출가해 본 사람처럼 삭발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는 어쩌면 그가 먼 길을 걸어 오는 동안 이미 극복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는 어쩌면 길 위에서 일주문을 들어서기 전에 출가를 했는지도 모른다. 그의 도보에 대한 의미는 삭발 후 내게 그렇게 다가왔다.

새벽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때고 물을 끓이고 도량을 청소하면서 그의 손등은 거미줄처럼 갈라져 갔다. 하루 일과를 마치는 밤이면 그는 터진 손등에 바셀린을 바르며 시린 행자의 나날을 견디어 나갔다. 그리고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대중의 공양을 짓고 낮이면 누구보다도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행자생활에 대한 불만 어린 질문 한번 없이 그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일했다.

그러나 그의 매력은 맹목적으로 일만 하는 것에 있지는 않았다. 일하는 짬짬이 햇볕이 드는 양지녘에 앉아 시집(詩集)을 읽곤 했다.

행자에게 시집이라. 웬지 맞지 않는 것만 같았다. 세속을 떠난다는 것은 문자와 감성도 함께 떠나는 것을 의미할 터. 행자에게 시집은 사치처럼만 생각되었다. 내게는 사치스러워 보이고 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 의식의 차이를 어느 날 그는 한 순간에 무너트려 버렸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내게 읽어준 한편의 시에 나는 완전히 매료되고 만 것이다. 그 때 그 시가 무엇인지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지만 시를 낭송하던 그의 목소리와 표정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남저음의 목청 그리고 깊게 감긴 눈. 그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비세속적이었나를 말해 주고 있었다.

고답적이지 않지만 성실하고, 어리지만 나눔에 후했던 그를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다. 이중섭을 좋아한다는 그는, 우시장에서 소 값을 잃고 울고 있는 농부를 향해 제 주머니를 다 털어주는 이중섭 만큼의 사람에 대한 연민을 지니고

바쁜 행자시절 틈틈이 시집읽어
따뜻한 눈으로 세상 보는 수행자

있었다. 공양주 보살이 아플 때, 일하는 처사들이 어디 출타할 때 그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마른 땅을 핥고 지나가는 물결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 위를 촉촉이 적시며 지났다. 부드럽고 넓은 마음은 그에게 다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따스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했다.

사람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는 그의 자세를 보면서 출가란 어쩌면 모든 사람을 보듬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사람에 대한 따뜻함 그리고 샘솟는 연민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알게 되었다.

어리지만 그의 의식과 철학은 나이를 이미 넘어서 있었다. 그는 분명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너무 일찍 깨어버린 학생이었다. 자본주의적 세상 그리고 인간의 소외에 대해서 그는 진정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가슴을 배워 버린 것이다. 그 가슴의 따뜻함과 눈물이 학교를 작파하고 10대의 그를 산문을 향하게 한 것이다.

상원사의 바람은 찬데 그는 오히려 이 곳이 세상 보다는 따뜻하다며 아궁이에 불을 때곤 했다.

■ 월간 <해인>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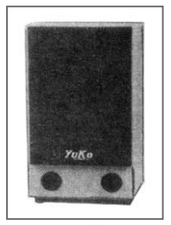
불교신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이영숙 원장입니다
이 가을에 시집을 출판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제목 "바람이 멈추어 선 자리"(저자 : 이자임)
자서 : 그대 그리울때
가을은 아름다운 사랑으로 물들고
인생을 갈망하며
그리움으로 울고 있을때
고달픔을 업고 가는
어머니 품속으로 포근한 바다가 있었다.
가슴에 남아있는 그리움
이별의 끝에서 고통으로 서 있던 시간들은
이제 자유로와 질때다 ... 생략
부족한 글 외로움과 아픔을 함께 나눌수 있는 시(詩)가 되었으면 합니다.
▶판매처 : 교보문고, 영풍문고, 여시아문(조계사옆), 태평서적, 두레문고 외 대형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이 가을 연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 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고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과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인파선이 나았다.
◆ 변비가 나았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혈색이 좋아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져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Kg당 40만원을 20만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달인물(만삼생것10kg, 왕기, 잔대, 삼지구엽초, 생강, 대추, 갈조)
■ 1Box × 60포 : 20만원 ■ 2Box × 120포 : 3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8292, 562-2165
● 성 명 : 심 정택 H·P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법당전용스피커 YM-520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효사 육임 도서 안내
■ 활용서 ■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전 12권, 부록,활용법 설명비디오 포함) 2,500,000
● 육임래정비법 350,000
● 육임래정비법 휴대용 310,000
● 각일각시운명예언비법(태아 · 길일 · 길시 선정법) 74,000
● 육임신수비결 300,000
● 육임指斗생활비법 10,000
● 길흉상담지침록 20,000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日語版 ￥272,000
(전 12권, 부록,활용법 설명비디오 포함)
■ 학습서 ■
● 효사 육임강의록 上(학습용) · 下(활용서)권 410,000
● 육임강의 비디오 · CD 900,000
● 육임형이상법 150,000
● 육임운명판단법 130,000
효사 전국육임直講 안내 직강
● 서울 매주 금요일 「효사숙」 02-993-8680
● 서울 강남 매주 토요일 「강남숙」 02-523-3030 (비구니스님 전문학당 청룡사)
● 전주 매주 일요일 「전주숙」 063-284-7714
● 광주 매주 월요일 「광주숙」 062-224-8680
● 진주 매주 화요일 「진주숙」 055-755-1644
● 부산 매주 수요일 「부산숙」 051-756-0141
● 대구 매주 목요일 「대구숙」 053-624-8680
● 오행 기초 · 기본을 모르는 분들은 위 각 본 강의 2시간 전에 나오셔서 사전 교습을 받게 됩니다.
※ 수강료는 일백오십만원이고 교재 효사육임강의록 上 · 下권을 드립니다.
●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는 육임학당「효사숙」에서「본회회원실기지도강의」와 육임서 설명회가 본 강의전에 있습니다.
문의 02-993-8680 / 02-998-8683
입금계좌 도서주문 : 우리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강의신청 : 우리 813-102730-01-001 한국육임학회

대전에 불상미술관 생긴다

불상조각가 이진형씨, 2007년 완공

6,300평에 전시·연구·무형문화재 전수실

동산엔 부처님 전생설화 등 테마파크도



◇올해 완공된 80평 규모의 제 2전시실 외부(사진 위)와 내부 모습. 전시실에는 현재 크고 작은 불상 2백여점이 상설로 전시돼 있다. 앞으로 일반작가들의 작품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대전에 불상전문 미술관이 생긴다.

불상조각가 이진형씨가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에 불상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여진미술관을 2007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자신의 법명을 딴 이 미술관은 현재 대지 6,300평에 무형문화재 전수실(150평)과 제 2전시실(80평), 학예연구실(65평)을 갖춘 상태다. 여기에 내년 11월까지 지하 1층과 2층 건물에 제 1전시실을 건립한다.

제 2전시실이 이진형씨의 작품을 비롯한 일반 작가들의 불상을 전시할 예정이라면, 제 1전시실에는 국보와 보물급 불상을 모작(摹作)한 작품들을 전시한다. 비록 모작이지만 고증을 통해 철저하게 전통양식의 기법을 따라 만들 예정이다.

특히 이 전시실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현재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250여점 가운데 100여점을 선별해 일반인들이 우리나라의 불상양식을 시대별로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 관장의 생각이다.

여진미술관에서 가장 주목을 끌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야외 불상박물관이다.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전통양식의 일주문을 따라 미술관 안으로 들어오면 오른쪽 동산에 오백나한상이 건립된다. 일종의 야외 나한전인 셈이다. 또 정면으로 보이는 동산에는 초전법륜상이 세워지며 주변에 '부처님일대기'와 '부처님 전생설화', '지장의 원력세계'를 주제로 목조, 석조, 청동, PVC 동상이 테마파크의 형식으로 조성된다. 대략 야외 노천 불상박물관에는 1천여점이 전시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통불상 한자리 모아 불교포교에 한몫 서원"

이진형 여진미술관장

"우리나라의 전통 불상을 한 자리에 모아 일반인들에게 보여주면 불교미술의 포교에 한 몫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진형 여진미술관장(50)은 불사의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 관장의 이런 생각에 가장 큰 환영의 뜻을 보인 것은 가족들이었다. 특히 부산 동의대 조소과를 졸업한 장남 이재윤(28)씨는 직접 이 관장의 일손을 거드는 등 미술관 건립에 팔을 걷어부쳤다.

대전광역시 지정문화재 보유자인 이 관장은 "몇년전 대만 불광산사를 방문했을 때 사찰 경내에 부처님 일대기를 테마파트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전시실 지하에 직접 불상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장금에 출연 중인 탤런트 지진희(사진 오른쪽)

대장금 출연 지진희씨에 내소사, 달마도 기증

MBC 화제의 드라마 '대장금'의 남자 주인공 민정호 역을 맡은 탤런트 지진희씨는 이달 초 전북 부안의 내소사에서 수행중인 한 스님으로부터 달마도를 선물 받고 좋은 인연을 맺게됐다. 이 달마도는 1900년대 초반의 작품을 본뜬 것으로, 선물해 준 스님이 20년 넘게 소장해 온 것이다.

지진희 씨는 "사찰에서 마음 편히 지내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게 돼 기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에서 금속디자인을 전공한 지진희 씨는 이 작품을 직접 표구할 생각이다. 또 대장금 촬영이 끝난 뒤에도 틈틈이 내소사를 방문해 불교와의 인연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상희 기자

마당놀이 '이춘풍' 공연 12월 14일까지 국립극장

극단 미추의 마당놀이 '이춘풍(김지일 극본, 손진책 연출)'이 11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서울 남산 국립극장 마당놀이 전용극장에서 열린다.

마당놀이 이춘풍은 여색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이춘풍이 슬기로운 아내로 인해 난관을 극복한다는 이야기다. '마당놀이 3인방'이라 불리는 윤문식, 김성녀, 김종엽 등이 각각 바람둥이 이춘풍, 이춘풍의 처, 재담꾼으로 출연한다. 또 불교음악가로 알려진 작곡가 박범훈씨도 이번 마당놀이에 참여했다.

극단 미추의 박현숙 팀장은 "오랫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당놀이를 가장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석을 약 2000석으로 조정했다"고 이번 마당놀이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공연은 화~금요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3·7시, 일요일 오후 1·5시에 관람 가능하다. (02)747-5161



◇마당놀이 '이춘풍'의 출연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진 왼쪽 네 번째부터 김성녀, 윤문식, 김성애, 김종엽씨.

한-印 선율바탕 금강경 음악화

김진묵씨, 퓨전명상음반 출시



◇'금강반야바라밀경' 앨범 자켓 사진.



"한국과 인도의 선율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음악화 한 것입니다. 금강경의 독송에 맞도록 음운이 짜여져 있어 스님들도 음악을 틀어놓고 독송할 수 있지요."

한국과 인도의 월드 퓨전 그룹 '씽깃 프렌즈(Sangeet Friends)'의 '아유타 시리즈' 완결편으로 이번에 새음반 '금강반야바라밀경'을 내놓은 작곡가 김진묵씨(52·사진). 이 음반은 한반도에 불교를 전한 아유타국의 허황후가 금관가야의 황후가 되면서 겪는 인간적 고뇌를 불심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표현했다.

특히 2장 '다이아몬드 수트라'는 김진묵씨가 불교음악을 하게된 계기를 열어준 성공 스님의 독경 소리를 듣고 '씽깃 프렌즈'가 즉석 연주를 한 것. 여기에 등장하는 인도 악기도 다양하다. 반수리(대나무 통소)를 비롯해 타불라(북), 하모니움(손풍금), 사로드(기타), 타포(인디언 타악기) 등의 인도악기에 한국 전통악기인 아쟁이 환상의 하모니를 연출해 낸다. (011)9196-2707

동자상 70여점 특별공개 청주박물관, 도록도 발간



◇목조연봉동자상

동자상이 주는 감동은 그들의 얼굴에 있다. 그래서일까, 불교미술에서 동자상은 항상 주요 소재로 등장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동자상(童子像)을 모아 엮은 도록 <불교동자상>(솔출판사)은 사찰의 대웅전이 아니라 명부전이나 나한전 한 켠에 외롭게 놓여졌던 동자상의 '복권'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동자상은 사실 예술적 가치만으로는 눈에 띄는 대상은 아니다. 나무와 흙 등 흔한 재료에 크기도 다른 불상에 비해 소규모이며, 세련미와 긴장감 같은 미적 요소도 좀처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점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천진불심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조각에 견줄 수 없는 감동을 준다.

이 책에는 <화엄경> <아함경> <대반열반경> <삼국유사> 등 우리나라의 고대문헌과 불교의 원시경전을 비롯해 신라시대의 불상과 고려 불화에 등장하는 2백16점의 다채로운 동자상이 실려 있다. 국립청주박물관은 이 가운데 '목조연봉동자상', '목조명부동녀상', '목조기사동자상' 등 70여점을 공개하는 특별전을 11월 23일까지 연다. (043)255-1632. 김주일 기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Btn 불교TV <ch 32>

06:25 신행 365일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19일 09:10 묵연 스님의 시와 사랑
08:55 우리들의 찬불가		20일 12:00 향토음식기행 전통의 손맛
11:10 행복스튜디오		21일 12:50 한마음선원 음악회
15:05 음악의 마을		22일 12:50 충성 성불하십시오
16:45 룸비니 동산		23일 16:45 하재봉의 영화산책
19:00 저녁종합뉴스		24일 09:20 외국인 스님의 영어법문
20:05 다시 듣고싶은 노래		25일 19:30 수진 스님의 화엄경 강의

하이라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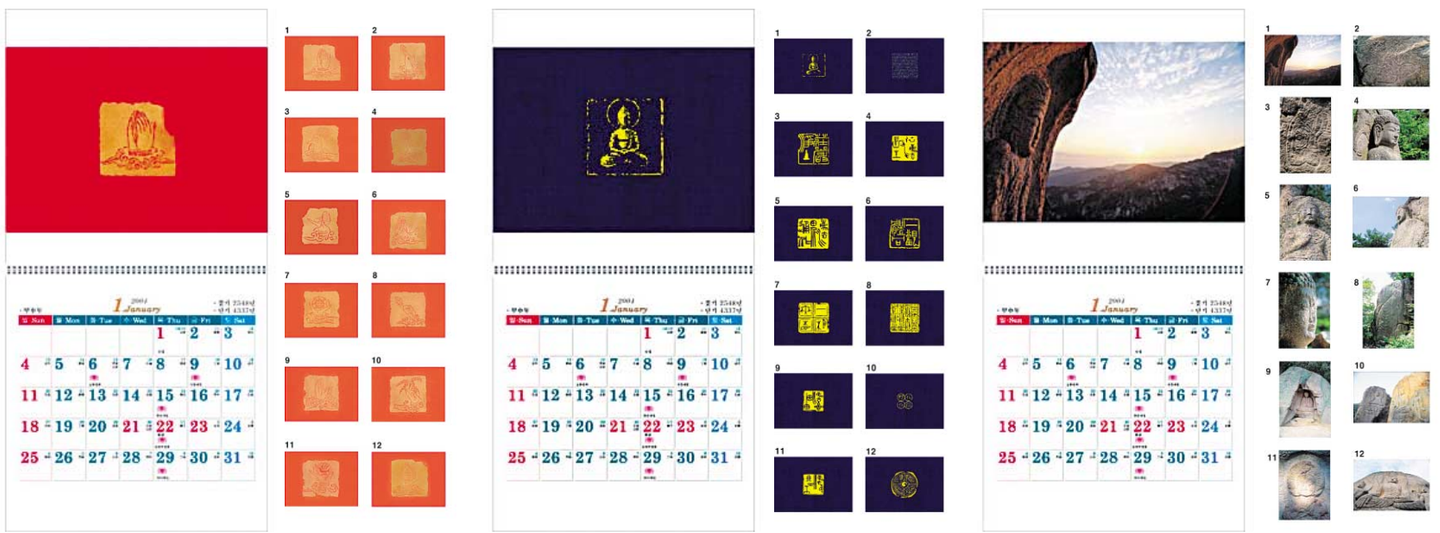
■**불교방송**:▷룸비니 동산(11월 26일 16:45~17:00)=어린이 포교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용스님이 진행하는 어린이 프로그램. 26일 방송에서는 우리 동시를 어린이가 낭독하는 '문수와 음미의 동시산책', 옛 동요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 등으로 꾸며진다.

■**불교텔레비전**:▷묵연 스님의 시와 사랑 (11월 19일 09:10~10:00)=후안 라몬 히메네스의 '나는 내가 아니다', 묵연 스님의 '홀로 있는 비법' 등의 시(詩)와 함께하는 시간이다. 자신의 존재를 안에 가둬버리는 인간의 나약함과 자기안에 감춰진 다양한 모습들을 사랑하라는 내용.

2004년을 준비하는 불자님들의 현명한 선택...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 주문전화 : 02)732-1520



전각 수인(手印) – 관세음보살 42수인
▶ 규격 : 310mm × 310mm 13매
▶ 지질 : 스노우화이트지
▶ 상호란 : 31cm × 7cm
▶ 사찰 및 단체명 무료 인쇄

전각 금강경
▶ 규격 : 310mm × 310mm 13매
▶ 지질 : 스노우화이트지
▶ 상호란 : 31cm × 7cm
▶ 사찰 및 단체명 무료 인쇄

석불(石佛)
▶ 규격 : 310mm × 310mm 13매
▶ 지질 : 스노우화이트지
▶ 상호란 : 31cm × 7cm
▶ 사찰 및 단체명 무료 인쇄

인터넷 마하몰 www.mahamall.co.kr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불자들의 필수품
2004년 불교 다이어리북 출시!!
매일매일 음력,간지, 불교명언이 소개되고, 절에가는 날이 표시되어 편리한 불자들의 신행용품.



향싼 종이에서 향내가 나듯, 불교 다이어리북에서는 불교의 지혜가 솔솔묻어 나옵니다.

2004년 불교 다이어리 북
▶ 색상 : 곤색, 자주, 회색 ▶ 단체명 고급인쇄 –100권 이상
▶ 가격 : 각권 7,000원



◇콩에서 추출한 천연원사를 활용해 만든 내의 '콩의기적' 을 '콩안경' 으로 살펴보는 소비자들.

콩으로 옷을 만들었다고?

선사들은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오로지 하나의 화두만을 참구하며 수행했다. 오늘날 현대인은 '건강' 을 화두삼아 선사 못지않은 열정으로 '용맹정진' 중이다. 이들은 깨어있는 순간 어디서나 건강한 신체를 꿈꾼다. 그 같은 바람이 시장의 모든 상품에 녹아들어, '건강 기능성 제품' 출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제 본래의 한 가지 기능만을 추구하는 제품은 소비자의 외면과 함께 한 마디 덕담을 들을지 모를 일. "건강의 옷을 입고 오라!" 건강을 위해 무장한 멀티 상품들을 소개한다.

◈식품에 이는 건강바람

주로 질병 예방효과나 영양함유가 뛰어난 음식 및 요소를 첨가한 식품이 많다. 상황버섯을 현미찹쌀에 배양시켜 재배한 기능성 '버섯쌀' 을 비롯, 상황버섯 추출액을 면의 반죽수로 사용한 '상황버섯국수' 등 상황버섯 응용 식품이 인기다. 항암효과는 물론, 당뇨병을 비롯한 성인병 예방 · 치료에도 효과가 입증되면서 상황버섯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해조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한 껌, 항산화 및 노화억제 · 면역강화 · 항암 등의 효과가 있는 '천연 셀레늄' 을 2~3배 강화시킨 우유, 고혈압과 무릎통증에 좋은 검은콩 포도주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됐다.

건강으로 무장한 멀티상품 봇물

◈의류에도 건강마케팅

의류업계도 '건강 마케팅' 이 한창이다. 겨울을 맞아 출시된 내의에 건강기운이 완연하다. 보습효과와 유해물질 분해 · 흡수 효과가 뛰어난 '참숯내의' 를 비롯, 항균방취와 보온 기능이 특별한 '원적외선 한약초 내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에 도움을 주는 '맥반석 내의', 가려움증을 막고 땀냄새 제거 효과까지 있는 '키토산 내의' 등 천연소재를 사용한 내의가 강세를 보인다. 또한 콩단백질로 만든 천연섬유에 실크를 혼방한 스웨터, 옷감에 비타민을 녹인 비타민 외투 등도 겨울철 인기 품목이다. 청바지 원단에 은이 가공돼 몸에 좋은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은 청바지', 진주가루를 섞은 소재를 어깨 패드에 덧댄 정장 등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건강화장품' 에 '건강미인'

최근 일고 있는 '콩바람' 에 편승, 피부노화 예방과 보습청정효과가 뛰어난 녹두화장품이 나왔다. 사람의 피부 단백질과 유사한 누에고치 단백질 추출 상품도 눈길을 끈다. 피부재생을 돕고 실크보호막을 형성시켜 피부를 매끄럽게 가꿔준다는 이유로 로션, 비누 등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성장과 신체균형 및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아미노산 함유제품도 샴푸, 화장품 등의 소비재로 확산 중이다. 특히 지렁이 점액에서 추출한 천연 아미노산을 원료로 만든 마사지팩, 아이크림, 비누 등이 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강기능성 소재 전문기업 우리바이오텍 박길현 대표는 "지렁이의 점액 분비물에 함유된 프로테아제는 피부를 각질화하는 케라틴을 분해하는 기능이 있어 보습 · 미백 효과가 뛰어나다"고 밝혔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클릭! 불교문화상품 <반야바라밀다심경>목판



고려 1236년부터 국가의 안녕을 위해 16년간에 걸쳐 판각된 고려대장경 중 <반야바라밀다심경>을 탁본, 뉴송 재질의 목판에 재현한 것이다. 81,258장의 경판 중 가장 깊고 오묘한 뜻을 담은 반야심경 경판이라 거실이나 공공장소에 걸어두면 좋다. (770mm×230mm x25mm) (02)732-1520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아들을 위한 선택



며칠 전, 50세 정도 돼 보이는 한 신사분이 저를 찾아 왔습니다. 고급 공무원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그 분은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들 때문에 저를 찾아 왔다고 했습니다. '첫사랑' 이라는 영화에서 백혈병을 앓고 있는 연인들의 애절한 사랑을 감명 깊게 본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백혈병은 영화나 소설 혹은 드라마속의 주인공들이 앓는 병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백혈병을 자신의 아들이 앓게 될 줄이야!

그 분의 아들은 지금 22살로 대학교 3학년이라고 합니다. 학교성적도 늘 상위권에 속했지만 성악을 전공해도 좋을 만큼 성량이 풍부해서 노래를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키 수영 같은 운동도 수준급이고 외모도 준수해서 그의 주위에는 늘 많은 친구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은 지난 여름도 친구들과 함께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 위해 동해바다로 갔다고 합니다. 전에도 가끔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 위해 동해바다로 갔기 때문에 그들 내외는 별 생각 없이, 조심해서 잘 다녀오라는 일상적인 당부만 했다고 합니다. 장비를 둘러메고 집을 나간 아들은 1주일 후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온 아들은 감기몸살 증세를 보이며 몸져누워 앓더라는 것입니다. 과로를 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 그의 아내는 직접 쌍화탕을 달려 먹이면서 피로가 풀리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해서 아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는데, 진찰과 검사가 끝난 후 아들에게 내려진 병명은 백혈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백혈병이라니!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 믿기지 않아서 진찰을 몇 번 더 받아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명의라도 50%는 오진을 한다는데 기계도 검진을 잘못 할 수 있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검사 결과는 언제나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두 달이 지나자 그들 내외는 물론 아들까지도 백혈병이라는 병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수 이식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맞는 골수를 찾아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아들과 맞는 골수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은 자기 내외의 골수까지도 말이죠.

의사 말로는 아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금쪽같은 이 6개월을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를 놓고 아내와 의견대립을 하다가 저를 찾아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한테는 지금 애인이 있습니다. 백혈병이 감기처럼 옮는 병이라면 같이 백혈병을 앓고 싶어하는 애인이 말입니다. 저는 아들이 6개월 동안 애인과 마음껏 사랑을 나누게 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6개월을 60년처럼 살다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죠. 그런데 아내는 저와 생각이 다릅니다. 아내는 자신이 아들을 데리고 6개월 동안 절에 가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부처님한테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 병이 완쾌되는 기적을 얻을지도 모르고, 만약 그런 기적을 얻을 수 없다 해도 업(業)을 맑히고 가게 되니 다음 생은 보다 건강한 몸을 받아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며 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저희 내외는 매일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데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을 아들한테 넘겨줬지만 아들 역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좋은 조언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인생의 의미 깨닫도록 조언을…

신사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저는 어떤 쪽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서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생각에 잠겨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6개월 동안 아드님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인생이란 진정 어떤 것인가' 를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님 혹은 주위 분들이 해야 할 일도 그 일을 잘 하도록 돕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선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공부하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부처님은 '인생이란 진정 어떤 것인가' 를 우리들에게 가장 잘 알려주신 분이니까요. 그 일은 병원에서 애인과 같이 할 수도 있고 부처님을 모신 절에 가서 할 수도 있겠지요. 장소만은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제 조언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인생을 바로 이해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6개월이나 남아 있다는 것이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말이죠.

化緣 (02)704-3577

명리학 사상 가장 확실한 교과서인
"최신팔자명리학비결서" 소개

사주학 사상 그 누구도 사주학의 요체가 되는 **<용신을 확실하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놓지 못했던것을 본서에서는 수년간 연구 검증된 계산법으로 그 방법을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쉽게 사주학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본서의 이론을 습득하면 어떠한 사주이던 자신있게 상담에 임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서는 사주학을 운명추론학에서 심리학으로 까지 발전시켜놓은 이론이기도 합니다.

◈ 본서의 주요내용 소개 ◈
- 복잡하고 애매한 명리이론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립시켜 놓았다는 점.
- 검증된 간단한 계산법으로 어떠한 사주이든 쉽게 <용신>을 찾을 수 있는 비결 공개(억부, 음양, 구조용신).
- 심리구조분석 및 8개궁위분석 비결 / 일간진입원리 응용비결 공개.
- 각종인연 분석에 관한 확실한 분석비결 공개(육친, 재물, 지위, 결혼인연 등).
- 사주원국에 대. 세운을 대입 해석 하는 비결 공개.



◐ 저 자 : 오산 정대균
◐ 책규격 : A-4별정지 620쪽
◐ 가 격 : 220,000원
◐ 본서는 본 연구소에서만 판매하며 입금 후 전화주시면 택배로 발송함
◐ 하나 : 751-810033-42207
국민 : 765202-04-019996
농협 : 170202-56-037616
● 예금주 : 정대균

www.sazoopalza.com

오산 팔자 심리학 연구소
☎ 02)831-0055(대표)
FAX 02)831-0058 / H · P 011-208-0051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기도처 자연속에 보금자리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토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 · 미용실, 식당, 오락실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엄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 · 식 · 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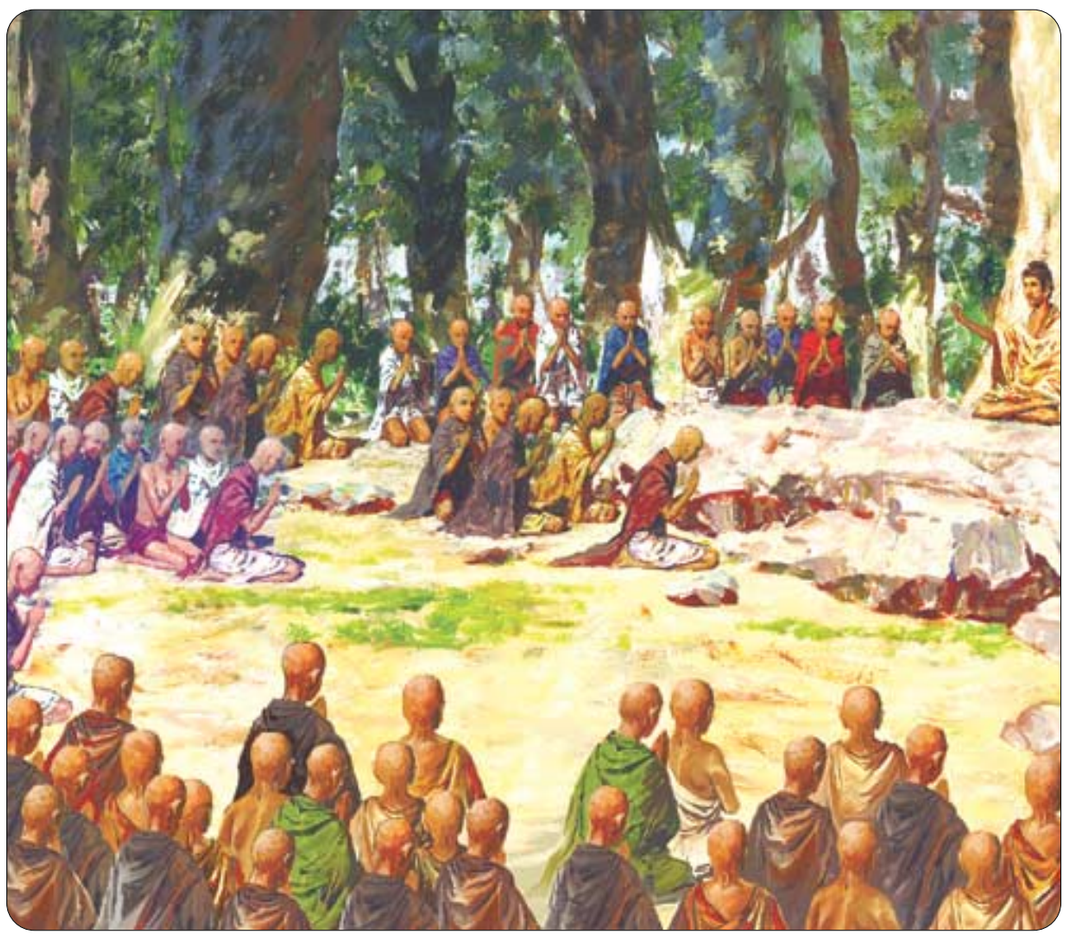
제27화 유혹에 빠진 아힘사

세 차례에 걸친 붓다의 거절에도 마하파자파티 국모와 야소다라가 아난다를 앞세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자 할 수 없이 여덟 가지의 조항과 348계를 존중하는 조건으로 출가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 여덟 가지 조항(比丘尼八敬戒 八重法)은 다음과 같다.

1. 비구니(比丘尼)는 경력에 관계없이 비구(比丘)에 대하여 먼저 합장, 존경해야 한다.
2. 비구니는 비구가 없는 장소에서 안거(安居)를 해서는 안 된다.
3. 비구니는 한달에 두 번씩 비구승단으로부터 계율의 반성과 설교를 들어야 한다.
4. 비구니는 안거가 끝난 뒤 남녀 양쪽 승단에 수행이 순결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5. 비구니가 죄를 범했을 때엔 남녀 양쪽 승단으로부터 반달동안 별거(別居)를 당한다.
6. 비구니의 견습은 2년의 수행 후 남녀 양쪽 승단으로부터 비구니 의식을 받는다.
7.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비구니는 비구를 욕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8. 그러나 비구는 비구니를 꾸짖어도 무방하다.

이상의 여덟 가지 조항을 받아들인 마하파자파티는 최초의 비구니가 되었으며 비구니 승단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게 되었다. 당시의 사회적인 인식상 여성들의 승단 진출은 가히 큰 충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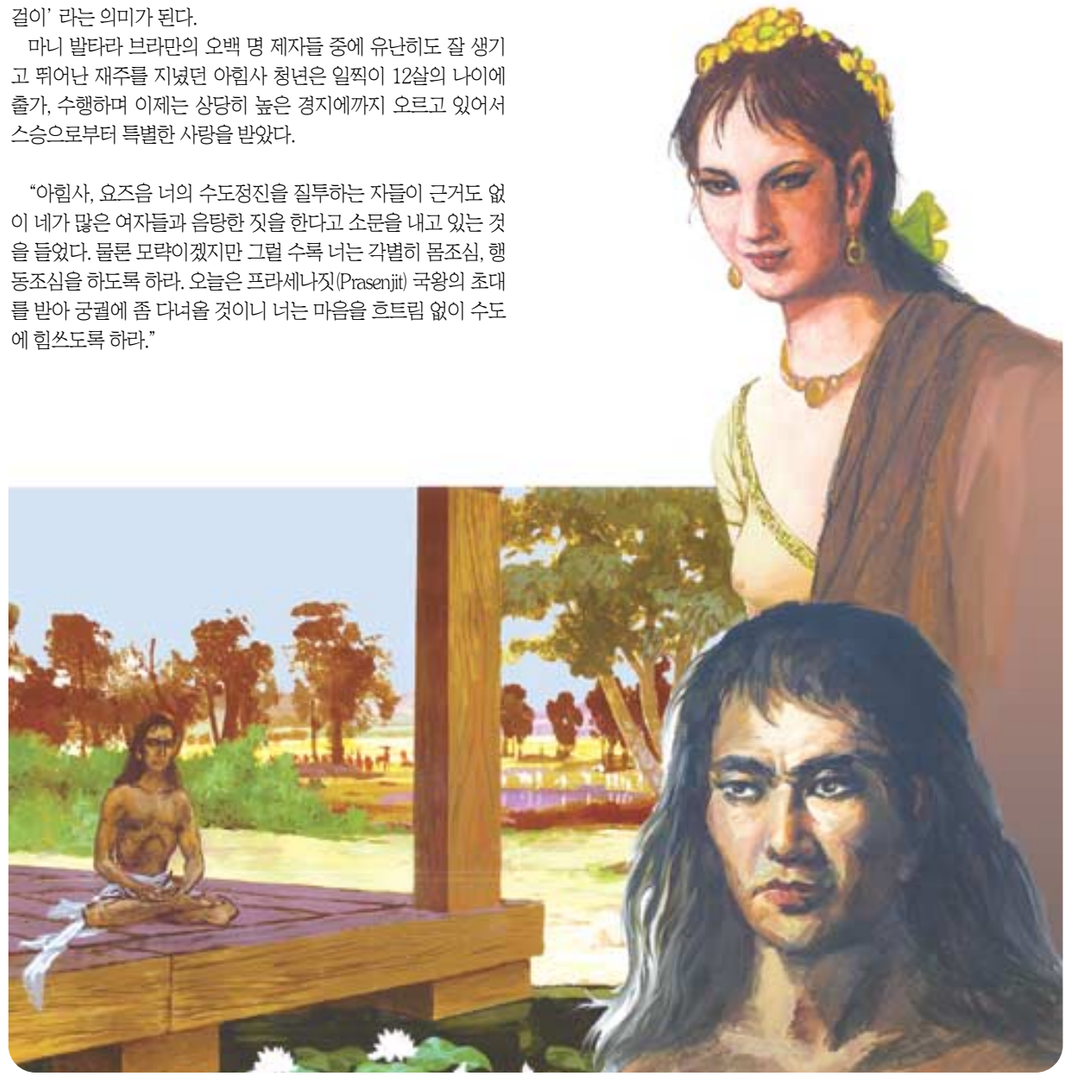


한 문역으로 사위성(舍衛城)으로 잘 알려져 있는 스라바스티(Sravasti)와 부처님의 기원정사(祇園精舍)의 중간에 '마니 발타라' 라고 하는 브라만 (Brahman)이 오백 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수행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앙굴리마라 (Anguli-mala)' 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아힘사' 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이다. '앙굴리(Aguli)' 는 손가락(指)을 뜻하고 '마라(mala)' 는 목걸이를 뜻하여 결국 '손가락 목걸이' 라는 의미가 된다.

마니 발타라 브라만의 오백 명 제자들 중에 유난히도 잘 생기고 뛰어난 재주를 지녔던 아힘사 청년은 일찍이 12살의 나이에 출가, 수행하며 이제는 상당히 높은 경지에까지 오르고 있어서 스승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아힘사, 요즈음 너의 수도정진을 질투하는 자들이 근거도 없이 네가 많은 여자들과 음탕한 짓을 한다고 소문을 내고 있는 것을 들었다. 물론 모략이겠지만 그럴 수록 너는 각별히 몸조심, 행동조심을 하도록 하라. 오늘은 프라세나짓(Prasenjit) 국왕의 초대를 받아 궁궐에 좀 다녀올 것이니 너는 마음을 흐트림 없이 수도에 힘쓰도록 하라."



"스승님께 불필요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옵니다. 스승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수도에 정진하고 있사옵니다."

스승이 외출하고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아힘사가 뜬소문을 무시하고 다시 선정(禪定)에 들기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스승의 젊은 아내가 맛있는 음식물들을 준비하여 들고 나타났다.



"아니, 사모님이 여기엔 어찌하여 오셨습니까? 이곳은 수도자들을 위하여 지정한 곳으로 여인들의 출입을 철저하게 금한다는 스승님의 말씀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 염려 마세요. 스승님은 벌써 멀리 떠나셨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성내로 탁발을 나가고 이곳에는 나와 그대 단 둘 뿐이랍니다. 참, 요즈음 그대에 관하여 많은 여인들의 소문이 떠돌던데요. 후훗, 젊고 잘 생기셨으니 여인들의 관심을 받을만 하지요. 그처럼 소문이 자자하신 바람둥이시라면 오늘은 나도 좀 안아주세요. 지금 이곳엔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들의 행위를 거리낄 이유가 없어요. 안심하고 그 젊음을 조금만 나누어 주세요. 호호."

아직 젊은 몸으로 늙은 스승에게 시집을 온 스승의 아내는 어디선가 얻어들은 소문을 믿고 아힘사가 그 젊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젊은 여인들의 육체를 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래 전부터 그녀의 남편이 출타하기만을 기다려 왔던것이다.

그녀는 젊은이의 혈기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믿고 그녀를 가렸던 모든 것을 훌훌 벗어던지고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남자를 유혹하려 하였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이었다. 청년의 완강한 만류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 파렴치한 여인은 이미 정욕의 화신이 되어, 그녀의 뜨거운 가슴을 더 이상 제어할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더욱 더 불쌍한 것은 여인의 돌발적인 행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무런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청년의 당황함이었다. 다만 이 여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방어행동만 있었을 뿐이었다.

"사모님, 이러한 행위는 죄악에 빠지는 지름길 입니다. 스승이 아버지라면 스승의 부인은 어머니가 아니십니까? 이러한 일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무슨 소문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여인들과 놀았다는 것은 완전한 모함입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생애를 통하여 여인의 몸에 손끝하나 만져 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 사모님의 몸에 닿아있는 제 손의 감정은 지금까지의 수행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서 마음을 진정하고 옷을 입으십시오. 저에게 더 이상 수모를 주시면 안 됩니다."

"그대는 이미 내 몸을 보았고 또 내 몸을 만져 본 상황 이에요. 더 이상 아무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옛날처럼 완전히 남남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게 되어 버렸지요. 이왕에 이렇게 된 일을 무엇 때문에 끝까지 버티세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니 이대로 저를 안아주세요."

한동안 스승의 아내를 사모님으로 공경하며 제자의 예의를 잃지 않고 지키려 하였으나, 스스로의 정욕을 식히지 못하는 이 여인은 이미 모든 이성을 잃고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청년은 있는 힘을 다하여 달려드는 여인을 멀리 던지고 말았다. 물론 이렇게 까지 하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이성을 상실한 여인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하여 설득할 것인지 막막한 상태에서 그가 그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다.

나로부터 찾아야 하고
나로부터 다스릴 줄 알아야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요?

문 요즘 저의 생활을 되돌아보면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끄달려서 하루하루를 그냥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스님, 부끄럽지 않은 참다운 수행자가 되고 싶은데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허전해 집니다. 저희가 이 마음 도리를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요?

답 우리는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서로 공생하고 공용하면서 공체로서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반면에 네가 있고 내가 있고 천차만별로 개개인이 있습니다. 차원에 따라서 말입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인간이라 하면 '우리 이 자체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스스로 내 마음과 몸을 다스리면서 모든 일을 꾸려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면 어디로 갈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온 고장을 모르기 때문에 갈 고장도 모르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들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근본, 자기 뿌리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놔라 이렇게 해도 '뿌리가 뭐 말라빠져 죽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나 봅니다. 어떤 분들은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도 과감히 놓고 가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7, 8년이 돼도 놓고 가지 못합니다. 이건 무슨 까닭일까요. 자기 마음으로써 자기를 다스리고 행을 하면서 그 행하는 자체가 바로 자기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를 알고 모든 거를 놓을 수 있다면 될 텐데, 그거를 모르고 항상 방황하고 관습을 좇아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되고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되고' 하면서 끄달리고 가니 어떻게 걸림 없이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제일 시급한 것은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나를 발견한다면 상대를 발견하는 것이고, 상대를 발견했다면 세상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나오고부터 벌어진 일들인데도 나로부터 찾지 않고 나로부터 생각해서 다스릴 줄 모르고, 나한테 닥치는 용도대로 모든 것을 그 자리에다 다시 입력을 해서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게 할 줄 모르고 이런다면 일일이 닥치는 것을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인연 없는 중생은 어찌할 수 없느니라.' 하신 뜻도 거기에 속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내가 수 해를 두고 수십 년을 두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그 뜻을 모른다면 항상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세생생에 업식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럼으로써 옷을 바꿔 입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한 대로 옷을 입고 나오니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고양이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개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돼지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천차만별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산 대로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사람의 의식이 남아 있는데다가 개 모습을 하고 나온다거나 돼지 모습, 소 모습, 토끼 모습, 곤충의 모습, 저 나무의 모습 등 가지가지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옥이겠습니까? 상대방들은 모두 옷 입은 대로 대접을 해 줄 겁니다. 독사 소굴에 들어가서 독사가 되었다면 독사의 대접을 해 줄 수밖에는 없죠.

그러한 고로 여러분이 지금 사실 때에 어떻게 살아야만이 잘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만이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니게 중용을 할 수 있으며, 중용을 하는 데도 걸림 없이, 어떠한 거를 본다 듣는다 해도 구김살이 없이 자유스럽게 무명을 벗겨 줄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기가 무명을 벗은 고로 어떠한 곤충에 이르기까지라도 보고 들으면 무명이 벗겨질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자기를 알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불(佛)이라는 것은 일체 만물만생 생명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를 막론해 놓고 다 생명 없는 것이 없으므로 불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말과 말로 전달해서 돌아가게 했고 천차만별 생명들의 모습들이 다 그 나름대로 전달하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이면 미국말 하고 일본 사람이면 일본말 하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 하듯 다 자기네들끼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체 만물만생이 다 말을 하고 전달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특출한 거는 뭐냐? 말없이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하는 도리입니다. 이게 정신계의, 바로 중용의 진리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돼서 돌아가는 이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의사나 과학자나 천체물리학자가 자기 소임을 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들을 걸림 없이 타개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거는 일체 우주 삼천대천세계 모두가 가깝고 멀고가 없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병원만 하더라도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학술 이론 등 지식이나 의학계의 모든 거를 동원해서 아무리 연구해도 100%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온 줄을 알아야 그 병도 어디서 온 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신계의 50%를 충당할 수 있고, 거기에 물질로써 커버하고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의료상의 50%가 종합돼야 우리가 100%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분야도 그렇고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도 다 그러합니다. 기계 하나를 만들어 놔도 그 사람의 혼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장승을 하나 세워 놔도 장승 세워 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혼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가고 오면서 보고 생각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거기 투입이 돼서 다 신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조성을 해서 모셔 놓으면 그 모습만 봐도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마음을 거기다 다하기 때문에 여래라고 하기도 하고 부처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다면 부처님도 안 계신 거고 부처님이 안 계시면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 내는 것이 없다면 목석이 될 것이고, 체가 없다면 무효일 것이고, 정신계의 근본이 없다면 또 무효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는 아주 높은 데고 낮은 데고 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실마리가 풀리지 않아요

문 관하는 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조석으로 체험을 해 가고 있습니다만 정신적인 경계와 부닥칠 때는 항시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하고 있는데도 실마리가 잘 풀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답 믿는 사람이라야 열쇠를 맡길 수 있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물창고 열쇠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로 믿는다면 열쇠를 탁 줘서 맡길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다 하면 벌써 자기를 이끌어 가는 운전수인 줄 알아야 하는데 아리송하면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다는데' 하고서 맡겨 놨다 도로 뺏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서류를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이러니까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믿고 맡겼다고 하지만 그냥 겁이 나고 그러는 것이 도로 뺏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도로 뺏으니까 일을 못하죠? 또 얼마 있다가 가라앉혀 가지고 또 맡긴단 말입니다. 맡겼다가는 조금 있다 또 그런 건 어디로 간 곳이 없이 또 뺏는단 말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그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믿는다면 내 생명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믿고 안 믿고 간에 바로 자기를 형성시켜서 자기를 이끌고 가는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믿어야 하는 것이지 믿지 못하고 주인공이 따로 있고 자기가 따로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진짜로 믿고 '죽이는 것도 너 살리는 것도 너, 또 해결하게 하는 것도 너, 해결 못하게 하는 것도 너,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진짜 맡겼을 때에 정말이지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믿는다면 무의 세계 유의 세계, 즉 정신세계 현실 물질세계, 이것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거든요. 어떻게 바닷물이나 그 모든 게 수증기로 올라가서 다시 내리게 됩니까? 그런 것도 자동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 생명들이 다 살 수 있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이 아니에요. 물 불 전부가 두 마음이 아니에요. 전부 나인 것입니다. 내 생명인 것이고, 내 마음인 것이고, 체(體)가 다르다 뿐이지 나인 것입니다.

지수화풍이 크고 작을 뿐이지 바로 나도 지수화풍이요, 이 세상도 지수화풍입니다. 모두가 지수화풍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컵이라는 것도 지수화풍으로 인해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생산이 된 거예요. 흙을 물로 개서 바람에 말려서 불에 넣어서 구워서 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컵도 오온의 한 진리에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일체를 포괄적인 내가 하는 것이니
어떤 일이든 함이 없이 공심으로 하세요

하여튼 그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식물도 태양빛과 바람, 공기, 흙, 이 모두가 아니라면 어떻게 자랄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죠. 일체 만물이 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지수화풍으로 뭉쳐져 살면서 지수화풍을 먹고 살고 지수화풍 주머니에서 지수화풍 주머니로 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수화풍 주머니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벗어나야 지수화풍을 마음대로 작용해서 모든 사람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부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생활이 즉 종교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종교며, 그 종교가 바로 삶의 보람을 주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채찍이며 스승이며 바로 자기 몸뚱이가 마음에 의해서 이끌어져 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바로 정신계와 물질계를 둘 아니게 굴릴 수 있는 능력자가 돼서 천부당만부당하다는 것도 능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위해서

문 저는 시장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상에 있어 조금 의문이 생겨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오는 모든 경계를 주인공에 믿고 놓으라고 항상 저희를 가르치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사회에서 온갖 경쟁 속에 분초를 다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 입찰이나 공매 등 이권이 있을 때 내가 이득을 취하면 상대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이니 자리이타의 행위에 어긋날 수도 있으며, 주인공에 믿고 놓아 욕심을 내지 않자니 사회 활동에 소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하며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수행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용 방법에 대하여 설하여 주십시오.

답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다 놓으라고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욕심도 부려야 하는데 어떻게 다 놓고 삽니까?' 하는 소리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 몸속에 내가 얼마나 많은데 나 혼자 하는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몸속의 생명들을 끌어낸 겁니다. 보십시오. 혼자 한 겁니까? 심부름한 거지요. 돈을 버는 것도 그 생명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벌게 해서 굶주리게 하는 것도 그 자리고, 돈을 잘 벌어서 잘 먹이게 하는 것도 그 자리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한 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사십구 년을 설하실 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착하게 그냥 가만히 목석처럼 있어라.' 이러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하되 함이 없이 해라. 네가 한 게 아니라 진짜 네가 한 거라고 하신 거죠. 네가 한 게 아니라 네가 한 거니라. 그렇다면 개별적인 내가 한 게 아니라 포괄적인 내가 한 거다 이 소립니다.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혼자 먹고 살 양으로 한 게 아니고 혼자 누리려고 한 게 아니고 공동으로 포괄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 하지 말고 한마음 주인공이 하는 거니까 나는 심부름만 해 준다고 한다면 그렇게 남한테 아주 악의적으로 사기 치지도 않을 것이요, 또는 버리지도 않을 것이요, 아주 규모 있게, 즉 말하자면 중도에서 잘 이끌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함이 없이 하라 이거지 꼼짝 않고 목석처럼 가만히 있어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한마음이 하는 거니까요. 당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한마음이 하는 거니까 주인공이 하는 거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주인공이 함이 없이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래도 알아듣지 못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물 한 컵을 먹으면서도 내가 혼자 먹은 사이가 없다 이겁니다. 여럿이 먹었기 때문에요. 내가 물 한 모금을 먹어도 혼자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여럿이서 다 먹는 거죠. 그리고 내 몸속의 여럿이만 먹습니까? 내가 먹어서 똥 누고 오줌 누는 것을 다들 먹고 또 내놔요. 내놓으면 또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또 다시 내려와서 또 먹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먹으면 나오고 나오면 서로 다 같이 먹습니다.

이 미묘한 도리를 알아서 챙긴다면 모두 함이 없이 내가 하는 바가 없이 하는 것이고, 내가 심부름을 하는 것이니 관리인이고 집합소다 이겁니다. 난 집일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들이 살고 있는 이 집이 망가져도 너희들이 고쳐서 살라고 이런 거나 한가지죠. 그런데 그것이 이치에 닿나 안 닿나 좀 보세요. 우리가 집을 지어 가지고 사는데 만약에 집이 헐어졌다면 집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고치지 집이 집을 고칩니까? 자기 몸뚱이가 자기 몸뚱이 속에 있는 생명체들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들어 있기 위해 형성을 시켰으니 고장이 나면 그 집에 들어 있는 자기 주인이 고쳐야지 아니, 집이 집을 고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라 이런 소립니다.

그러니 벌이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하되 자기가 했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공심으로 하라는 거죠.

☞30면으로 계속

자기 마음의 주인에게 탁 일임시키고 중심을 잡고 나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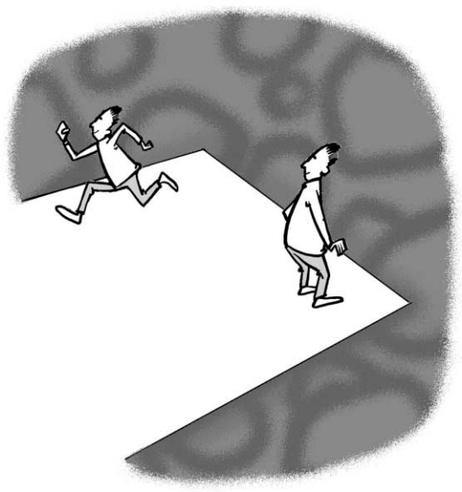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29면에서 계속

삶이 너무 힘들어요.

문 저는 취업재수생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뗏뗏한 직장을 잡아 부모님 호강을 못 시켜드리더라도 남들에게 부끄러운 자식이 되고 싶지는 않았는데 계속되는 시험에서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가을이 지나고 나면 후배들이 또 사회에 흘러 들어올 텐데 자신이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힘들고 길가에 떨어져 누운 낙엽처럼 저 자신이 이 사회에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역경을 헤쳐 나가야 할는지요?

답 비유해서 말하자면, 여러분이 항상 차를 타고 다니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시발점에서 버스를 탄다면 타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탈 때 내리는 사람도 있고 내가 내릴 때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동시에 내리고 타고 하는데 말입니다. 동시에 내리고 타고 하는데 항상 내리는 게 걸리지 않으면 타는 게 걸리고, 타는 게 걸리지 않으면 내리는 게 걸립니다. 그런데 자동적이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내리고 타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상대성의 원리라고도 하구요. 우리 몸에 정맥 동맥이 없으면 이어서 돌아갈 수가 없듯이 말입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내리고 타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 누가 내리고 타고 할 수 있게끔 마음을 가졌느냐는 얘깁니다. 그 마음은 어디까지나 자유스럽습니다.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했고, 자유롭게 행하고 삶을 살 수 있게끔 돼서 사람이라 그런 겁니다. 사람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그 체가 없는 마음을 맘대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유스러운 자기 마음들을 가지고도 자유스럽게 못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습에 매달리고, 안된다는 데 매달리고, 된다는 데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차를 타는 데도 매달리고 내리는 데도 그냥 저절로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왜 끄달립니까? 내가 갈 데 있으면 묵묵히 타는 거고 또 내려야 할 때 묵묵히 내리면 되고 이러는 거지, 밖에 좌석 안에 좌석, 이거 내리는 거 저거 내리는 거, 남이 내리는 거 오르는 거 다 참석하면서 온통 걸리고 돌아가니 마음을 자유스럽게 쓸 수 있겠습니까.

내 육체를 여래의 집으로 삼고 산다면, 한마음의 심봉은 자유스러운 겁니다. 자유스러운 건데도 여러분은 생각하는 대로 여기 매달리고 저기 매달리고 끄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끄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되는 것만 귀중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안되는 것은 '이게 또 안되는구나!'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안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 아니겠습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어저께 밤에 모두 주무셨죠? 오늘 낮에 하루 일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하루 살기 위해서 밤에 잘 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두들 잤습니다. 그런데 밤과 낮이 어디 마음으로 볼 때는 둘이겠습니까? 묘한 점은, 낮에 여러분이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한 것이 그대로 반영되고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밤에 잘 때는 육신을, 집을 팽개치고 그 의식들이 나가서 온통 자기가 생각하고 행하고 말한 대로 움죽거리고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을 안 저지르게 생각을 했다면 안 저지르게 행동을 하는 것이고, 저지르게 생각을 했다면 저지르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잘 때는 육신을 내버리고 하니까 제한도 되지 않습니다. 낮에 입력이 된 대로 텁구멍을 통해 나가서 활약을 하는 거죠. 나쁘게 생각했다면 나쁘게 모든 걸 이어서 가져오게 만들고, 좋게 생각을 했다면 좋게 인연을 맺어서 가져오게 만들고, 화가 나지 않게 모든 걸 거기 놓고 갔다면 밤에 잘 적에도 화가 나지 않게 수습을 하고, 이렇게 항상 내가 하는 대로 원숭이처럼 쫓아간단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대로 입력이 돼서 원숭이처럼 그냥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따로 있고 낮이 따로 있다고 하겠습니까? 또 정신이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잘되는 것도 주인공에다 놓고 안되는 것도 주인공에다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발점 종점으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타는 시발점에서도 내리는 사람이 있고 내가 내리는 종점에서도 또 시발점으로서 타는 사람이 있고, 동시에 타고 내리는데 어떠한 것을 안된다 된다 이런 말로 소홀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안되는 것도 되는 것도 다 법입니다. 그러니까 안되는 것은 나의 뜻을 보기 위해서 안되는 것이니까 나를 아주 튼튼하게 반석처럼 가르치기 위한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그걸 재료로 생각하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또 믿고 거기다 놓을 수 있습니다. 또 되는 거는 되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우리가 타는 것만 법이고 내리는 것은 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고 나갑니까.

일체가 다 그러하니 여러분의 체가 없는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되는 건 안된다고 야단입니다. 내릴 때는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득부득 타고만 간다면 그건 또 잘못되는 일이죠. 그러니 타는 것도 내리는 것도 둘이 아니에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니 바로 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란 놈이 얼마나 묘하고 광대무변한지 모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바로 마음을 마음대로 할 때에 비로소 만물의 영장이면서 바로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천차만별의 생명들이고, 천차만별의 모습들이고, 천차만별의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차원대로 가고 있는데 왜 스님은 별나게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놓으라고만 그러십니까, 그러겠죠? 어디 길을 지나가다 분수를 보셨습니까? 분수에서 물이 나오는데 말입니다. 묵은 물이 겉으로 나오고 겉의 물이 묵은 물이 되고 이렇게 한군데로 나와서 한군데에서 흘어지면 흘어지는 대로 또 모여서 거길 통해서 또 나오죠? 통하는 데는 한군데밖에 없어요. 들어가고 나오는 구멍이 한군데밖에는 없어요. 거기를 거치지 않으면 일체 모두가 이어지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정상입니다. 아래로 들 때는 저녁에 잠을 자는 것이고 위로 올라올 때는 낮에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게 낮과 밤이 없으면 못 살듯이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 그대로 법입니다. 그대로 법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법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마음의 채찍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잘되고 못되고, 잘하는 거고 잘못하는 거고, 이건 나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를 전부 잘들 아십니다. 잘들 아니까 그거를 잘 다스려서 '이게 나쁘게 되는데 이렇게 잘 돌아가게끔, 맑은 물이 나와서 먹게끔 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다.' 하고 거기 놨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움죽거리면서 채찍질해 가면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도리가 엄청난 도리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이 공부를 못하면 아예 세세생생에 발을 빼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지금 압도적으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도리를 잘 생각하고 몰록 그 자리에 놓고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해서 악업, 업식 무명 속에서 벗어나 세세생생에 자유인이 돼서 사시길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근중하게 수행하려면

문 스님께서는 지금 당장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하더라도 내 근본 주장자를 믿고 웃을 수 있어야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저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저에게 손해가 돌아오거나 고통이 온다면 방방 뛰기 일쑤이고 가볍게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생활 속에서 일체를 놓치지 않고 근중하게 수행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는지요?

답 그것도 그렇죠. 누가 지금 빨래를 하는가, 장을 보는가, 누가 지금 밥을 짓고 있는가, 누가 남편하고 만나고 있는가. 그렇게 항상, 밥을 한 그릇 떠먹을 때도 마음에다 참구하고 먹으면 그냥 먹는 밥이 아니게 됩니다. 걸음을 걸을 때나 다닐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똥을 눌 때나, 항시 생활할 때에 내가 밥 한 숟가락을 뜬다 하더라도 무겁게 떠져요. 가볍게 떠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참구하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량으로서 내가 그냥 밥을 홀랑홀랑 떠먹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아주 근중 있게 떠지고 근중 있게 움죽거리게 되고, 말도 근중 있게 하게 되고 무겁게 값비싸게 되지요. 값싸게 되는 법이 없어요. 울어도 값싸게 울지 않고 값비싸게 울게 되죠. 왜냐하면 안으로 참구하니까 주인과 더불어 울기 때문이에요. 현재의식이 우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과 식이 같이 울기 때문에 눈물도 값비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겁니다. 다니다가 비가 막 쏟아진다 할 때도 값싸게 강중강중 뛰어가질 않아요. 옷에 비가 막 흘러서 줄줄 흐른다 할지라도 값싸게 걸음을 걷지 않고 값비싸게 무겁게 걸음을 걷게 되지요.

그래서 천둥 번개가 친다 하더라도 값싸게 강중강중 뛰면서 '아이구, 천둥 번개가 친다.' 그러고 어디로 막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내 마음의 주인과 더불어 같이 터벅터벅, 그러니까 비가 오든 억수장마가 들든, 또 눈보라가 치든 또는 천둥 번개가 치든 자기가 걷던 걸음 그대로 걷게 되지요. 팔짝팔짝 뛰어 가지 않아요.

이게 마음의 주인과 더불어 일상생활을 전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마음의 주인에게 모든 거를 참구하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주인이시여!' 하구선 안에다 참구하고 들어가면 안에서 바깥으로 분산이 되지 않고 안으로만 참구가 돼서 거기에서 합일이 되고 마음의 계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항상 계발이 되어야지 바깥으로 분산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차 말하지만 내 마음에다 참구하고 마음의 주인이 진짜로 믿어질 때 천둥 번개가 쳐도 절대로 빨리빨리 걸어지질 않고 그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옷에 비가 맞고 이러는 거, 소리 들리고 이러는 거 하나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그 백사 만사를 다 누가 하는가 이겁니다. 그게 소위 마음의 주인이 하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하는 걸 알고 참구하고 들어간다면 바로 완전히 잡히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삼세 우주 법계가 다 같이 공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아프면 약사보살이 될 수 있고, 무슨 죄가 생겼으면 신중이 될 수 있고, 검사 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면 관세음보살이 돼 줄 수 있고, 물에 들어가서 배를 타고 갈 때에 폭풍이 불면 내가 바람 부처가 돼 가지고선 바람을 막아 주고, 그럼으로써 내가 용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급한 일이 생겼다 이럴 때는 마음의 주인한테 모든 거를 일임해 버리고 놔 버려라 이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는 내 마음의 주인이 다 해결을 하고 보이는 데서도 마음의 주인이 움죽거리게 한다 이거예요, 모든 일체를 다 말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마음을 잘못 먹어 가지고 구덩이에 빠지는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이 문제지, 절에 오고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보시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게 문제도 아니라 오직 마음이 문제다 이겁니다. 마음이 그렇게 부족하면 남한테 벌써 잘한다 하면서도 남한테 좋지 않게 하는 수가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 하는 일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하나하나 일거일동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주인이 하는 것이니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항상 그 마음을 변치 말고, 자기 믿는 마음을 변치 말고 항상 타의에서 구하지 말라 이겁니다. 어느 누가 있어도 타의에서 구하게 되면 마가 생겨서 달려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집안이 산란해지고 우환이 생기고 그러는 걸 누구한테 다 항거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산란하여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 살림도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고, 마음이 차분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 주인한테 탁 일임시키고 중심을 잡고 있으면 항상 걸어가도 무겁게 걸어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끄덕도 안 하고 그냥 무겁게 걸어갈 수 있어요. 삼 톤 무게가 돼요! 그러니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친다 해도, 삼 톤이라면 얼만 줄 알아요? 삼만 톤이라도 돼요. 삼만 톤이 무겁게 걸어가는데 어디 바람에 쓸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그냥 가볍게 사량으로서 '아이구, 이러면 좋단다, 저러면 좋단다.' 이러면 중심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삼만 톤이라는 게 무겁질 않고 그냥 가볍게 됩니다. 그러니 땅에 발을 딱 디디면 삼만 톤이라는 무게가 무겁게 디뎌져야 비바람이 불고 뇌성벽력이 쳐도 눈하나 깜짝 안 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가볍지 않고 무겁게 말입니다.

그래야 생활도 무겁고 값비싸게 돌아가고 내 몸도 값비싸고 무겁게 광채가 바깥으로 나며 향기가 나오고 여러 사람한테 이익하게 되는 이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중생을 자기가 이익하게 하니 어찌 남한테 이익이 안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중생이라는 것은 항상 남을 접하고 상대를 두고 살아나가는데 어찌 해가 남한테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향기요, 그것이 빛이요, 그것이 능력이요, 그러니 그것이 보살행이다 이겁니다.

내 마음에다 참구하고
마음의 주인이 진짜로 믿어질 때

천둥 번개가 친다 해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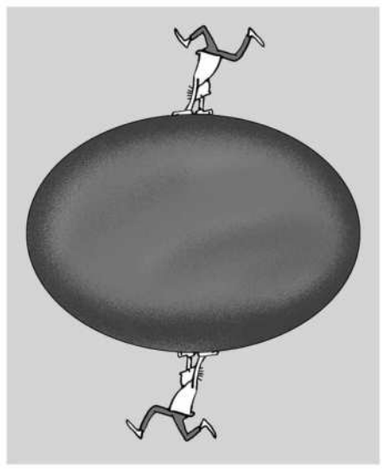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가벼른 언덕을 넘듯 그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세계 불교국제회의 현황



한국, 세계불교의 중심으로 뜬다

월드컵 이후 국제회의 개최 증가 추세
교류 협력 위한 교계의 관심, 참여 요구

국제회의 유치 세계 18위, 아시아 3위(국제협회연합, 2001년 발표). 세계화 시대를 맞아 한국은 국제회의 및 행사를 개최하는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월드컵 이후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가 늘어나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같은 국제교류의 시대에 한국문화의 주축을 이루는 한국불교도 예외일 수는 없다. 매년 세계 각 분야의 국제 불교단체들은 크고 작은 회의를 조직해 전 세계 불교도간의 교류와 협력을 꾀하고 있다. 세계에 한국불교를 알려 국제포교의 장을 넓히기 위한 교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2003년 7월 열린 참여불교 세계대회(INEB)를 비롯해 2004년 1월 예정된 세계불교청년포럼, 같은 해 6월에 열릴 세계여성불자대회 등은 대표적인 국제불교 행사들을 국내에 유치하는데 성공한 사례다. 이들을 포함해 한국불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불교계 국제회의를 살펴본다.

△ 참여불교 세계대회

총 33개국 200여 단체 및 개인이 소속돼 활동하고 있는 참여불교 국제네트워크. 1989년 술락 시바락사(태국), 테루오 마루야마 스님(일본) 등이 중심이 돼 창립된 이래, 4년마다 세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7월 한국에서 열린 제 11차 참여불교세계대회(INEB, International Network for Engaged Buddhists)에서는 18개국의 불교 NGO 활동가 100여 명이 참석해 빈곤, 갈등, 평화, 인권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다.

△ 세계불교청년회

1972년 창립된 세계불교청년회(WFBY, 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Youth)는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20개국 36개의 지역센터로 구성돼 있다. 세계불교청년회는 2년에 한번씩 각국 대표자와 회원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고 매년 2~3회의 이사회를 개최, 주요 안건을 의결한다. 이들이 주최하는 세계불교청년포럼은 2001년 대만(1회), 2002년 뉴질랜드(2회)에 이어, 2004년 1월 9일 서울에서 '나눔과 하나됨'을 주제로 제 3회 포럼을 개최한다.

△ 세계여성불자대회

세계여성불자연합회 주관으로 마련되는 세계여성불자대회(Sakyadit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ddhist Women)는 1987년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인도 보드가야에서 처음 열린 이후 아시아 지역을 돌아가며 2년에 한번씩 개최되고 있다. 내년 6월 한국에서 '여성 불자의 교육과 수행'이라는 주제로 제 8차 대회가 열릴 예정이며, 27개국 500여명의 여성 수행자와 불교학자들이 모이게 된다.

△ 스리랑카 국제불교회의

스리랑카 국제불교회의(International Buddhist Conference in Sri Lanka)는 스리랑카 정부 불교부가 주최하는 전불교권 국가 대상의 국제회의. 2003년 1월 스리랑카 불교중흥의 계기가 되었던 '샤모파리 니카야' 창립 250주년을 기념해 스리랑카 콜럼보에서 처음 열렸다. 자국의 불교상황을 진단,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이 회의는 앞으로 2년에 한번 꼴로 정기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 국제 선우 연합

불자들 상호간의 우호 증진과 이웃종교와의 협조를 긴밀히 한다는 취지아래 결성된 국제선우연합(International Buddhist Friends Association)은 매년 법회와 명상수행 중심의 국제행사를 개최한다. 지난 5월에 열린 이 대회는 올해로 21회를 맞았다.

△ 국제 불교학연구 연합

1976년 설립된 국제 불교학연구 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은 불교학 연구 촉진과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매년 세계의 불교학자들이 모여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저널(JIABS)을 발행한다. 제 15회 정기 국제회의가 오는 2005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런던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中, 지장보살상 건립불사 착공

중국 국내외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99미터 크기의 지장 보살 노천 동상이 안후이성(安徽省)과 츠쩌우시(池州市) 및 구화산(九華山)풍경 관리국의 대대적인 지지와 협력아래 11월13일 정식으로 착공할 예정이라고 <불교성시> 11월 7일자가 보도했다.

이 지장보살 노천 동상은 원래 안후이성 구화산불교협회의 회장인 인덕(仁德) 스님, 이미 원적)이 21세기의 시작을 맞아 친히 제창한 구화산 불교사업이다. 금년 2월 15일, 구화산불교협회는 츠쩌우시 당국에 공문을 보내 시당국이 지장보살 노천 동상을 건립해 줄것을 부탁했다. 츠쩌우시 시위원회와 시당국은 지우화산풍경 관리국의 책임하에 조직적으로 건설, 감독 및 처리 등의 업무를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대만= 이상미 통신원

中, 쿠무투라 천불동 보호 사업

중국 신강성에서 두번째로 큰 석굴군인 쿠무투라 천불동이 11월4일부터 침수와 홍수 등 자연 재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이번 보호 사업에는 베이징 대학과 독일의 유적지 보호 회사 등 저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의 첨단 과학기술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 이상미 통신원

캄보디아, 세계 최고령 불자 사망



세계 최고령자로 알려진 캄보디아인 이 섹(Yi Sek · 사진) 노인이 지난달 14일 동 캄보디아에서 122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이 섹 노인이 태어난 해는 발명왕 에디슨이 최초로 전구를 발명하고 와트 어프 형제가 OK목장의 결투를 벌이던 1881년. 불교 신자인 이 노인의 최장수 기록은 고향인 툭 용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른 것이다. 이 섹 노인의 둘째 부인도 현재 111세이며 툭 롱 마을에 살고 있다.

이들 부부는 최근 프놈펜 포스트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나쁜 업을 짓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아내를 탐하지 않는 것이 백년 해로하게 된 비결"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장수 비결은 부처님의 계율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인 셈이다. 이 노인은 두 명의 부인 사이에서 12명의 자식을 낳았고 70명의 손자와 420명에 달하는 증손자를 두고 있다.

뉴욕= 강유신 특파원

세계의 불교학 연구현장

⑥ 스토니부룩 대학 한국학과

미국의 뉴욕커들에게 '수니(SUNY)'란 애칭으로 통하는 뉴욕주립대. 5개의 뉴욕주립대 중 하나인 스토니부룩 대학은 맨하탄을 마주보며 동서로 길게 뻗은 롱아일랜드의 중간인 스토니부룩 시에 위치해 있다.

스토니부룩 대학의 특징은 한국 불교를 비롯해 한국 문화, 역사, 사회를 연구하는 학부과정의 한국학과가 활성화돼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한국학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 역사, 사회학 간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스토니부룩 한국학과의 자랑은 현지 교민들이 한국학과 설립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 하버드, 버클리, 콜럼비아, 시카고 대학 등 총 20여 대학 한국학과가 한국 정부와 기업의 거대 지원금으로 시작된 것과 달리, 스토니부룩 한국학과는 뉴욕 인근 한인 커뮤니티가 자발적인 모금 운동을 펼쳐 설립됐다. 그래서 한인들은 스토니부룩 한국학과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이민 2, 3세가 이곳에서 한국 문화와 역사를 배운다.

또한 중국, 인도, 일본 관련 연구소가 영세성을 면치 못한 상황에서, 10만 권 이상의 한국학 장서를 보유한 전용도서관을 가진 것도 스토니부룩 한국학과의 자랑이다.


◇박성배 교수


◇조성택 교수

교민들 자발적 설립운동 펼쳐
10만장서 보유 전용도서관 자랑
문학, 역사 안목 기르는데 주력

대학원 과정의 불교학 연구는 비교문학 과정에서 다루어진다. 매해 5~7명 정도의 학생이 입학하는 비교 문학 과정은 불교를 바탕으로 한 문화, 문학, 역사 연구를 비롯, 최근에는 영화와 여성까지 연구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스토니부룩 대학 한국학과의 창립자는 박성배(70) 교수. UCLA의 로버트 버스웰 교수, 버클리 대학의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와 함께 미국 내 한국 불교 연구를 대표하는 박 교수는 62년부터 69년까지 동국대 교수를 역임하고 성철스님 문하로 출가한 바 있다. 69년 도미해 78년 버클리 대학에서 원효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77년 스토니부룩 대학 교수로 부임한 이래, 박 교수는 79년 한국학과 창설, 82년 첫 한국어 강좌 개설, 87년 동아시학과에서 한국학과 독립 등 굵직한 업적을 쌓아 왔다.

그밖의 불교학 연구자로는 불교철학, 인도 불교, 동아시아 불교의 비교연구, 한국불교 연구자인 조성택 교수가 있으며 한국학 강의를 맡는 교수 강사의 수는 총 10여 명에 이른다. 이외에도 비교문학과에서는 유교, 도교를 비롯한 동양사상과 문학, 이슬람 종교와 문학, 서양 문학과 종교, 철학 등을 연구하는 다양한 연구자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연구에 임하고 있다. 서울대 종교학과 윤원철 교수는 스토니부룩 대학에서 불교학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연구자이다.

한국학과장 박성배 교수는 "미국 내 불교학 연구는 학교에 따라 문헌학적 연구, 산스크리트 연구를 통한 연구, 종교학적 연구 등 성격이 다양하다"며 "스토니부룩의 경우 불교 그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 불교를 바탕으로 문학과 역사, 문화를 보는 안목을 기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 강유신 특파원



법구경 강의 80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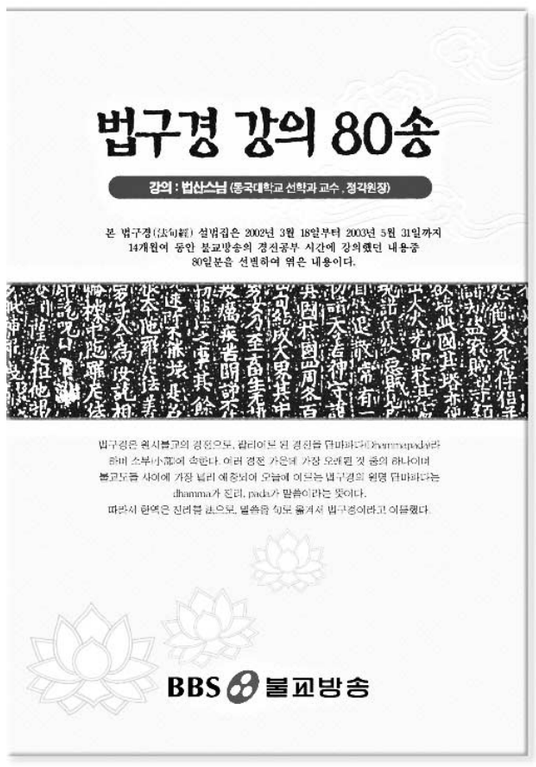
불교방송에서는 동국대 교수, 법산스님의 설법집《법구경 강의 80송》을 테이프로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현실 속 현대인들의 마음에 한구절의 시처럼 쉽게 다가오는 법구경을,

법산스님은 알기쉬운 생활방편을 곁들여 불교를 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잔잔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어라.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어라.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 길거니
그는 바른 법을 모르기 때문일세.
- 법구경 우암품



구입문의 불교방송 포교자료팀
전 화 (02)706-3502~5
가 격 70,000원(C70×20EA)

BBS 불교방송
서울FM101.9MHz · 부산FM89.9MHz · 광주FM89.7MHz · 대구FM94.5MHz · 청주FM96.7MHz · 춘천FM100.1MHz



◇ 죽림정사에서 (15×22cm).



◇ 가야산의 佛足 (41×35.5cm).

인도그림기행 25

그림·글 이호신

붓다 발자국과 최초의 절터

(가야산과 죽림정사에서)

탐욕의 불을 끈 대나무 숲

보드가야에서 가야(Gaya)로 가는 길. 전정각산(前正覺山) 건너편쪽으로 가다보면 두개의 봉우리를 가진 산이 우뚝하니 소위 코끼리 형상을 닮았다고 붙여진 상두산(象頭山)이다. 그러나 한편 우리에겐 가야산(伽倻山)으로 불리는 또 하나의 이름에 더 정이 간다.

'합천 가야산 해인사'를 떠올리며 이른 아침 산을 오르려니 안개속 시야는 마치 천상계(天上界)인양 바위가 떠다니고 숲이 허공에 어른 거린다. 안내자의 뒤만 따라 정상에 오르자 힌두형식으로 붓다상을 모신 옆 바위에 커다란 불족(佛足)이 새겨져 있다.

이 가야산 불족은 여러 가지 문양으로 새겨졌는데 24개의 살을 가진 법륜은 하루 24시간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특별히 주목할 것은 세 마리의 잉어가 새겨진 형상이다. 추측컨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김해지역의 '가야'지명과 김수로왕릉에 그려진 물고기 형상이 떠오르는바 '가야불교의 초전(初傳)'을 새삼 곰곰이 살펴보아야할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佛足에 새긴 문양 가야불교에 영향끼친 듯
왕사성 가는 길 화려한 꽃마차 행렬로 눈길
이슬람교도의 무덤터로 변해버린 죽림정사

한편 그 옛날 붓다가 제자들과 왕사성을 향해 가던 중 이곳을 지나며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설했다는 '상두산 설법'은 예수가 갈릴리 호숫가 산위에서 설교한 산상수훈(山上垂訓)에 비견할 경우로 회자되고 있다.

"온갖 망상이 부싯돌을 쳐 어리석음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른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은 타고 있다. 눈이 타고 있다. 눈에 비치는 형상이 타고 있다. 그 형상을 인식하는 생각도 타고 있다. 눈으로 보아 생기는 즐거움도 괴로움도 모두 타고 있다.

그것은 무엇으로 인해 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 노여움의 불, 어리석음의 불로 인해 타고 있다. 또한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번뇌로 인해 모든 것이 타고 있다…"

결국 타오르는 만가지의 욕망과 애착을 끊어야 비로소 해탈 할 수 있다는 붓다의 설법을 산바람속에 들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곳곳에 중생의 염원을 담은 수많은 돌탑들이 눈에 띈다.

스님은 내게 물었다. "이 화백, 세상에서 가장 높은 탑이 어떤 탑인지 알아요."

"네 스님, 경주 남산 용장사지 3층석탑 말씀아닙니까"

"오, 용케도 아시누만, 기단부가 없는 탑은 산 아래 땅속까지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셈이지요."

"스님, 저는 국보나 보물로 정한 탑보다 가장 좋아하고 아름답게 느끼는 탑이 있습니다."

"참 궁금하네요, 무엇인가요."

"네 스님, 만인들이 쌓은 돌무더기로 아랫돌이 무너지지 않게 조심조심 올려쌓은 저 돌탑들입니다. 형상이 모두 다른 조형미며, 남의 소망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돌탑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나무 반야바라밀, 동감입니다."

물안개에 젖은 몸은 가야산의 인연으로 한껏 부푼 마음이 되어 길을 재촉하니 라즈기르(Rajgir)=왕사성(王舍城)으로 가는 길이다. 초가로 지은 가옥과 무너진 집터, 한적한 농지에 백로 한 쌍이 사선을 그리며 허공을 풍경으로 되살려 준다.

마침내 왕사성에 이르는 길목은 험한 돌산들을 끼고 들어서는데 교통수단으로 마차들이 진풍경을 이루고 있다. 꽃마차의 장식은 매우 볼거리를 자극하는데 현란한 지붕 장식과 갖가지 형상으로 말을 치장한 것들이 눈길을 끈다. 따라서 꽃마차 행렬은 옛 왕사성의 분위기를 돋우는데 크게 한몫 보여주는 셈이다.

왕사성 유적지엔 당시의 마차 자국이 드러나는 곳으로 바위산에 고랑처럼 파인 흔적은 색다른 화석을 보는 것 같다. 한편 특이한 가로수 보호대는 둥글게 적벽돌로 엇쌓고 흰칠로 띠를 둘렀는데 사정인즉, 바람이 통하게 하고 가축과 말들로부터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멋스런 디자인이다.

이제 서둘러 목적지인 교단의 최초 승원터였다는 죽림정사(竹林精舍)를 찾아가자 무성한 대숲의 기대와는 크게 못미치는바, 다만 현장에서 옛 가람의 기원을 되새겨야 했다.

붓다의 생존당시 불법을 숭상한 빔비사라왕에게 카란다(Karanda) 장자라 불리우는 한 부호가 기증한 재물로 건립된 절이 바로 죽림정사였다.

원래 이곳 죽림정사는 아치형의 입구를 지나서 숲의 왼쪽부분, 스투파 혹은 승원터로 추정되는 언덕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는 이슬람교도의 무덤터로 살펴질 뿐이다. 대나무 숲은 아주 마디가 짧고 멀리서 보면 한그루처럼 촘촘히 모여서 길목으로 군집을 이룬 것이 특이하다. 이 대숲을 지나면 이곳 정사를 기증한 장자의 이름을 딴 카란다 연못이 조성되어 있다.

일행들이 탑돌이 하듯 연못을 돌며 발원의 시간을 가지는 사이, 나는 현장에서 화첩을 펼쳐 부감시(俯瞰視; 높은곳에서 아래를 넓게 조망하는 시각)로 먹을 갈고 붓을 들었다.

푸른 하늘 흰 구름 연못속을 흐르고
목탁소리 염불소리, 허공을 치달릴제
대숲 바람 홀연히 묵향(墨香)에 잦아드네.

lhs1957@lycos.co.kr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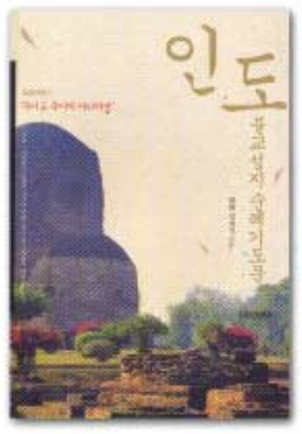
인도 불교성지 순례자는 반드시 이 책을 준비해야 한다!

"인도 불교성지 순례기도문"

불자라면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꼭 다녀와야 할
'인도 불교성지 순례', 무엇보다 충실한 사전준비가
순례의 뜻을 더욱 깊게 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인도 불교성지 순례기도문'이 순례에 나선 모든 불자님들을
잘 인도하여, 신심과 기쁨을 한층 키워줄 것입니다.

"부처님, 저희들도 부처님같이 살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 부처님같이 살아야 해요.
만분의 일이라도 부처님같이 살아야 합니다.…" – 본문에서

인도 불교성지 순례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꼭 이 한 권의 책을 들고 순례 길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 달공 조흥세(전국신도회 고문)



저자 | 김재영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학과와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졸업하였다. 서울 동덕여고에서 33년간 봉직하였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를 역임하였다. 1970년 미리 동덕불교학생회와 청보리회를 창립하여 지금까지 지도법사로 있으며, 1984년부터 현재까지 동방불교대학 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룸비니에서 구시나가라까지」·「은혜속의 주인님네」 「부소의 돌커텐」·「365일 부처님과 함께」 「우리도 부처님같이」·「민족정토론」·「광덕스님의 생애와 사상」 「은소리 불타전」·「초기불교개혁사」·「붓다의 대중건설운동」 등 다수가 있다.

신국판 / 368쪽 / 값 9,000원
※ 단체에서 10권 이상 구입하면 할인해 드립니다.

도서출판 dopiansa (전화)031-676-8700 / (전송)031-676-6704 / E-mail : dopiansa@kornet.net